

신약
10

BELIEVER'S BIBLE COMMENTARY
THE PASTORAL EPISTLES, PHILEMON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목회서신서, 빌레몬서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목회서신서 빌레몬서

김 대 영 옮김

BELIEVER'S BIBLE COMMENTARY
BY
WILLIAM MACDONALD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BELIEVER'S BIBLE COMMENTARY

PASTORAL EPISTLES, PHILEMON

WILLIAM MACDONALD

THOMAS NELSON PUBLISHERS

Nashville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410-8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233-4
전화: (031) 914-2732, 팩스: (031) 917-4520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Jeongbalsan-dong,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410-828, KOREA

차 례

약어표	6
저자 서언	7
편집자 서언	9
신약성경 개론	13
목회서신서	21
목회서신서 서론	22
디모데전서	33
디모데전서 서론	34
1. 인사(1:1-2)	38
2. 디모데를 위한 바울의 명령(1:3-20)	41
3. 교회생활에 대한 교훈(2:1-3:16)	58
4. 교회 안에서의 배도(4:1-16)	88
5. 여러 신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들(5:1-6:2)	100
6. 거짓 교사들과 돈을 사랑함(6:3-10)	114
7. 끝으로 디모데에게 내리는 명령(6:11-21)	121
참고 문헌 목록	130

디모데후서	133
디모데후서 서론	134
1. 디모데에게 전하는 인사(1:1-5)	138
2.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1:6-2:13)	143
3. 충성 대 배도(1:14-4:8)	165
4. 개인적인 요청과 언급(4:9-22)	194
참고 문헌 목록	202
디도서	205
디도서 서론	206
1. 인사(1:1-4)	209
2. 지역교회의 장로들(1:5-9)	215
장로	216
3. 지역교회의 과오들(1:10-16)	226
4. 지역교회의 처신(2:1-15)	232
5. 지역교회에 대한 권면(3:1-11)	242
그리스도인과 세상	242
6. 결론(3:12-15)	253
참고 문헌 목록	256
빌레몬서	259
빌레몬서 서문	260
1. 인사(1-3절)	264
2. 바울의 빌레몬에 대한 감사와 기도(4-7절)	267
3. 바울의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8-20절)	270

4. 맺는 말(21-25절)	278
참고 문헌 목록	280

약어표

- ASV-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FWG-그란트의 숫자 성경(F.W. Grant's *Numerical Bible*)
JND-다아비의 새번역(John Nelson Darby's *New Translation*)
JBP-필립의 의역본(J.B. Phillips' Paraphrase)
KJV-흠정역(King James Version)
KSW-(Kenneth S. Wuest's *An Expanded Translation*)
LB-현대어 성경(Living Bible)
NASB-새 미국 표준역 성경(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B-새 영어성경(New English Bible)
NIV-새 국제역 성경(New International Version)
NKJV-새 흠정역(New King James Version)
RSV-개정 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V-개정역(Revised Version<England>)
A.D-주후(主後;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B.C-주전(主前; Before Christ)
NU-가장 오래된 헬라어 비평 사본

저자 서언

“신자 성경 주석”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진지한 학도가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그러나 어떤 주석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주석이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은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준 다음 보다 깊은 연구를 하도록 독자를 성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본 주석은 쉽고 비전문적인 언어로 집필되었으며, 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인상을 풍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신구약 성경의 원어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때문에 말씀의 실질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경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딤후 2:15).

본 주석의 논조는 간결명료하므로 독자는 어떤 구절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여러 쪽에 걸친 설명을 애써 다 읽어볼 필요는 없다. 분주히 돌아가는 현대생활은 진리가 짧고 간결하게 제시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구절들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다. 많은 경우에 다양한 설명들을 소개함으로 독자로 하여금 어떤 설명이 문맥과 나머지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부합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주석은 어떻게 성경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만일 본서가 목적 그 자체로 사용된다면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덧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본서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일을 독려하고 주님의 교훈에 대한 순종심을 일깨우는데 사용된다면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다.

모쪼록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독자의 마음에 빛을 비취 주시기를 바란다.

편집자 서언

“주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1950년대 후반에 어떤 성경교사가 엠마오 성경학교(지금의 엠마오 성경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던진 충고였다. 그 중 적어도 한 학생이 지난 30년 동안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 그 교사는 본 “신자 성경 주석”의 저자인 윌리엄 맥도날드였고, 그 학생은 당시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던 본 편집자 아더 화스타드(Arthur Farstad)였다. 그는 평생에 단 한 권의 주석만 보았는데 헤리 A. 아이언사이드의 에베소서 강해서인 “하늘에 속한”(In the Heavenly)이 그것이었다. 10대 시절 어느 해 여름에 그 책을 숙독한 후에 아더 화스타드는 주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1. 주석이란?

주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우리는 주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가? 최근에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 발행인이 성경에 관계된 책을 15가지로 분류했다. 따라서 혹 어떤 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주석이 스터디바이블이나 심지어 성구사전, 성경지도, 성경사전 등과도 다른지를 알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놀랄 일이 못된다.

주석은 절별 혹은 단락별로 성경 본문에 대해 “논평을 하거

나”(comments) 도움을 줄만한 언급을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석을 저만치 제껴두며 “저는 단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성경 자체만 읽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제법 경건한 말처럼 들리나 그렇지 않다. 주석은 단지 최선의(그리고 가장 어려운) 형태의 성경강해(하나님의 말씀을 절별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를 문자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주석들(가령 아이언사이드 주석)은 설교를 그대로 책으로 출간했다. 게다가 모든 시대 모든 언어로 된 유명한 성경강해서들이 영어로 보급된 실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강해서들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로서는 절망할 정도는 아니라 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까닭에 이 “신자 성경 주석”이 간행된 것이다.

2. 주석의 종류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주석을 집필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주석은 매우 개방적인 것에서 매우 보수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본 “신자 성경 주석”은 성경을 신앙과 삶 모두에 절대 충분한 영감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매우 보수적인 주석이다.

주석은 매우 전문적인 것(예를 들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구문에 대해서까지 세세한 설명을 가한 것)에서 매우 간략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범위가 넓은데 본 주석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다. 전문적인 설명은 주로 각주로 돌렸으나 본문 해설에 관한 한은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충 얼버무림 없이 충실히 다루었다.

맥도날드 형제님의 글은 “강해가 풍부하다.” 형제님의 글의 목적

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돕는데 있다.

주석은 또한 신학적인 진영에 따라서 보수적인 것과 자유주의적인 것, 개신교적인 것과 로마 카톨릭적인 것, 전천년적인 것과 무천년적인 것 등으로 나뉘는데 본 주석은 보수적이며 개신교적이며 그리고 전천년적이다.

3. 본서를 사용하는 방법

본 주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다음 순서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1) 대강 훑어봄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좋아하거나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여기저기 조금씩 읽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특정 구절에 대한 참조

어떤 구절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 여러분은 해당 구절이나 문맥에 대한 설명을 찾아봄으로써 분명 적절한 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3) 교리에 대한 연구

안식일, 침례, 선택, 삼위일체 등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주제를 다루는 구절들을 찾아보라.

(4) 책별 연구

만일 성인 주일학교나 정규집회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매주 해당 본문을 미리 공부해 뒀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토론을 하면 더 큰 유익이 있다). (물론, 만일 인도자도 본서를 주요 참고서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다른 주석을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5) 성경 전체에 대한 연구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체”를 상고해야 한다. 성경 전체에는 난해한 본문이 흩어져 있으며 본서와 같은 주의 깊고 보수적인 책이 당신의 성경공부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성경공부는 광활한 사막을 여행하듯이 그 출발이 막막하고 아득하지만 조금씩 진보하면서 꿀맛과 같이 달콤한 시간이 된다.

맥도날드 형제님은 30년 전에 제게 “주석을 무시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신바 있다. 새 흠정역본(New King James text)에 맞춰 편집을 하면서 이 성경주석을 매우 주의 깊게 연구해 봄으로써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주석을 즐겨 사용하라!”는 충고를 독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

신약성경 서론

“이 신약성경 책들의 역사적, 영적인 면에서의 가치는 그 책들의 수나 양에 도저히 비견되지 않으며, 그 책들이 삶과 역사에 미친 영향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여기 에덴에서 동이 트기 시작한 시대의 정점이 있다. 구약의 예언의 그리스도는 복음서의 역사의 그리스도요, 서신서의 경험의 그리스도와, 계시록의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신다.”-W. 그레햄 스크로기

1. “신약”의 뜻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깊은 바다, 혹은 그 중 한 책을 연구하는 비교적 작은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기 전에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책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사실을 간략히 개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약속”(testament)과 “언약”(covenant)은 둘 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디아테케*)를 옮긴 것이며, 히브리어로는 한 두 곳에서 어떤 번역이 더 나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독교 성경상의 용어로는 “언약”이란 의미가 확실히 더 낫게 여겨지는데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하나의 협정, 맹약, 혹은 “언약”을 이루기 때문이다.

기독교 성경은 옛(혹은 “오랜”) 약속과 대조해서 “새” 약속(혹은 언약)으로 불리운다.

두 약속 모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으며, 따라서 모든 그리

스도인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자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특히 우리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해, 또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의 그 부분에 보다 종종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어거스틴에 의해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표현된바 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나 있다.”

2. 신약성경 정경

“정경”(canon, 헬-카논)이란, 어떤 사물을 측정 내지 평가하는 “기준”(rule)을 가리킨다. 신약성경의 정경은 영감 받은 책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러면, 이 책들만이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혹은 이 27권의 책 모두가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독교 초기부터 여타 기독교 서신 및 문헌들(이단적인 것을 포함해서)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책들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종종 주장하기를 A. D 3세기 후반에 한 교회회의가 정경목록을 정비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그 책들은 기록된 즉시 “정경적이었다.” 경건하고 분별력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들을 인정했듯이(벧후 3:15-16) 처음부터 영감 받은 성경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에서는 한동안 일부 성경(유다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어떤 책이 마태나 베드로, 요한, 혹은 바울, 혹은 마가나 누가와 같은 사도의 범주에 드는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을 경우

에는 그 책의 정경성에 대해 아무 의문이 없었다.

신약성경 정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회의는 사실 여러 해 동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말하자면 교회회의는 책들의 “영감된 목록”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영감된 책들”의 목록을 정비한 것이었다.

3. 저자 문제

신약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야고보, 베드로, 유다 및 히브리서의 익명의 저자(히브리서 서론 참조)를 감동하사 집필하도록 하셨다. 신약성경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최선의 정확한 이론은 “이중 저작권”이다. 신약성경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신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적인 동시에 전적으로 신적인 것이다. 신적인 요소가 인간적인 요소로 하여금 아무 실수도 범하지 않게 했다. 그 결과 원본상 무오무류한 책이 나오게 되었다.

이 기록된 말씀에 비견되는 유용한 유추는 살아있는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속성이다. 그분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이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희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신적인 속성이 인간적인 속성으로 하여금 여하한 과오나 죄를 범하지 못하게 했다.

4. 연대 문제

약 1천년이 걸쳐 완성된 구약성경(BC 1400-400)과는 달리 신약성경

은 불과 반세기만에(A.D 50-100) 집필되었다.

신약성경의 현재 순서는 모든 시대 교회를 위해 매우 적합한 순서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애로 시작하여 교회를 말하고 그런 다음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끝으로 교회와 세상의 장래를 밝힌다. 그러나 이 책들은 집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다. 이 책들은 필요가 발생하는 대로 집필된 것이다.

초기의 책들은 필립스(Phillips)가 부르는 대로 “어린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이다.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등이 기독교 첫 세기 중반에 기록된 최초의 신약성경들일 것이다.

복음서들은 그 다음에 기록되었는데 마태나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다음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순으로 기록되었다. 끝으로 아마도 1세기 끝 무렵에 계시록이 기록되었다.

5. 분류

신약성경은 내용상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역사서-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바울 서신, 공동 서신

예언서-요한계시록

이 책들에 대한 적절한 통찰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히 구비하게” 될 것이다.

많은 신자들이 하여금 바로 그런 자질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본 주석을 펴내는 우리의 바람이다.

6. 언어

신약성경은 “일상 언어”(“코이네”, 혹은 “일상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영어만큼이나 잘 알려지고 널리 사용된 1세기 당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제2의 언어였다.

히브리어의 정감 있고 다채로운 표현법이 구약성경의 예언과 시 및 일반 해설에 꼭 알맞듯이 헬라어는 신약성경을 위해 섭리적으로 예비된 놀라운 표현 도구였다.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제의 정복 활동을 통해 널리 보급되었으며 그의 군대는 대중을 위해 헬라어를 단순화 내지 대중화시켰다.

헬라어는 동사의 시제, 격, 어휘 및 기타 요소들의 정밀성으로 인해 서신서(특히 로마서와 같은 책)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교리적인 진리들을 표현하는데 적격이었다.

“코이네” 헬라어는 지식층을 위한 문학적인 언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속 언어”(street language)나 조악(粗惡)한 헬라어도 아니다. 신약성경의 일부분(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은 거의 문학적인 수준에 이른다. 또한 누가는 때때로 고전적인 기법을 사용하며 바울도 때로는(고전 13,15장 등)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법을 동원한다.

7. 번역

영어는 많은(아마도 너무 많은) 역본을 지니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들은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인 유형으로 분류된다.

(1) 문자적인 번역

J. N. 다비역, 영어 개정역(English Revised Version, 1881)과 그 미국판, 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 등의 역본은 지나치게 문자적이다. 이것은 그 역본들로 하여금 연구를 위해서는 유용하지만 예배나 공중 성경공부나 암기를 위해서는 취약하다. 흠정역(KJV)은 위의 역본들에 비해 그 위엄과 미려함이 뛰어난데 그런 까닭에 많은 그리스도인 회중들은 흠정역을 선호해 왔다.

(2) 완전 직역(Complete Equivalence)

매우 문자적이며, 영어어법이 허락할 경우 히브리어나 헬라어 표현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동시에, 좋은 표현법이나 속어가 필요할 때는 보다 자유로운 번역을 시도한 역본들이 있는데 흠정역(KJV), 개정 표준역(RSV), 새 미국 표준 성경(NASB), 새 흠정역(NKJV) 등이 거기에 속한다. 불행히도 개정 표준역(RSV)은 신약은 대체로 믿을만 하나 구약의 경우 많은 메시아 예언들을 가볍게 다루는 과오를 범했다. 오늘날 심지어 전에는 건전했던 몇몇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위험한 경향이 엿보인다. 본 “신자 성경 주석”은 새 흠정역(NKJV)에 맞춰 편집을 했는데, 새 흠정역(NKJV)은 고어체 대명사(*thee*와 *thou*)를 사용하지 않은 채 미려한(그러나 고풍적인) 흠정역(KJV)과 현대 영어 사이에서 가장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대부분 현대어 성경에는 빠져있는 많은 동사와 단어들을 내포하고 있다(본 주석의 해설란에서 그 실례들을 볼 수 있다).

(3) 탄력적인 직역(Dynamic Equivalence)

이 유형의 번역은 완전 직역보다는 자유로운 번역으로써 때로는

독자가 그것을 인식하는 한 유효한 기술인 의역(意譯, paraphrase)을 사용한다. 모팻역, 새 영어 성경(NEB), 새 국제역 성경(NIV), 예루살렘 성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역본들은 요한과 바울이 만일 오늘날, 그것도 영어로 집필한다면 사용했을 만한 구조로 전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시도했다. 이러한 방법론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취해질 경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4) 의역(Paraphrase)

의역이란 본문을 개념 단위로(thought by thought) 의미를 전달하는 번역 방법을 말하는데 이 번역은 종종 자료를 “추가”하는데 많은 자유를 누린다. 이것은 어휘 선택에 있어 원문을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항상 “지나치게 장황한 번역”이 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현대어 성경(Living Bible)은 복음적이긴 하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석상의 문제점들을 많이 내포한다.

J.B. 필립스의 의역본(그는 그것을 역본으로 부른다)은 문자적인 관점에서 매우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그는 거기서 베드로와 바울이 “그들의” 어휘로 의미했다고 믿는 것을 “그의” 어휘로 말하고 있다.

위의 네 유형 중 적어도 세 유형의 역본을 소유하는 것이 비교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에는 완전 직역본이 본 주석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은 세세한 성경연구를 위해 가장 안전한 역본이라 믿어진다.

목회서신서

목회서신서 서론

“목회서신은 기독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신약정경에 들어갈 타당성을 충분히 입증했다. 이 서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건전한 충고와 신학적인 진술이 섞여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서신들은 개인이나 단체 모두에게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도날드 굳쓰리

1. “목회서신”이라는 용어의 의미

1700년대부터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묘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오해의 여지도 있고 유익할 수도 있다.

만일 이 표현이 제시하고 있는 바가 이 서신들은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라면 그 표현은 나름대로 목적을 훌륭히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표현이 디모데와 디도는 각기 에베소와 그레테의 전임 성직자(오늘날의 목사)였다는 사상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는 오해한 것이다.

흠정역의 초판본들은 이 서신들의 끝 부분에 영감으로 되지 않은 첨언(添言)을 삽입해 놓았는데 이 때문에 이 역사적인 오류에 신빙성을 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예를 들어보면 디모데후서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이 영감으로 되지 않은 글을 추가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 최초의 안수 받은 감독 디모데우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은 로마에서 기록되었으며 그 당시 바울은 네로에게 두 번째로 불려 갔다.”

디도서 말미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다.

“이 서신은 그레데 교회 최초의 안수 받은 감독인 디도에게 마게 도냐의 니고볼리에서 써서 보낸 것이다.”

알버트 반즈는 자신이 성직자였지만 그의 다음과 같은 말을 가지고 그를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디도가 그레데 교회의 최초 감독이었다거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감독이란 호칭을 붙여도 무방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증거가 없다. 사실 그가 최초의 감독이 아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 바울이 그와 함께 있었고 디도는 바울이 이미 시작해 놓은 것을 마치기 위해 ‘남겨졌기’ 때문이다.”

“감독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의 의미 측면에서 볼 때 디도가 ‘감독’이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으며 심지어 그가 전임 목사였다는 증거조차도 없다.”

“이러한(홍정역 초판본-역주) 첨언은 권위라고는 전혀 없으며 온갖 실수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야 말로 성경에서 빼버릴 때가 되었다. 그것은 영감으로 된 성경의 일부가 절대 아니고, ‘주해 및 주석’의 성격에 지나지 않으며, 바로 오류를 영속시키는 일이다. 디모데와 디도가 각기 에베소와 그레데의 ‘최고위 성직자로서의 감독’이었다는 주장은 그 서신서 자체보다도 아무 쓸모없는 이 첨언에 지나

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서신들에는 그 주장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만일 이 첨언을 제거한다면 신약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¹⁾

다행스럽게도 이 첨언들은 마침내 현대역 신약성경에서는 없어졌지만, 그로 인해 생겨났던 오류는 끈질기게 남아 있다.

디모데와 디도는 믿는 자들을 지도하고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단기 선교 차원에서 교회들에게 파송한 사람들이다.

사실상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세 서신들의 기록 시기와 저자가 모두 동일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저자 문제와 권위 문제를 한 단원씩 따로 다루도록 하겠다.

2. 세 서신의 저자

슈미트(Schmidt)가 바울이 이 서신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부인한 1804년이 되기까지는 온 교회와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이 서신들을 그 위대한 사도가 직접 쓴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때 이후부터 이 서신들을 “경건하기는” 하지만 “위조된” 것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점점 더 일반화되었다(마치 사기가 참된 경건과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대부분의 개방적인 자들과 이 문제만 아니면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서신들을 순수한 바울 서신으로, 아니면 최소한 거의 대부분은 그렇다고 받아들이기를 어

1) 알버트 반즈, 신약주석:데살로니가서, 디모테서, 디도서, 빌레몬서, 289쪽.

려워하고 있다. 이 서신들에는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와 “다른 중대한 교리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들”(이단에 대한 경계와 또 말세에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계도 포함된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후서를 제외한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이 서신의 권위 문제를 자세히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외부적인 증거

목회서신의 외부적인 증거는 매우 확실하다. 사실 외부적인 증거가 버리거나 받아들이는 유일한 평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세 서신은 의심할 여지없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레니우스는 이 서신들을 인용해서 최초로 글을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터툴리안과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도 이 서신을 바울이 썼다고 했으며 무라토리안 정경도 그러했다. 이 서신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초대 교부들 가운데는 폴리갑과 로마의 클레멘트가 있다.

마르시온은 자신의 “정경”에 이 서신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터툴리안은 전한다. 이 점은 세 서신의 저자 문제보다는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르시온은 바울이 목회서신에서 그 당시 초기 단계이던 영지주의(골로새서 서문을 보라)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한 것 때문에 격분한 일종의 이단 지도자였다. 이 반유대적인 이단이 특별히 싫어했을 구절들은 디모데전서 1장 8절, 4장 3절, 6장 20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이었을 것이다.

4. 내부적인 증거

바울이 목회서신을 썼음을 부인하는 거의 모든 공격은 서신의 내부와 반대된다고 추정하는 증거에 근거한 것이다.

공격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증거는 세 가지 갈래로 역사적, 교회 조직적, 언어적 측면이다. 이 세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고 나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역사적 문제

목회서신에 나오는 몇 가지 사건과 일부 사람들은 사도행전과 맞아 들어가지 않으며 다른 서신들로부터 우리가 바울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는 맞지 않는다. 바울이 병든 드로비모를 밀레도에 두고 떠난 것이나 드로아에 자기 외투와 책을 두고 간 것은 알려진 그의 여행과는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은 반박하기 쉬운 주장이다. 물론 이 사건들은 사도행전과 맞지 않는다. 그러나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 빌립보서 1장 25절은 바울이 석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기독교 구전에 따르면 바울은 다시 갇혀서 참수되기 전에 석방이 되어서 몇 년 동안 봉사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목회서신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건들과 친구와 적들은 두 차례의 투옥 사이에 행한 선교사역 기간에서 나온 것이다.

(2) 교회 조직상의 문제

바울이 목회서신을 썼다고 보기에는 교회 조직이 너무 늦게 생겼다고들 한다—사실 2세기에 생겼기 때문이다. 감독과 장로, 집사를 목회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이 2세기와 그 이후 세기 동안 존속했던 “군주형(君主型) 감독”이었다는 증거가

없다. 사실 초기 서신의 하나인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한 교회에 여러 명의 감독들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한 교회에 감독이 하나라거나 더욱이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교회를 다스리는 일인 감독제도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장로들과 감독들이라는 단어가 디모데서와 디도서에서는 서로 번갈아 쓰고 있는 반면, 2세기에 이그나티우스의 끈덕진 장려를 힘입어 한 사람의 “감독”이 선출되어서 “장로”(presbyters)라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사도 시대이며 2세기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3) 언어적 문제

가장 맹렬한 공격은 이 세 서신이 우리가 바울이 썼다고 받아들이는 다른 10권의 편지와는 문체와 어휘 면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와 표현의 일부가 목회서신에는 나오지 않으며 여기에 사용된 많은 단어들이 그가 쓴 다른 서신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36%가 처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함). 바울이 이 서신들을 결코 “썼을 리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통계학적인 방법론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세익스피어가 쓴 시에 대해서도 그의 희곡에 나오지 않는 어휘들이 일부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저자 문제에 시비를 걸었는데 이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이론들이 구미에 맞지 않는 성경교리에 대한 편견에 거의 전적으로 근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회서신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훗날의 배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바울이 목회서신의 저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바로 그 학자들 중 일부의 말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우선 이 서신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며, 감옥을 나오고 난 후에 더욱 더 넓은 지역을 여행했고 새 친구를 많이 사귄 노인의 서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디모데후서는 그가 두 번째로 투옥되었을 때 쓴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읽고 여행하며 처음 보는 사람들을 사귀면서 어휘가 느는 법이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서신들이 주제로 다루는 문제들(교회 직무를 맡은 사람들, 윤리, 배도)이 자동적으로 새로운 단어를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 서신들은 또 통계적인 방법을 공정하게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짧다. 아마도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오직 목회서신에만 나오는 신약성경 어휘의 80%는 헬라어 구약성경(70인역)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며 이는 굤쓰리(Donald Guthrie)가 서문에서 말한 바와 같다. 바울은 헬라어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가 히브리 원어로 된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헬라어로 된 구약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간단히 말해서 바울이 사용했다고들 주장하는 단어들은 최소한 바울이 썼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인식 어휘”의 일부였다는 것이다. 일상용어로 헬라어를 사용했던 교부들은 바울이 목회서신의 저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이라고 하는 데는 쉽게 동의하지 못한 교부들이 일부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저자의 문체에 민감했음을 보여준다).

바울의 저작을 부인하는 모든 주장들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 보고, 특별히 정통 신앙을 지킨 예전의 사람들이 이 서신들을 바울이 친필로 기록했다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이

목회서신의 내용이 매우 윤리적이라는 점은 “경건한 것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간에 위조의 가능성은 배제한다. 이 서신들은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며(딤후 3:16-17),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5. 목회서신의 배경과 주제

솔직히 우리는 목회서신이 다루고 있는 시기의 바울의 생애에 대한 배경은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이 서신들에 나와 있는 그의 생애에 대한 언급들을 모아 보는 것일 뿐이며 그렇게 해도 간결하기 그지없다.

목회서신에는 자주 반복되는 단어와 주제들이 몇 가지 있다. 이들은 바울의 사역이 마칠 때가 가까워 오면서 점점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주제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준다.

“믿음”은 특징을 이루는 단어 중의 하나다. 배도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미 전해진 기독교의 중대 교리를 강조하려 애썼다. 그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취했던 혹은 취하게 될 여러 가지 태도를 기록했다.

- (1) 어떤 이들이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딤펴전 1:19).
- (2)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딤펴전 4:1).
- (3) 어떤 이들이 믿음을 부인할 것이다(딤펴전 5:8).
- (4) 어떤 이들이 처음 믿음을 저버릴 것이다(딤펴전 5:12).
- (5)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벗어날 것이다(딤펴전 6:10; 우리말 성경에는 “떠날 것이다”로 나눔-역주).

(6) 어떤 이들이 믿음에 관해서는 과녁을 맞추지 못할 것이다(딤후 6:21;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로 나옴-역주).

이와 명백하게 관련된 것으로 “바른 교훈”(영어는 “진전한”[sound]으로 되어 있음-역주)이라는 표현이 있다. 여기서 “바른”이라는 것은 옳다거나 정통한 것 이상의 의미다. 그것은 “건강하다” 혹은 “건강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 단어로부터 “위생”이란 단어가 만들어졌다. 물론 여기서는 영적인 위생을 말한다. 다음을 주목해서 보라.

바른 교훈(딤후 1:10; 딤후 4:3; 딤후 1:9, 2:1).

바른 말 (딤후 6:3).

바른 말(딤후 1:13).

바른 믿음(딤후 1:13, 2:2; 우리말 성경은 “온전한”으로 나옴-역주).

“양심”이라는 단어가 여섯 차례 언급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디모데전서 1장 5,19절, 3장 9절, 4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디도서 1장 15절

어떤 사람의 교리가 건전하다는 척도로써 “경건”을 강조하고 있다-디모데전서 2장 2,10절, 3장 16절, 4장 7-8절, 5장 4절, 6장 3,5,6,11절; 디모데후서 3장 5절(외형적인 경건의 모습에 불과함), 3장 12절; 디도서 1장 1절, 2장 12절.

“근신함”은 사도가 자신의 젊은 조력자들이 길러야 된다고 생각한 자질이였다-디모데전서 2장 9,15절, 5장 6,8절; 디모데후서 3장 2,11절, 디도서 1장 8절; 2장 2,4,6,12절.

우리는 또 사도가 많은 “선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선한 양심(딤펴전 1:5,19).

율법은 선한 것이다(딤펴전 1:8).

선한 싸움(딤펴전 1:18).

기도는 선한 것이다(딤펴전 2:3).

선행(딤펴전 2:10, 3:1, 5:10,25, 6:18; 딤펴후 2:21, 3:17; 딤펴 1:16; 2:7,14, 3:1,8,14).

선한 행실(딤펴전 3:2).

선한 증거(딤펴전 3:7).

선한 지위(딤펴전 3:13; 우리말 성경은 “아름다운 지위”로 되어 있음-역주).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딤펴전 4:4).

선한 일꾼(딤펴전 4:6).

선한 교훈(딤펴전 4:6).

효는 선하다(딤펴전 5:4).

믿음의 선한 싸움(딤펴전 6:12; 딤펴후 4:7).

선한 고백(딤펴전 6:13; 우리말 성경에는 “선한 증거”로 나옴-역주).

선한 터(딤펴전 6:16; 우리말 성경에는 “좋은 터”로 나옴-역주).

선한 것(딤펴전 1:14; 우리말 성경에는 “아름다운 것”으로 나옴-역주; 딤펴 2:3; 3:8).

선한 군사(딤펴후 2:3).

선한 사람들(딤펴후 3:3; 딤펴 1:8, 2:5).

선한 충성(딤펴 2:10).

마지막으로 흥미 있는 단어 공부는 본 서신들에서 발견하게 되는

의학용어들이다. 이것은 의사 누가가 이 당시 바울의 절친한 동료였다는 사실을 반영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바른”이라는 단어가 건강하게 한다는 뜻이 있으며 교리, 말, 믿음을 묘사하는데 쓰이고 있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 말하고 있다. “화인 맞았다”는 것은 뜨거운 도구로 뜸을 뜨는 것을 의미한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영어 성경에는 “언쟁에 사로잡혀 있는”[obsessed with disputes]으로 나옴-역주)이라는 표현은 그 행위가 병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마음의 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딤후 6:4).

디모데후서 2장 17절의 “암”(우리말 성경에는 “독한 창질”로 나옴-역주)은 개역성경(RV)에서는 “탈저”(脫疽, gangrene)로 번역되었다(탈저는 헬라어 단어에서 옮긴 것이다).

“귀가 가려움”(딤후 4:3)은 바울이 말세의 병적인 현상을 진단하면서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전서를 펴서 그 내용을 구절별로 공부하도록 하자.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서문

“이 서신은 디모데가 사도의 대표로 일하는데 있어서 그 권위를 일종의 문서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서신의 많은 부분이 디모데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활동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D. 에드먼드 히버트

1. 정경에서 차지하는 고유한 위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친히 기록한 목회서신을 교회로부터 빼앗으려는 사람들은 그 신앙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바울에게 맞지 않는 어휘”에 있다기보다는 이 단어들을 흔히 결합해서 쓰는 바울 나름의 서술 방식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서신들은 그 사람들 중 일부가 행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것들을 미리 정죄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의 진리와 아름다움과 신령한 힘은 누구든지 미리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선입관을 버리고 본문을 묵상한다면 밝히 보게 될 것이다. 사실 바울이 저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너무나 강하게 느낀 나머지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진본 바울 서신의 파편들이 이른바 위조자의 탁월한 작품 속에 섞여 들어갔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세기의 프랑스 회의론자

인 어네스트 레이넨(Ernest Renan)은 이렇게 쓰고 있다.

“이 편지들 중 일부 단락은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는 위조자가 손에 바울의 진본 원고를 들고 있지는 않았나, 그리고 그 원고를 자기가 위작(偽作)한 글 속에 포함시킨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¹⁾

이에 비해 아주 옛적부터 내려오는 거의 보편적인 교회의 가르침, 곧 이 편지들은 (전부가 다) “바울이 친히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간단한가!

교회의 질서, 여자들의 섬김, 교회 직임에 대한 매우 중요한 계시들이 디모데전서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개요가 비할 바 없이 뛰어난 본, 곧 바울 자신에 의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2. 저자

디모데전서의 저자 문제에 대한 논의는 목회서신서 서론을 보라.

3. 기록 연대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은 디모데전서가 목회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으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디도서가,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쓰여졌다는 데 대해 동의하고 있다. 만일 바울이 주후 61년에 가택연금에서 풀려났다면 그의 여행을 감안할 때 기록 연대는 주후 64년에서 66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서신은 아마도 그리스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1) 죠지 쎄면 저, *L'Eglise chrétienne*, 95쪽에서 인용.

4. 기록 배경과 주제

디모데전서의 주제는 3장 14-15절에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행동 기준이 있으며 그는 디모데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매우 단순하게 적고 있다.

버릇없는 아이에게, “얌전하게 굴어라!” 하고 말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만일 그 아이가 얌전하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말이다. 아이는 먼저 얌전한 행동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들어야만 한다. 디모데전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해서 바로 이런 일을 해주고 있다.

여러 장의 요약은 잠깐 살펴보면 위에서 간략히 밝힌 주제가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2장은 우리에게 공중 기도와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들의 역할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3장은 모임에서 책임을 맡고 인도자의 자리에 있게 될 사람들의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5장은 과부들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5. 개요

1. 인사(1:1-2)
2.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명령(1:3-20)
 - (1) 거짓 교사들을 잠잠케 하라는 명령(1:3-11)
 - (2) 하나님의 참되신 은혜에 대한 감사(1:12-17)
 - (3) 디모데에게 재차 명함(1:18-20)
3.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2:1-3:16)
 - (1) 기도에 관해(2:1-7)
 - (2) 남자와 여자에 대해(2:8-15)
 - (3) 장로와 집사에 대해(3:1-13)
 - (4) 교회에서의 행실에 대해(3:14-16)
4. 교회 안에서의 배도(4:1-16)
 - (1) 임박한 배도에 대한 경계(4:1-5)
 - (2) 임박한 배도에 대비한 적극적인 교훈(4:6-16)
5. 여러 부류의 신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5:1-6:2)
 - (1) 남녀노소(5:1-2)
 - (2) 과부(5:3-16)
 - (3) 장로들(5:17-25)
 - (4) 종과 상전(6:1-2)
6. 거짓 교사들과 돈을 사랑함(6:3-10)
7. 끝으로 디모데에게 내리는 명령(6:11-21)

1. 인 사(1:1-2)

1:1 바울은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였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은 사실을 간단히 말해 주고 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된” 것이었다. 이것은 바울이 생계를 꾸려 나가려고 스스로 이 일을 택한 것이 아니며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도록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한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우리 구주”라 부르고 있다. 신약에서는 대개 주 예수님을 가리켜 구주라고 부른다. 그러나 여기에 모순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사람의 구주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 가셔서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의롭게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의미에서 구주이시다.

여기서 주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이나라”는 말씀을 연상시켜 준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기대는 오직 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달려 있다. 실제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우리들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기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며,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과거의 죄 문제와 관련하여 화평을 주셨고,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과 관련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미래의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1:2 이 편지에서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믿음의 영역 안에서) 된 참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어떤 이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전도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이 구절을 분별하고 있다. 아마 사도행전 14장 6-20절에 기록된 대로 루스드라를 최초로 방문했을 때의 일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 바울이 그를 만났을 때에 이미 그는 제자가 되어 있겠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행 16:1-2). 이런 경우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이라는 표현은 디모데가 바울과 다름없는 영적, 도덕적 품행을 보여주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는 바울과 동일한 특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참으로 사도 바울의 후계자였던 것이다. 스톡(Stock)은 “바울 같은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 젊은 성도들이야말로 행복한 자들이며, 디모데 같은 참 자녀들이 전통(箭筒)에 가득한 지도자 역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했다.

신약성경의 서신서에서는 대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요한이

서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인사말이 늘어나 있다. 후기에 쓰여진 이 서신들 모두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개인에게 보낸 것이므로 “긍휼”이란 표현이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은혜”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봉사에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대책을 가리킨다. 여기서 “긍휼”이란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패하기 쉬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적인 보호와 염려를 말해 준다. “평강”이란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 평안을 의미한다.

이상 세 가지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얻게 된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주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중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신약성경에는 “구주”라는 낱말이 24회 나오는 것에 비해 “주님”이란 말은 522회나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이 중요한 통계를 각자의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2. 디모데를 위한 바울의 명령 (1:3-20)

1. 거짓 교사들을 잠잠케 하라는 명령(1:3-11)

1:3 아마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의 옥중에 갇혔다가 풀려 나온 후에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게도냐에 갔을 때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신자들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도록 하려고 그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당부했던 것 같다.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남쪽으로 가서 고린도로 여행한 것 같으며 그곳에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으리라고 생각된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의 말은 사실상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처럼 이제도 그 명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이 말씀으로부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임명받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에서는 전혀 그러한 가르침이 담겨 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모순이 되는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교리에 사사로운 추측을 덧붙이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들을 책망하려고 일시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잘못된 교리란 크게 두 가지로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였다. 디모데가 혹 이 문제로부터

회피하려는 유혹을 받을 것을 염려한 바울은 그에게 직분에 충성하도록 명하고 있는 것이다.

1:4 디모테는 또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하지 말도록 이 사람들을 깨우치라”는 권면도 받았다.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신화나 족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다. 유대교 랍비들의 일각에서 생겨난 전설들과 이것을 연결하는 이들이 일부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의 신화와 세대들을 언급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거짓 이단들의 특징도 이와 같다는 것을 보면 흥미롭다. 거짓 종교의 창시자들에 대한 공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으며, 몰몬교에서는 족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쓸모없는 주제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의문만 불러일으키는 것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덕을(우리말 성경에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나옴-역주) 세우지 못한다. 구속의 전체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이렇게 하심은 의심과 변론을 불러일으키려 하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려 하심이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신화와 족보 같은 쓸모없는 주제에 마음을 쏟지 말고 기독교 신앙의 대진리들에 착념해야만 했으며 이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 의심이 아닌 믿음이 생기게 된다고 한 것이다.

1:5 이 구절에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계명(우리말 성경에는 “경계”로 나옴-역주)이 모세의 율법이나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4절의 명령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 흠정역에서는 명확하게 옮겨져 있다. “이제 그 계명의 목적은 사랑

이다.”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내린 명령의 목표 내지 목적은 단지 정통 신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질 때면 언제나 이런 것들이 따르게 된다.

사랑은 물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반드시 청결한 마음에서 솟아난다. 사람의 내면생활이 더럽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거기서 흘러나오기란 어렵다. 이 사랑은 또 선한 양심, 곧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전혀 없는 양심의 부산물이라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 거짓이 없는(위선적이 아닌) 믿음, 곧 탈을 쓰지 않은 믿음의 결과여야만 한다.

거짓된 가르침은 바울이 위에서 열거한 것들을 결코 생기게 할 수 없으며 이런 것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결과가 절대 아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며 그렇게 해서 사랑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5절은 모든 참된 가르침의 시금석을 제시하고 있으니 곧 그 가르침이 이러한 결과를 낳느냐 하는 것이다.

1:6 이런 것들, 곧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 “옆으로 빠졌다”(우리말 성경에는 “빠져”로 나눔-역주)는 표현은 그 사람들이 “제대로 겨냥을 못했다” 혹은 “과녁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제대로 겨

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구절에 담긴 뜻임이 틀림없다.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얻으려고 애를 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것들을 목표로 삼을 시도조차 안 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헛된 말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들의 설교는 목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 것이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어떤 사람들”이란 말을 자주 쓰고 있다. 그가 디모데전서를 쓸 무렵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서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디모데후서에 이르러서는 “어떤 사람들”이란 말이 더 이상 자주 띄지 않는다. 힘의 균형에 변화가 온 것이다.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보편화된 것이다. 소수가 다수로 된 것이 분명했다.

1:7 앞 구절에서 언급한 거짓 교사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으며 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려 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는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남자는 할례를 받거나 어떤 면으로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율법은 믿는 자의 생활규칙이라고 가르쳤다.

이 거짓 가르침은 교회를 통해 볼 때 언제나 있었으며 오늘날의 기독교를 타락하게 만드는데 대성공을 거둔 병폐였다. 현대판 유대교 신자들은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 만 여기에도 세례도 받아야 되고 교회에 나가고, 율법도 지키고, 회개도 해야 되고, 십일조도 하고, 또 그밖에 다른 형태의 “선행”을 해야 된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현대판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으며 율법의 행위로가 아

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선행은 구원의 결과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사람은 선행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믿는 자의 생활규칙이 그리스도지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사람이 율법 아래 있으면 반드시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율법은 그 거룩한 법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 모두에게 사형선고를 내린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이는 그분이 친히 저주를 받은바 되셨기 때문이다.

사도는 이 자칭 율법의 선생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주어진 목적도, 믿는 자와 율법의 관계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1:8 바울은 율법 그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기록하며 계명도 기록하며 의로 우며 선하도록”(롬 7:12). 그러나 율법은 법 있게 써야 한다. 율법은 구원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행 13:39; 롬 3:20; 갈 2:16,21, 3:11). 율법을 법 있게 쓴다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나 가르칠 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율법은 구원을 받는 수단이나 생활규범으로 제시하면 안 된다.

가이 킹(Guy King)은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세 가지 교훈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1)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된다.

(2) 우리는 하지 않았다.

(3) 우리는 할 수 없다.

율법이 죄인의 삶 가운데서 제 구실을 하게 될 때에 죄인은 하나님께 “주여, 주님의 은혜를 좇아 나를 구원해 주소서”¹⁾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율법이 구원을 얻는데 있어서나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필수요건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일관성이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어기면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면 율법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 형벌이 없는 율법은 좋은 충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1:9 법은 의로운(우리말 성경에는 “옳은”으로 나옴-역주)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의로우면 그에게는 법이 필요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사는 것은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갈보리에서 죽으신 구주께 대한 사랑 때문이다.

사도는 계속해서 율법은 어떤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인지 그 사람들의 유형을 묘사하고 있다. 많은 성경주석가들은 이 묘사와 십계명 자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처음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경건)이며, 반면 나머지 여섯 가지는 자기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의[義])이다. 다음 단어들은 십계명의 앞부분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1) (1:8) 가이 킹(Guy King)의 ‘인도받는 인도자’(A Leader Led), 25쪽.

며...” “살인하는 자”라는 표현은 여섯 번째 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살인하는 자들은 고의적으로 살해를 저지르는 사람을 의미하며 실수로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다.

1:10 “음행하는 자며 납색하는 자”라는 단어들은 이성간과 동성간에 저지르는 부도덕한 성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일곱 번째 계명인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와 연관되어 있다. 사람을 “탈취하는 자”라는 표현은 명백하게 여덟 번째 계명인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라”와 관련된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는 아홉 번째 계명인 “네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관련된 것이다.

마지막에 나오는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라는 말은 십계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계명들을 재빨리 훑어보고 난 뒤 요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1 이 구절이 앞에 나온 내용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결정하기 어렵다. 아마도 10절에서 언급한 “바른 교훈”이 “...복음을 좇은 것”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아니면 바울이 3-10절까지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복음 말씀과 일치된다는 뜻일 수도 있다.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영광스러운”을 자역[字譯]했음)을 놀랍게 드러내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복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공정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또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말해 준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거룩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켰다. 그러므로 이제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이다. 이 복음의 중심은 영광을 얻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그분은 구주이실 뿐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해 준다.

2. 하나님의 참되신 은혜에 대한 감사(1:12-17)

앞 단락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우려고 애를 쓴 거짓 교사들을 묘사했다. 이제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돌이켜 보고 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사도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죄인의 괴수였다. 12-17절은 바울의 관점에서 율법을 범 있게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로 보여주고 있다. 율법은 그에게 있어 구원의 길이 아니었고 죄를 깨닫게 하는 한 가지 수단이었다.

1:12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자기를 능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쏟아 놓고 있다. 그 감사는 다소 사람 사울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그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사도는 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혀 이해할 길이 없었다. 율법은 이런 은혜를 보여주려 해도 결코 보여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율법은 그 조항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그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으로 정죄했을 것이다.

1:13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십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이 구절을 볼 때 명백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말한다. 훼방자로서 그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지도자인 예수님에 대해 비방하는 말을 했다. 핍박자로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애를 썼다. 그는 이 새로운 종파가 유대교에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악한 계획을 실천하면서 바울은 포행자로서 믿는 자들에게 거만하고 난폭하며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는 것을 즐겨 했다. 영어(우리말도 마찬가지로 지임-역주) 단어를 볼 때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훼방자, 핍박자, 포행자 이 세 단어는 갈수록 그 악함의 정도가 늘어가고 있다. 첫 번째 죄는 입술의 죄였을 뿐이다. 두 번째 죄는 다른 사람들이 믿는 종교로 인해 그들에게 가한 핍박을 묘사하고 있다. 세 번째 죄는 잔인함과 폭력 행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바울은 긍휼을 입었다. 그는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믿지 않을 때 모르고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 양친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구약의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열심과 정력을 다 바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 애를 썼다.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바울의 예로 볼 때 열심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그의 열심은 그 오해를 더욱 더 심각하게 만들뿐이다. 열심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가 끼치는 피해도 더 커지는 법이다.

1:14 바울은 마땅히 받을 형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이것은 공홀이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비를 넘치도록 받았다(이것은 은혜이다). 바울의 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던 것이다(롬 5:20).

바울에게 베풀어진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라는 말을 볼 때 알 수 있다. 바울에게 내린 은혜에 뒤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왔다. 물론 이것은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믿음과 사랑도 그 기원이 같은 주님 안에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주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전에 미워하던 복되신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 은혜에 응답했다고 이해하면 이 구절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다.

1:15 이것은 목회서신에 나오는 다섯 번의 “미쁜 말” 중 첫 번째이다. 이 말이 미쁜 것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또 오해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속에 의심을 품고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해 주며, 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이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주님의 신성을 강조해 준다.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신 분은 먼저는 하나님이시고(그리스도) 또 사람이시다(예수). 구주가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에 담겨 있다. 베들레헴에 오신 그 때가 그분이 존재하기 시작

한 때가 아니었다.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셨지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임하신 것이다.

달력은 그분이 임하셨다는 것을 증거한다. 즉 우리는 현 시대를 가리켜 주후(AD) 1900년(우리 주님이 오신지 1900년 된 해)라고 한다. 그분은 왜 오셨는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선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다(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 주님의 오신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을 구원하시려 함도 아니다(이렇게 한 사람도 전혀 없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들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게 된다. 거짓 종교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하면 된다”고 하던지, “어떤 사람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복음은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다”, “잃어버린 바 되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이다”라고 말한다. 바울이 본 장 초반부에서 묘사한 율법의 교훈은 육신이 하는 일을 보여준다. 그것은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소리, 즉 자기가 자기 구원에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소리를 정확하게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복음은 구원의 역사에 대한 모든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돌려야 되며, 사람은 죄를 짓는 일 밖에는 할 줄 모르며, 구원에 관한 한 주 예수님이 전적으로 다 행하신다고 말해 준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의 괴수”, 혹은 어떤 이가 옳긴 대로 “죄인들 중에 첫째 자리에 드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다. 죄인 중에 괴수는 아니더라도 그가 선두에 속해 있음이 분명하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호칭이 우상 숭배나 성적인 죄를 심하게 지은 사람이 아니라 매우 종교적인

사람, 곧 정통 유대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에게 붙여졌다는 것을 주목하라! 그의 죄는 교리적인 죄였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다.

또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라고 한 말을 주목하라. “...였다”가 아니라 “...니라”이다. 가장 경건한 성도들이 흔히 보면 자기의 죄악됨을 가장 통렬히 느낀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주후 57년경에 기록됨)에서 바울은 자기를 일컬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고 있다.

그 다음 에베소서 3장 8절(주후 60년경에 기록됨)에서 그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불렀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기록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을 죄인의 괴수로 부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점점 배워 가는 그림을 보게 된다.

J. N. 다비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는 표현을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니라”고 번역했다. 여기에 담긴 교훈은 바울이 여태껏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첫 번째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이 장래에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독특한 경우라는 것이다. 그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고전 15:8)라고 한 것은 자기 민족이 거듭 나기에 앞서서 자신이 거듭났다는 뜻이다. 자신이 하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하지 않은 채 구원받은 것과, 아마도 유대의 남은 자들도 장차 올 대환난 기간 동안 그와 똑같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16절의 “먼저”와 “본”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

인다.

1:16 이 구절은 바울이 공황을 입은 까닭을 설명해 준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자기가 죄인의 괴수였던 것처럼 그는 이제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를 보여주는 우두머리가 되리라고 한 것이다. 그는 “전시 번호 1번”이 되게 되는데, 이는 윌리엄 켈리가 말한 것처럼 “가장 날뛰던 대적 위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다양하고도 끈질긴 반역을 대하여 지칠 줄 모르는 인내의 살아 있는 본”이 되게 된 것이다.²⁾

바울의 경우는 본이 되게 되었다. 인쇄소에서 하는 일을 보면 본은 맨 처음 시험 삼아 뽑아 보는 것이다. 이것은 표본, 또는 샘플을 가리키는 것이다. 바울의 구원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오실 때(롬 11:26)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 본이 되게 하신 것이다.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구절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 서 이미 죄인의 괴수를 구원하셨으니 자신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면 은혜와 공황을 얻는다는 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들도 영생을 찾을 수 있다.

1:17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자기를 놀랍게 다루셨는지를 생각할 때 그만 이 아름다운 찬송을 터뜨리고 만다. 이 찬미를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인지 알기는 어렵다. 만세의 왕이란 말은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다.

2) (1:16) 윌리엄 켈리(William Kelly)의 디모데전후서 주석(*An Exposition of the Two Epistles to Timothy*), 22쪽.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이다(계 19:16).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이”라는 말은 성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눈에 보이셨기 때문이다. 삼위 하나님 중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은 세 분이 절대적으로 동등하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다.

만세의 왕을 가리켜 먼저 “불멸”하신다고(우리말 성경에는 “씩지 않으시고”로 나옴-역주) 했다. 이것은 “씩지 않는” 혹은 “결코 죽지 않는”이라는 뜻이다. 또 하나님은 본질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으며 주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주셨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없다. 그 다음으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다(로마서 16장 27절에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약 1:5).

3. 디모데에게 재차 명함(1:18-20)

여기에 언급된 경계는 분명 바울이 3절과 5절에서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라고 한 명령이다. 자기 아들 디모데로 하여금이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사도는 디모데가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되새겨 주고 있다.

1:18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 디모데가 속한 교회의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서 “디모데는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리라”고 알렸다는 뜻으로 보인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어떤 일련의 특정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교회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했다. 젊은 디모데는 예언의 말에 의해 따로 택함을 받았으며 그리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만일 그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담하거나 낙심에 빠지려는 유혹을 받는다면 이 예언들을 기억함으로써 격려를 받고 선한 싸움을 하려는 자극을 받아야 했다.

1:19 이 싸움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저 교리 면에서 정확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교리는 언제나 참으로 정통이지만 선한 양심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밀턴 스미스(Hamilton Smith)는 이렇게 썼다.

“은사가 있고 대중 앞에 자주 나서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약속과 끊임없는 설교, 사람들 앞에서의 공적인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은밀한 경건의 삶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로 설교할지라도 아무 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장차 올 그 날에 빛나는 보상을 받는 것은 경건한 삶이며 거기서부터 모든 봉사가 넘쳐 나아만 된다.”³⁾

바울이 살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내동댕이쳤고 그

3) (1:19) 해밀턴 스미스(Hamilton Smith), 추가 문헌 고증이 어렵다.

래서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침반을 배 밖으로 내던지는 어리석은 선원에 비유할 수 있다.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들은 참 신자였지만 올바른 양심을 지키지 못했을 따름이다. 그들은 처녀항해에 나서는 화려한 배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으나 흔들리는 깃발과 짐을 가득 싣고 귀항하는 대신 암초에 걸려 자기 자신과 간증에 수치를 당하고 만 사람들이다.

1:20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디모데후서 2:17과 4:14에 언급된 사람들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들의 궤방이 어떠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듣는 바로는 그들이 선한 양심을 버렸고 궤방을 했다는 것이다. 신약에서는 궤방⁴⁾이 늘 하나님을 욕하는 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과 같은 인간에게 욕설을 하거나 악평을 할 때도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다. 믿음에 대해 파선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도에 대해 악평을 하게 했을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살아 있는 궤방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인생은 한 때 빛나고 쓸모 있는 삶을 살다가 그 양심이 뒤틀림으로써 곁으로 빠져나가 그릇되고 비극적인 삶이 되고 말았다.

사도는 자기가 이 사람들을 사단에게 넘겨주었다고 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들을 통해 단순히 출교 행위를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그들은 이 말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지역교회에서 쫓아내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그들을 회개하게 해서 주님과 그 백성들로 더

4) 5 (1:20) 헬라어로 *blasphemeō*(“욕되게 하다”, ‘궤방하다’)는 하나님과 사람을 가리킬 때 모두 사용하는 말이다.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blaspheme’은 거의 언제나 하나님과 거룩한 대상들에 대해서만 사용된다.

불어 교제를 회복시키려고 했다고 본다. 이 견해의 문제는 출교가 지역교회의 기능이지 사도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출교하지 않았고 고린도인들에게 그리하라는 상담을 해주었다.

이 구절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 중 다른 것으로는 사단에게 내준다는 것이 사도들이 받은 권세며 사도가 없는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자면 사도들이 죄지은 사람을 사단에게 넘겨주어서 육체적인 고통을 받게 하거나 심한 경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행 5:1-11) 죽게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징계는 분명히 고쳐주려는 목적에서였다—“저희로 징계를 받아 뉘엿하지 말게 하려 함이었던 것”이다. 저주가 아니라 징계의 문제였다.

3. 교회생활에 대한 교훈 (2:1-3:16)

1. 기도에 대해(2:1-7)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 디모데에게 명한 첫 번째 경계를 끝 맺고 이제 주제를 기도로 옮기고 있다. 이 구절이 공중기도에 대한 것이라는 데는 일반적으로 다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경건생활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할 것은 전혀 없다.

2:1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특권이자 의무이다. 같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으로 큰 특권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것은 의무이기도 한데 이는 우리가 구원의 복음에 관한 한 모든 사람에게 빛진 자이기 때문이다.

사도는 기도의 네 가지 측면을 늘어놓고 있는데, 곧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이다. 처음 세 가지를 구별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현대어법에서 “간구”는 강하고 간절하게 요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구절에서의 의미는 구체적인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의 의미가 더 가깝다. 여기서 “기도”로 번역된 단어는 매우

일반적인 용어로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아가는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이다. “도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께 말씀드리는 기도의 형태를 묘사하고 있다. “감사”는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다시 돌이켜보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쏟아 놓는 기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요약해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하고, 예배하며, 신뢰하며 감사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2: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의 기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했고(롬 13:1),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자”(롬 13:4)라고 했다.

이 구절이 네로 통치 시대에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할 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 악한 군주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한 끔찍한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부 수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신약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속해서 살고 있는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그 예외는 오직 정부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명령할 때뿐이다. 그럴 경우 그의 첫 번째 책임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 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명령은 어떤 것이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말없이 그리고 순종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된다.

사도가 관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우

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했다. 정부가 안정되고 나라가 혁명이나 내란, 소요 사태, 무정부상태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다.

2:3 우리가 모든 사람, 임금들과 권세 잡은 자들까지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호칭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것이 된다.

2:4 이것은 우리가 3절에서 이미 지적한 것을 더 깊이 설명해 주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겔 33:11; 요 3:16; 벰후 3:9).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 구절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편과 사람 편에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 구절의 전반부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동사는 수동이다. 즉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것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은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사람의 의지를 무시하고 구원하시지는 않는다. 그분은 반역하는 백성들로 천국을 채우지 않으신다. 사람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분께로 나와야만 된다. 이것은 인간 편에서 할 일이다.

이로 볼 때 이 구절이 만인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방랑한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방랑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지만 당초에 친히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축복의 길은 아니었다.

2:5 이 구절과 앞에 나온 구절들과의 상관관계는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 담긴 교훈은 다음과 같다고 분별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 한 분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만일 그분이 여러 신(神) 중의 한 분이려면 자기에게 경배하는 사람들만 신경 쓰실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길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보는 중개자, 매개자로서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쌍방간에 대화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친히 인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어떤 가련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으며 결코 내어쫓지 않으실 것이다.

바울은 이 중보자를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분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 되셔야 했다. 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지만 베

들레헴의 구유에서 사람이 되셨다. 그분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에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곧 메시아임을 보여준다. 예수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 붙은 이름이다.

이 구절은 오늘날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나 천사, 또는 성인(聖人)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라고 하는 너무나 만연된 가르침에 대해 효과적인 답변을 주고 있다. 중보는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의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다.

5절은 신구약의 말씀을 요약해 주고 있다. 한 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하도록 부탁하신 구약의 말씀이었으며 한 분 중보자는 교회에게 부탁하신 신약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절함으로써 그 책임 완수에 실패한 것처럼 오늘날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는 마리아, 성인들, 성직자 등과 같은 다른 중보자들을 들이켜서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말았다.

2:6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는 사실에서 더 한층 밝혀진다. 속전은 어떤 사람을 석방하거나 놓아주기 위해 치르는 대가를 말한다. 그 속전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주목하기 바란다. 여기에 담긴 뜻은 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사역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원에는 사람의 의지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여러 구절 중의 하나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대한 증거는 기약이 되면 드러나게 된다고 하신 뜻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복된 소식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인류에게 복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것이다.

2:7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한다. 그때 당시 이방인들은 지금처럼 세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보내심을 받은 대상은 유대인들과 같은 인류의 극히 일부가 아닌 이방 열국이였다.

그는 자기를 일컬어 “전파하는 자와 사도와 교사”라고 한다. 전파하는 자는 글자 그대로 복음의 사자요 선포자다. 사도의 의무는 다소 광범위하다. 즉 이 사람은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지역교회를 질서와 징계 면에 있어서 바르게 인도하며 말씀을 가르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권위를 지닌다. 교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설

명해 준다.

바울은 자기가 하는 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우리말 성경에는 없음-역주) 참말을 하고 거짓말이 아니니”라는 말로써 자기가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한 말을 재차 다짐하고 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사도가 신실하고 정직하게 가르치는 일을 했음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가르친 내용을 묘사하는 것으로 봄이 더 적절할 것으로 분별된다. 달리 말해서 그는 믿음과 진리에 속한 것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다.

2. 남자와 여자에 대해(2:8-15)

2:8 이제 공중기도의 주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로 관심을 이끌고 있다. 이 주제를 시작하는 “내가 원하노라”는 말은 바울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또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신약성경 원어를 보면 “남자들”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이다. 한 단어는 인류 전체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며, 다른 하나는 여자와 반대말인 남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두 번째 것이다. 사도의 가르침은 공중기도가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만이 아닌 모든 남자를 의미한다.

“각처에서”라는 표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각자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있든지 관계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제는 공중기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다양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려고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여자가 아닌 남자가 기도를 인도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세 가지 자격이 더 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기도할 때의 몸 자세가 아니라 내면적인 삶이다. 그 사람의 손은 거룩한 손이어야 된다. 여기서 손은 그 사람의 삶 전반을 비유하고 있다. 둘째로 그 사람은 “분노”가 없어야 된다. 이것은 지역교회에 함께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일어난 사람이 성질을 가누지 못함으로써 앞뒤가 맞지 않는 면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의심”(우리말 성경에는 “다툼”으로 나옴-역주)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기꺼이 기도를 들으시며 또 응답하실 능력이 있다는데 대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자격을 요약하면, 남자는 자기에게 대해서는 거룩과 순결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사랑과 화평을,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고 할 수 있다.

2:9 공중기도를 인도하는 남자들의 개인적인 필수사항을 논하고 나자 사도는 이제 기도할 때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있는 여자들의 품행을 이루는 특징으로 대화를 옮긴다. 먼저 그는 여자들이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엄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존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은 아담한 옷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이 필요 없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아담한 옷은 무엇인가? 여자들의 몸을 자연스럽게 품위 있게 가려 주는 것이요 불필요한 치장은 삼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의바르고, 어떻게 하면 결례(缺禮)가 되는가? 당신

은 땅은 머리와 금장식을 한 채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는가? 당신은 무도회에 가는 건가? 결혼식 피로연에 가는 건가? 축제에 가는가? 그런 곳에 갈 때는 값비싼 그런 장신구들이 어울릴 것이다. 그러나 여기, 기도하러 나가는 데에는 그 중 단 하나도 필요치 않다. 당신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려고, 당신의 허물에 대해 간구하려고, 주님을 찾으려고 나아온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런 외식일량은 버려라!”⁵⁾

“염치”는 수치를 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겸손하고 사려 깊다”는 뜻이 깔려 있다. “절제”(Moderation; 우리말 성경에는 “정절”로 나옴-역주)는 여자가 옷을 입을 때 중도를 걷는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여자는 비싸고 눈에 띄는 옷차림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애를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찬사를 받거나 심지어 시기를 받게 되기 쉽다. 한편 여자는 우중충하거나 너무 구식인 옷을 입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일도 피해야 된다. 성경은 복장에 관한 한 절제된, 중도정책을 가르치고 있다고 분별된다.

지나치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것으로 땅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이 있다. 땅은 머리는 그냥 땅은 머리까지도 굳이 포함시키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머리는 매우 아담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화려한 장신구로 머리를 요란하게 치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석이나 비싼 의복을 사용하는 것은 기도할 때 단연코 적절치 못하다.

5) (2:9) 존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의 글을 알프렛 플러머(Alfred Plummer)가 ‘목회서신서’(The Pastoral Epistles) 101쪽에서 인용.

2:10 여자들의 복장에 대한 적극적인 측면이 10절에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치장은 선행을 행하는 데서 보게 된다. 그런 “의복”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겉으로 벗어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그러한 교제를 가지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나쁜 의미에서의 시기나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다만 그 본을 따르도록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것이다. 선행은 목회서신에서 두드러진 주제며, 건전한 교리에 대해 매우 필요한 균형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2:11 교회의 공적인 집회에서 여자가 맡은 역할은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는 것이다. 이는 이 주제에 대한 성경의 다른 가르침들과 일치된다(고전 11:3-15; 14:34-35).

2:12 바울이 나는 여자의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의 말처럼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편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선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점에 있어서 유일한 예외는 아이들과(딤후 3:15)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때다(딤후 2:4). 여자는 남자를 주관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여자는 남자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오직 조용, 또는 조용해야만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구절의 후반부가 지역교회에만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덧붙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머리의 위치에, 여자는 복종하는 위치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심에 있어서 근

본 원칙이다. 이것은 여자가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다. 분명 그렇지 않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를 지배한다거나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것은 분명하다.

2:13 자기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선 아담과 하와의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다음이었다. 바로 이 창조의 순서가 중요하다. 남자를 먼저 지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머리로, 지도하는 위치로, 주관하는 권위를 가지는 사람으로 정하셨다. 여자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조의 순서에 자기주장의 근거를 둔 바울은 이것이 한 지역교회의 문제라는 것을 배제시키고 있다.

2:14 두 번째 증거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것을 언급하고 있다. 아담에게 직접 다가가는 대신에 뱀은 하와에게 유혹과 거짓말로 다가갔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자면 하와는 자기 독자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었다. 하와는 아담에게 가서 이 문제를 그에게 내놓아야 했다. 그러나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임을 받게 되어 죄에 빠지고 말았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오늘날의 거짓 교사들이 가정을 방문할 때 보면 아내가 집에 혼자 있을 가능성이 많은 시간, 곧 남편이 직장 일로 외출 중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때를 틈타서 찾아간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아담은 꾀를 받지 않았다. 아담은 눈을 뜬 채 죄를 지었던 것 같다. 아담은 자기 아내가 이미 죄에 빠진 것을 보고 그녀와의 단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죄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견해를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은 단순히 여자가 뿔을 보았지만 아담은 뿔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

2:15 이것은 목회서신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의 하나며 여기에 대해 많은 설명이 나왔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 산모가 실제로 출산할 때 죽음에서 건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늘 옳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건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 자매들 중에 출산하는 과정 중에서 죽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의 “해산”(문자적으로 “그 해산”)은 메시아의 출생을 가리키며, 여자들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뜻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해석은 본 단락의 의미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이 구절이 여자는 아이 엄마가 되는 덕택에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행위로, 가장 독특한 성격의 행위로 얻는 구원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이 이 구절에 대한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고 본다. 우선 먼저, 본 문맥에서 구원은 그 여자의 영혼의 구원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위치를 가리킨다고 보인다. 바울이 본 장에서 말한 것을 듣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여자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전혀 무관하다는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여자는 하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여자는 일체의 공적인 사역을 허락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사역

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있을 곳은 가정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역이라고 명하신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친들을 생각해 보라! 이 여성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결코 공적으로 강단에 올라선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기르는 일로 그들은 그 지위와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점에 있어서는 참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릴리(Lilley)는 이렇게 쓰고 있다:

“여자는 날 때부터 아내와 어머니가 되도록 정해졌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며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복종이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더 확실히 증거된다면 말이다.”⁶⁾

이쯤에서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대답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여성에 대해 다루고 계시다는 것이다. 대다수 믿는 여자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여자들의 경우 여자들에게 맡겨진 다른 유익한 사역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때도 역시 공적인 가르침이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제외된다.

15절 끝의 그 자격을 언급한 구절을 눈여겨보라.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꼭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만일 남편과 아내가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지키고 가정에서

6) (2:15) 릴리(Lilley), 추가 문헌 고증이 불가능하다.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면 그 여자의 지위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일 부모의 삶이 부주의하고 세속적이라면 그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나 잃어진 바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럴 경우에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정해 놓으신 참된 존귀를 얻지 못하게 된다.

누구든지 여자의 사역은 사적이고 가정에 국한된 것이라 해서 공적인 사역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은 참으로 옳다. 장차 올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충성이며 이것은 강단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3. 장로와 집사에 대해(3:1-13)

3:1 디모테전서에서 두 번째로 “미쁘다”는 말은 지역교회의 감독과 관계가 있다. 감독은 성숙하고 경험과 명철을 갖춘 남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역 교회의 영적인 생활을 경건하게 돌아보는 일을 돕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자기가 영적인 본을 보여서 인도한다.

오늘날 “감독”은 여러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한 사람의 교회 관리를 말한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변함없이 한 교회에 여러 명의 감독이 있었다(행 14:23; 20:17; 빌 1:1; 약 5:14).

감독(bishop)은 감독자와 같다. 본 구절에서 감독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감독자”(overseer)로 번역되어 있다. 감독, 또는 감독자는 장로와 같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장로로 불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는 감독자로 불리고 있다(디도서 1장 5절과 1장 7절도 참조하라). 장로들(elders)은 장로들(presbyters)과 동일하다. 그러나 두 번째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며 영어 단어는 헬라어로 “프레스부테로스”(presbuteros)라고 번역된다. 그러므로 “감독”, “감독자”, “장로”(elder), “장로”(presbyter)는 모두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실제로, “장로”(elder)라고 번역되는 단어(presbuteros)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며, 꼭 교회의 인도자를 언급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디모테전서 5장 1절의 헬라어), 대부분 “장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목회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지역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신약성경은 감독이나 장로가 으레 모든 지역교회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빌 1:1). 그러나 교회는 감독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확한 말이 아니다. 디도서 1장 5절로 볼 때 그레테에는 세운지 얼마 안 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장로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만 사람을 장로로 만드실 수 있다. 이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볼 때 분명하다.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이 중요한 일을 맡으려는 짐을 주시고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갖추어 주신다. 어떤 사람을 투표로 뽑거나 안수함으로써 감독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역교회의 책임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미 장로가 되게 하신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이다(살전 5:12-13). 디도서에 장로 임명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는 디도가 이미 장로의 자격을 갖추고 있던 사람들을 선택하는 문제였을 뿐이다. 그 당시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인쇄된 신약성경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장로의

자격 기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몰랐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한 정보를 디도에게 주어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장로의 일을 하도록 일으키신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고 디도에게 지도했던 것이다.

지역교회에서 장로를 분별하는 것은 별다른 격식을 차리지 않을 수도 있다. 흔히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누가 장로인지 알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나와 있는 장로들의 자격 기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장로를 분별하는 절차가 보다 격식을 갖출 수도 있다. 지역교회가 장로들을 공식적으로 분별해서 세우려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함께 모일 것이다. 이럴 경우 그 절차는 대개 적절한 성경 구절을 읽고 설명하고 난 뒤에 성도들로 하여금 그 모임에서 장로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거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전 성도들에게 발표한다. 만일 어떤 교회에 자격을 갖춘 장로가 없다면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공급처는 오직 주님께서 장차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뿐이다.

성경은 한 지역교회에 몇 명의 장로가 있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늘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만 몇 사람이 되었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된다.

만일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흔히들 이 일은 권세 있고, 성직이며, 책임은 거의 없거나 아예 전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감독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의 겸손한 봉사일 따름이다. 즉 이것은 일이라는 것이다.

3:2 감독의 자격 기준이 2-7절에 나와 있다. 그 기준들은 네 가지 필수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적인 인격, 가정에서의 간증,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험이다. 이것들은 지역교회에서 영적인 인도자의 일을 하려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기준이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런 주장은 성경의 권위를 빼앗는 것이며 성령님으로부터 자격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독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그 사람이 심각한 잘못을 범했다는 어떤 비방이라도 들을 만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며, 혹 그가 어떤 잘못을 범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한다는 뜻이다. 그는 책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그 평판에 오점이 없어야 될 뿐 아니라 훌륭한 평판을 들어 마땅한 사람이라야 된다.

두 번째로 그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한다. 사람들은 이 요구조건을 여러 가지로 이해한다. 어떤 이들은 감독이 결혼을 해야만 된다는 뜻이라고 분별한다.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독신 남자는 가정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에는 경험의 폭이 좁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이 표현이 감독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된다는 뜻이라면 똑같은 논리로 4절에서 장로는 반드시 자녀를 두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옳다.

또 어떤 이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란 것은 만일 감독의 첫 번째 아내가 죽으면 다시 결혼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결혼 관계가 거룩하다는 것을 돌이켜볼 수 있게 만드는 매우 엄격

한 해석이다.⁷⁾

또 다른 해석으로는 감독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상당히 수궁이 가는 편인데 완벽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또 다른 견해는 감독은 결혼생활을 성실히 안 한다거나 불규칙하다는 비방을 들어서 안 된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 사람의 도덕적인 삶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만 된다. 이 구절에는 물론 다른 뜻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 이 견해는 옳다.

마지막 설명으로 이 말의 뜻은 감독이 여러 아내를 거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겠지만 그 나름의 수궁이 가는 면이 있다. 오늘날 선교지에서는 여러 아내를 거느린 사람이 구원받는 경우가 생긴다. 구원받았을 무렵에 그 사람은 아내가 네 명일 수도 있다. 나중에 그는 세례를 받고 지역교회에 영접 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이는 그 사람이 세 아내를 버려야 된다고 답한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한다. 우선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자기는 어떤 아내를 버려야 되느냐고 물어 올 것이다. 그는 세 아내를 다 사랑하고 있고 다 함께 데리고 살고 있다. 또 그가 세 아내를 버려야 된다면 그들은 살길이 막막해질 것이며, 그들 중에는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려고 사창가로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신다면 한 가지 죄를 해결하려다 더 심한 죄를 여러 가지 짓도록 만드시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렇게 하실 리는 절대 없다. 여러 선교지에 나가 있는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이 이 문제를

7) (3:2) 이 견해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헬라어 원문의 구조 속에 암시되어 있는 한 여자에게 장모가 충실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여자와 사는 남자”(a one-woman-kind-of-man).

해결하는 방법은 그 남자가 세례를 받고 지역교회에 영접은 받게 하되 그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동안은 절대 장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절제한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 서도 극단적인 것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근신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경솔하거나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신중하고 진지하며, 분별력이 있고 사려 깊은 사람이다. 그는 “죽은 파리가 향기롭으로 약취가 나게 하는 것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한다”(전 10:1)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다.

감독은 아담한, 즉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그가 낯선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의 가정은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그는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축복을 나누어주려고 한다.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방문할 때 그는 성경을 펴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는 하나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어야 되며 (벧전 5:2), 성경을 사용해서 잘못된 교리를 들어오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행 20:29-31). 감독이 반드시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모임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별로 방문 사역을 할 때도 믿음의 교훈들을 설명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며 언제나 그렇게 할 준비를 갖추고 또 간절히 하고 싶어 해야 된다.

3:3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알콜이 들어간 음료에 중독되는 것을 의미한다. 감독은 술을 지나치게 즐긴 나머지 싸움, 즉 폭력이 오가는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구타하지 아니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일체의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주인이라면 자기 종을 절대 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라는 말은 일부 고대 사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수 사본에서는 나온다.⁸⁾ 돈을 사랑하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

장로는 관용해야 된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그는 오래 참음과 인내, 양보심 등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그는 다투지 말아야 되며, 말싸움을 즐겨서도 안 되고, 온갖 사소한 것에 대해 논쟁을 벌여서도 안 된다. 그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성품이 인준하고 온유한 사람이다.

감독은 “탐심이 없는 사람”(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음-역주), 즉 돈을 사랑치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강조점은 “사랑하는”이라는 단어에 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삶에 관심을 기울이며 물질에 대한 강한 욕망 때문에 마음이 분산되는 것을 거절한다.

3:4 감독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해야 된다. 이 자격요건은 이 사람의 자녀들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 한해서 적용될 것이다. 아이들이 분가해서 각자 가정을 이루면 이러한 복종을 다시 보여줄 수

8) (3:3) 집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는 안되기 때문에(3:8), 바울이 그들보다 더 책임이 중한 장로들에 대해 말하면서 이런 자질을 빠뜨렸을리 없다고 본다.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만일 사람이 자기 가정을 다스린다면 부당하게 엄하다든지, 공의를 생각지 않고 무조건 관대하게만 하는 극단을 피하게 될 것이다.

3:5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분명하다. 만일 사람이 자기 가정을 제대로 다스릴 줄 모른다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자기 가정에는 식구들이 비교적 소수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와 연관된 사람이고 대부분의 식구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다. 한편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숫자가 훨씬 더 많고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질도 각양각색이 있게 마련이다. 만일 사람이 작은 무리를 제대로 못 다스린다면 더 큰 무리를 맡기에는 분명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이치이다.

5절은 중요한 말씀인데 장로의 하는 일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지 않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장로는 폭군이 아니며 관대한 통치자조차도 아니며 오히려 그는 목자가 양떼를 안내하듯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돌보다”라는 표현이 신약에서 단 한 번 더 사용되고 있는 곳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다(눅 10:34).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장로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푼 것과 같이 따뜻하고도 자비롭게 돌볼 줄 알아야 된다.

3:6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 최근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나 믿음이 어린 사람은 감독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 일은 믿음 안에서 경험이 있고 분별력도 있는 사람을 요구한다. 새로 입교한

사람은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위험이 있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는 사단이 그 교만 때문에 받은 심판을 의미한다. 사단은 자기가 누릴 자격이 안 되는 높은 지위를 얻으려 애를 쓰다가 그 결과 더 낮아지게 되고 말았다.

3:7 감독은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외인들은 구원받지 않은 이웃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선한 증거가 없으면 그는 사람들의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 이 비방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양측에서 찾아올 수 있다. 마귀의 올무는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삶이 그와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놓는 덫이다. 사단은 일단 이 덫으로 사람을 잡으면 조롱과 멸시와 놀림을 받게 만든다.

3:8 사도는 이제 감독에서 집사로 넘어간다. 신약에서 집사는 단지 섬기는 사람을 가리킬 뿐이다. 일반적으로 집사는 지역교회에서 일시적인 업무들을 처리하는 일을 하며 반면에 감독들은 교회의 영적인 일을 처리한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대체로 사도행전 6장 1-5절에 근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몇 사람이 교회의 안의 과부들에게 매일 물질을 나눠주는 일을 맡도록 세움을 받았다. 사실, 이 단락의 말씀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있으며 그 동사형이 2절에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섬기는 것(문자적으로는 ‘집사 일을 보다’-우리말 성경에는 ‘공책을 일삼는 것’으로 나눔)이 마땅치 아니하니.”

집사의 자격요건은 감독과 매우 비슷한데 그만큼 엄격하지는 않은 편이다. 한 가지 큰 차이점은 집사는 잘 가르쳐야 된다는 요구사

항이 없다는 것이다.

집사는 경건해야 되며(reverent-우리말 성경에는 “단정하고”로 나눔-역주), 기쁨이 있어야 되며,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어야 된다. 일구이언, 즉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 엇갈리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야만 된다.

집사가 될 사람들은 술에 인박혀서는 안 된다. 신약성경은 의약용으로 술을 사용하는 것이나, 혹 식수공급이 수월하지 않은 곳에서 음료수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술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간증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자기 간증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반면 또 어떤 나라에서는 만일 불신자가 술을 탐닉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면 실족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술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이긴 하지만 옳지 않은 행동이 될 수도 있다.

집사는 돈을 탐내면 안 된다(우리말 성경에는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로 나눔).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집사의 하는 일 중에는 지역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있다. 만일 이 사람이 돈을 탐낸다면 이 일은 그 사람을 특별한 시험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는 한 밀천 잡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그저 돈 때문에 주님을 판 사람은 가롯 유다가 마지막이 아니었던 것이다!

3:9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것은 집사들이 교리적으로나 생활면에서나 건전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 믿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묘사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많

은 교리는 구약시대 내내 비밀로 남아 있었지만 나중에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밀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3:10 집사들은 장로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먼저 시험하여 보아야 한다. 이것은 한동안 이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지역교회에서 작은 책임을 일부 맡겨 본다는 뜻이다. 그 사람들이 믿을 만하고 충성스럽다는 것이 드러나면 더 큰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섬기게 한다.”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강조점은 성직이 아니라 주님과 그 백성을 섬기는 데 있다.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삶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언제든지 집사로 섬기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자격 요건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지역교회의 집사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 몇 명을 언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재정 출납 담당자는 분명 집사이겠고, 문서 수발 담당, 주일학교 교장, 안내자 등도 들 수 있겠다.

3:11 이 구절은 집사의 아내, 또는 감독과 집사의 아내들을 언급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과 인품을 가진 자로서 자기 남편의 중요한 일을 돕는 사람들이라야 한다. 그러나 “아내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자들”(우리말에서는 “여자들”로 되어 있음-역주)로도 번역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나아가 여자 집사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여자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로마서

16장 1절에서 뵤뵤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집사”와 같은 단어임)으로 불리고 있다.⁹⁾

이런 여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 해 주는 것은 로마서 16장 2절인데 거기서 바울은 뵤뵤를 가리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했다.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든 간에 이 여자들은 단정하고 기품이 있으며 근신하는 사람들이라야 한다. 이들은 참조하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 험담을 늘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릇되고 악한 소문을 퍼뜨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여자들은 절제하는 사람들로서 자기를 통제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만 독실할 뿐 아니라 믿을 만하고 헌신적이고 신임할 만한 사람도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들은 사적인 비밀이나 집안의 은밀한 일들에 대해 침묵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3:12 이제 사도는 다시금 집사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다. 그는 먼저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본 장의 2절과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다. 여기서는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결혼생활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로 충분하다.

집사들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신약성경은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인 인격의 결점으로 여기고 있다. 이것은 남자가 독재자와 황제처럼 군림하라는 뜻이

9) (3:11) 이 당시는 초대교회 때였으므로 집사직은 여자들이 맡는 교회 직분이 아니었던 것 같다. NKJV판 ‘라이리 학습 성경’(*Ryrie Study Bible*)의 주해 1850쪽을 보라.

아니며 아이들이 진리에 순종하고 또 진리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13 “집사로서 잘 섬긴 사람들은(우리말 성경에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로 나눔-역주)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빌립과 스테반의 경우에 생생하게 잘 나타나 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이 두 사람은 세움을 받은 일곱 집사 가운데 있었다. 이들이 하도록 세움을 입은 일은 교회 안의 과부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일을 맡는 것이었다. 이들이 자기 직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이들을 더욱 큰 섬김의 영역으로 끌어올리셨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행전이 진행됨에 따라서 전도자로 일하고 있는 빌립과, 교사로 일하고 있는 스테반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집사로 잘 섬겼기 때문에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데, 이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은 것이다. 임무를 충실히 다 마치는 사람은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신뢰성과 헌신에 대해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빌립과 스테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기도할 때 매우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자신이 순교하기 전 행한 그 뛰어난 연설을 했던 스테반에게도 틀림없이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4. 교회에서의 행실에 대해(3:14-16)

3:14 사도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디모데의 얼굴을 곧

보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 나온 것 뿐 아니라 뒤에 나오는 것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3:15 바울은 자신이 지체하거나 에베소에 다시 못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실 우리는 그가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다시 재회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만일 자기가 오래 지체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를 디모데가 알기를 원했던 것이다.

앞의 구절들에서 바울은 감독과 집사와 그 아내된 이들이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이제 그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를 설명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정의되어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 거하셨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 안에 거하신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불리는데 이는 생명 없는 우상이 있는 신전과 대조된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이다. 기둥은 건물을 받치는데 쓰일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오가는 큰 시장에 이런 기둥을 세워 놓고 공지사함을 붙이는 일이 흔했다. 그러므로 기둥은 선포하는 일을 했던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고 또 보여주실 목적으로 친히 택하신 공보본부이다. 교회는 또 진리의 터다. 여기서 터라는 것은 건물의 기초 혹은 지지구조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방어하고 지지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

3:16 이것은 난해한 구절이다. 한 가지 난해한 것으로는 앞에 나온 구절들과 문맥상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분별하느냐의 문제다. 어떤 이는 여기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는 진리를 요약 발췌해 놓았다고 말한다(15절).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바 하나님의 집에서 마땅한 행실 중에서 그 근간을 이루는 경건의 본과 능력을 이 구절이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J. N. 다비는 이렇게 말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나 그리스도의 신비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흔히 인용도 되고 해석도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경건이라 불릴만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에 하나님의 신비이자 비밀이다. 경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 부활, 승천을 아는데서 솟아난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시려 했던 경건의 비밀로써 이 경건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넘쳐 흘러나오는 것이다.”¹⁰⁾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했을 때 그는 경건이 알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한 것이 아니며 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전에는 밝혀진 적이 없는 이 진리가 너무나 놀랍고 기이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바 되시고”는 주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킨다. 참된 경건이 육신으로 처음 나타난 것은 구주께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람의 영으

10) (3:16) 다비(J. N. Darby)저, ‘디도서 2:11-14에 대한 강해’(Notes of a Lecture on Titus 2:11-14), ‘다비 전작 선집’(The Collected Writings of J. N. Darby), 7권 333쪽.

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는 뜻일까? 아니면 “성령님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다”는 뜻일까? 우리는 후자의 의미라고 분별된다. 그분은 세례 받으실 때(마 3:15-17), 변화되셨을 때(마 17:5), 부활하셨을 때(롬 1:3,4), 그리고 승천하셨을 때(요 16:10)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시험을 받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실 때,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승천하셨을 때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오순절로부터 계속해서 그분은 이방인들 가운데서(우리말 성경에는 “만국에서”로 나눔-역주) 전파되셨다. 예수님을 전파한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이른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렀다.

세상에서⁽ⁱⁿ⁾ 믿은바 되셨다는 것은 거의 모든 종족과 민족 중에서 얼마가 주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이 구절은 “세상에게^(by) 믿은바 되셨다”고 하지 않았다. 전 세계에 전파되셨지만 단지 일부만 영접했을 뿐이다.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그곳에서 지금 계신 지위를 언급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다. 빈센트(Vincent)는 “영광중에서^(in glory; ‘영광 가운데로’가 아니다) 올리우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것은 “수행원들이 개선장군을 둘러싸고 벌이는 것처럼 화려하고 장엄하게 펼쳐지는 광경”을 의미한다.

어떤 이들은 이들 일련의 사건을 시간적인 순서로 나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주님의 성육신을 언급한다고 한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부활을 가리킨다고 한다. 천사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바 되셨다는 것은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다는 것은 주님이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올리우는 장차 올 그 날이라고 한다. 그때, 오직 그때서야 경건의 비밀이 온전해질 것이라는 게 이 견해가 주장하는 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서가 반드시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야 된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초대교회 찬송가의 일부분을 담고 있다고 믿는다. 만일 그렇다면 그 찬송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 찬송 “어느 날”과 상당히 비슷하리라.

살아서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네.

죽어서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네.

장사되어 그분은 나의 죄를 멀리 멀리 가져가셨네.

부활하사 값없이 나에게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네.

어느 날 그분은 오시리! 오, 영광스런 그 날이여!

(찰스 H 마쉬)

4. 교회 안에서의 배도 (4:1-16)

1. 임박한 배도에 대한 경계(4:1-5)

4:1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고 할 때 그 뜻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그에게 직접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 전체, 특히 신약성경에서는 후일의 특징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밝히 가르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후일”은 “나중 시대에”라는 뜻으로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하고 있던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나중의 시기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은 디모데전서의 특징이다.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소수에 불과하던 것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다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거나 떨어졌다는 사실은 그들이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인 행세를 했다는 뜻이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분이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도 들은 바 있었다. 그들은 한동안 자기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노라 했지만 나중에는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고 말

았다.

이 부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시대에 창궐하는 이단을 어김 없이 떠올리게 된다. 이 거짓 종교들이 어떻게 번져 나가는 지가 여기에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 중 상당수가 소위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데를 전에 다니던 사람들이다. 이런 교회들이 한때는 신앙이 건전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중에는 사회 복음 쪽으로 표류해 갔다. 이단교회의 지도자들이 더 적극적인 메시지를 들고 나오자 이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뗏목에 걸려들었다.

그들은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기꺼이 좇거나 거기에 동의한다. 미혹케 하는 영은 거짓 교사들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속에는 악령이 살고 있으며 부주의한 자들을 미혹하게 된다. 귀신의 가르침은 귀신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귀신이 주입하는 가르침 또는 귀신의 세상으로부터 유래한 가르침을 뜻한다.

4:2 “외식”이라는 단어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거짓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들은 자기 진짜 정체를 숨기려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종교단체에 속해 있는지를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들을 쓰고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가장을 한다. 이 사람들은 외식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한다.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양심은 확인 맞았다. 아마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이들

의 양심이 민감했겠지만, 너무나 자주 양심을 누르고 빛을 거스려 죄를 짓다 보니 이제 그 양심은 무감각해지고 단단하게 변해 버렸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도, 또 자신도 틀렸음을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도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 없다.

4:3 귀신의 가르침 중 두 가지가 여기 나와 있다. 첫 번째 가르침은 결혼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결혼을 제정하셨으며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하셨다. 결혼은 거룩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거짓 교사들이 결혼을 금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이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의 한 가지 예로 특정 성직자와 수녀에게 결혼을 금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더욱 더 직접적으로 이 구절에서는 영적인 교분이라고 불리는 귀신의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은 A. J. 폴록(Pollock)에 따르면 “결혼을 통한 성적 결합을 부도덕한 것이며 불법한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강신술사(降神術師)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다.” 결혼에 대해서 크리스찬 사이언스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자. 창설자 에디 부인(Mrs. Eddy)은 세 번이나 결혼을 한 사람인데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결혼하고 있다. 결혼이 한때는 우리에게 매우 합법적인 것이었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본래의 의의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그만 고수되어야 된다. 이제는 영적인 결합에 의하여 영원한 평안을 되찾지 않으면 안된다.”¹¹⁾

11) (4:3) 메어리 베이커 에디(Mary Baker Eddy), *Science and Health with Key to the Scriptures*, 64,65쪽.

귀신의 가르침으로 두 번째는 특정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강신술사들이 내세우는 것인데 그들은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귀신과 접촉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견신론자(見神論者)와 힌두교도들은 사람의 혼이 돌아와서 동물이나 혹은 다른 생명체 속에 산다고 믿기 때문에 살생을 일체 꺼리고 있다.

여기서 관계대명사 which는 혼인과 식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우리말 성경에는 “식물”로 한정을 하고 있으나 흠정역 성경의 문장 구조는 관계대명사 which가 “혼인”과 “식물”을 모두 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음-역주). 둘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며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도 누리게 하셨다.

4:4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식물이나 혼인은 모두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번성하게 하실 목적으로 결혼을 제정하셨고(창세기 1장 28절을 보라),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려고 먹을 것을 주셨다(창 9:3).

4:5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과 혼인을 사람이 쓰도록 따로 구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음식은 거룩한 것이 되는데 이는 창세기 9장 3절; 마가복음 7장 19절; 사도행전 10장 14절; 고린도전서 10장 25-26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다. 결혼은 고린도전서 7장과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다.

식물과 결혼 모두 기도로 또한 거룩해진다. 식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그 음식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한다(마 14:19;

행 27:35).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 이 음식을 거룩하게 해주사 우리 몸을 강건케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더욱 합당하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시라고 구하는 것이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결합을 축복하셔서 그분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며, 신랑 신부에게는 유익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식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간증이 된다. 감사기도는 자기를 과시하려는 태도로 해서 안 되고 길어서도 안 되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음식을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해서도 안 된다.

2. 임박한 배도에 대비한 적극적인 교훈(4:6-16)

4:6 1-5절에서 언급한 “이것들”(these things)에 대해 형제를 깨우치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꾼”(minister)이란 말은 “종”이라는 뜻이다. 그는 믿음의 말씀과 자신이 지금까지 주의해서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종이 될 것이다.

4:7 이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봉사를 일종의 운동시합으로 생각하고 있다. 6절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에게 적합한 식생활에 대해 말씀했다. 즉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7절에서 바울은 경건을 목표로 하는 연습(“운동”)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명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다. 그는 이것들과 싸움을 벌여서도,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는 이것들을 멸시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허탄한 신화는 원어상의 의미가 “나이 많은 아내들의 옛날 이야기”(Old wives' fables)인데 우리로 하여금 여자가 창설해서 특히 나이 많은 여인들에게 호감을 사고, 진리 대신 신화를 가르치는 크리스찬 사이언스를 생각나게 해준다.

디모데는 “신화와 옛날이야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우리말 성경에는 “힘쓰라”로 나옴-역주)는 권면을 받고 있다. 그러한 연습에는 성경공부, 기도, 묵상, 그리고 타인에게 전도하는 것 등이 들어 있다. 스톡(Stock)은 말하기를 “가만히 있다 보면 저절로 경건하게 된다는 것은 절대 없다. ‘이 세상 풍조’는 우리를 거스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연습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4:8 여기에는 두 가지 연습이 대조되어 있다. 육체의 연습은 몸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가치가 있지만 이 가치들은 한계가 있고 얼마 가지 못한다. 그러나 경건은 사람의 영과 혼과 몸에 다 좋으며 현세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유익하다. 금생에 관한 한 경건은 가장 큰 즐거움을 주며, 내생에 관한 한 경건은 밝은 보상과 또한 그 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약속이 있다.

4:9 이 구절은 앞에서 경건에 대해 말한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동의한다. 경건이 넓고도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은 미쁜 말이며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것이다. 이 서신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미쁜 말이다.

4:10 “이 목표를(우리말 성경에는 ‘이름’로 나눔-역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욕을 참는다”¹²⁾(우리말 성경에는 “진력한다”로 나눔-역주). 여기서 언급한 목표는 경건한 삶이다.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최고의 노력을 쏟고 있는 대목표(大目標)라고 말하고 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인생의 가치 있는 목표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지나가는 것들 너머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둔다. 이 소망이 결코 믿는 자를 실망시킬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되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주시라는 것은 그분이 매일 매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유지하도록 지켜주신다는 의미에서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받고도 남음이 있도록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뜻에서도 모든 사람의 구주이시다.

하나님께서서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구주가 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을 자기 것으로 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인 구주이시며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제 구주라고 말할 수 있다.

4:11 “이것들”은 아마도 바울이 6-10절에서 말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디모데는 그런 규례들을 명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들을 끊임없이 대하도록 해야 된다.

4:12 이 편지가 기록될 무렵 디모데는 30세에서 35세 사이였을

12) (4:10) 비평사본에는 “우리가 수고하며 애쓴다”로 나와 있다.

것이다. 에베소 교회의 일부 장로들과 비교해 볼 때 그는 비교적 젊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디모데가 스스로를 높여 존경을 받으려 하거나 어떤 비판도 제기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어느 누구에게도 비방을 들을 만한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디모데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됨으로써 비판받을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말”에 대하여는 디모데의 대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는 명백하게 금하신 말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말도 피해야 된다.

“행실”에 대하여는 전체적인 태도를 가리킨다. 그 행실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행실은 없어야겠다.

“사랑”에 대하여는 사랑이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하며 그 행동을 실행하는 정신이 되어야 하며, 그 행동이 도달하려 애쓰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신”은 대부분의 현대역본에 빠져 있으며 비평적인 사본을 따르는 주석에도 빠져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전통 사본과 다수 사본에는 나온다. 가이 킹(Guy King)은 자신의 통찰력을 발휘하여 이 말을 “열심”이라고 이해했으며 이 열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는 말을 했다.

“열심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질 중에서도 이상하게 부족한 자질이다. 축구시합이나 선거유세에는 그토록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 열심을 찾아보기 힘들다. 크리스찬 사이언스 교도들이나 여호와의 증인, 공산주의자들의 그 엄청난 열심은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가! 오, 교회가 한 때 알고 있었던 그 타오르는 열심이 다시 한 번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훌륭한 정신은 디모테가 그 지위를 공고히 하고 또한 진보하는데도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¹³⁾

“믿음”은 “충성에 대하여”의 뜻으로 보이며 신뢰할 만하며 또한 신실하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정절”은 그의 행동뿐 아니라 동기에도 뚜렷이 드러나야 된다.

4:13 이 구절은 일차적으로 디모테의 개인생활보다는 지역교회를 가리키고 있다고 분별된다. 그는 성경을 여러 사람 앞에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해야 된다는 권면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 앞에서 읽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는 성경 보급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느헤미야 8장, 특히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로 볼 때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빼놓아서는 안된다. 디모테는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제로 적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했다.

4:14 성경에는 디모테가 정확히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나오지

13) (4:12) 가이 킹(Guy King)의 ‘인도함을 받는 인도자’(A Leader Led) 79쪽.

않는다. 가령 전도자였는지, 목자나 교사였는지 말이다. 디모데전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디모데는 목자로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사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선 그 은사가 예언과 더불어 혹은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지역교회의 선지자 한 사람이 어느 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디모데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발표했다는 뜻이다. 그 선지자는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다만 발표했을 뿐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했다. 우리는 다시 “장로들”(presbyters 또는 elders)은 디모데에게 은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보다는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써 장로들은 성령님께서 이미 하신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표시를 한 것뿐이다.

그 절차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보게 된다. 2절에서 성령님께서는 따로 정한 일을 하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셨다. 아마도 여기에 대한 말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역교회의 형제들이 금식하고 기도했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해서 보냈다(3절).

이와 동일한 원칙을 오늘날 여러 지역교회들이 따르고 있다. 장로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음이 분명하면 그들은 이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도록 천거하는데 이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그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가 된다. 천거가 그 사람에게 은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따름이다.

여기 언급된 것처럼 장로들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일어난 일과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묘사된 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일어난 일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그 행위는 전혀 공식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디모데의 은사에 대해 일체의 책임이 없었다. 단지 디모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와 뜻을 같이 한다는 표시였을 뿐이다. 후자의 경우 바울은 실제로 사도의 위치에서 그 은사를 디모데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자 역할을 했던 것이다.

4:15 “이 모든 일을 묵상하라”(우리말 성경에는 없음-역주)는 말은 “갈고 닦으라”, 또는 “이 모든 일에 수고하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 의미가 적합한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의 일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일심으로 전력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그는 모든 노력을 다 바쳐야 했다. 이렇게 할 때 디모데의 진보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고원지대에 이른 것처럼 전진을 그만 두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오히려 그는 디모데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항상 진보하기를 원하고 있다.

4:16 여기서 순서에 유의하라. 디모데는 먼저 자기를 삼가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삼가 해야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누구나 개인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만일 삶이 잘못되었다면 그 가르침은 아무리 정통적이라 해도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 아더 핑크(A. W. Pink)가 “만일 봉사가 예배와 개인의 영적인 삶의 진보를 밀쳐 내버린다면 그 봉사는 울무와 악이 되고 만다”고

한 말은 옳다.

바울이 글로 권면한 것들, 곧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함으로써 디모데는 자신과 자기에게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구원한다는 말은 영혼의 구원과 는 하등 관계가 없다. 본 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폐해를 끼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한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함으로 그가 이러한 그릇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디모데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거짓 교사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다.

5. 여러 신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 (5:1-6:2)

1. 남녀노소(5:1-2)

5:1 이 구절은 디모테가 일하고 있던 그리스도인 식구들에게 대한 처신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젊고 더 진취적인 디모테로서는 나이든 사람들에게 대해 참지 못하고 화를 내려는 시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늙은이를 날카롭게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권면을 듣고 있는 것이다. 나이 어린 그가 연로한 사람을 과격한 말로 책망하는 것은 합당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그리스도의 종인 디모테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자들에게 으스대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에게 자기보다 연소한 사람들을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다. 즉 자기도 형제들 중의 한 사람처럼 하고, 그들을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고 한 것이다.

5:2 늙은 여자들은 어미처럼 여겨야 되며 그분들에게 마땅한 위엄과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야 한다.

젊은 여자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의 특징은 일절 깨끗함이라야 한

다. 적극적인 죄를 피할 뿐만 아니라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이나 죄의 모양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피해야 옳은 것이다.

2. 과부(5:3-16)

5:3 3-16절까지에서 바울은 지역교회의 과부들과 그들에 대한 마땅한 처신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교회는 참과부인 과부를 경대해야 된다. 여기서 “경대하라”는 것은 공경의 의미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뜻도 담고 있다. 생계를 주님께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생활수단이 일체 없는 사람이 바로 참과부다. 그는 자기를 돌볼 만한 살아 있는 친척도 전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5:4-5 두 번째 부류의 과부가 이 구절에 묘사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 자녀들은 어머니(혹은 할머니)가 자기들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것에 대해 보답함으로써 가정에서 실제적인 경건을 보이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 구절은 경건은 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요란하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부끄러운 간증이 되고 만다!

달리 생계를 이어나갈 방도가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¹⁴⁾이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14) (5:4) 가장 오래된 사본과 다수 사본에는 “받으실 만한 것” 앞에 “선하고”가 없다. 이 말이 없는 것이 원전에 충실한 것임은 의심할 바가 없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참 과부는 재정공급원이 전혀 없이 일용할 양식을 오직 하나님께만 늘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다.

5:6-7 5절의 경건한 과부와 대조적인 사람으로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 여자가 참 신자인지 아니면 말뿐인 거짓 신자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소 엇갈린다. 우리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타락한 신자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점에 있어서 죽은 사람이다. 디모테는 이런 과부들에게 일락에 빠져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해야 했으며 또한 성도들이 자기들과 친척관계에 있는 궁핍한 과부를 돌아보도록 가르쳐야 했다.

5:8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가 여기에 강조되어 있다. 이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 언제나 주장하는 것은 참된 신자들은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는 자기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며 그 이유는 바로 불신자들도 자기 친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에 욕을 끼칠 수도 있다.

5:9 이 구절로 볼 때 지역교회에는 분명 명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교회에서 돌아보는 과부들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바울은 여

기서 육십 세 이하의 과부는 절대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 남편의 아내”라는 표현은 감독과 집사와 관련해서 제기되었던 동일한 문제를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러므로 이 표현에 대해서는 그와 비슷한 해석을 할 수 있다. 분명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이 사람의 결혼생활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했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일체의 의심도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5:10 명부에 오르기 위해서 과부는 반드시 신령한 신자의 특징을 이루는 선한 행실을 했다는 평판을 듣는 사람이라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며”라는 말은 의심할 바 없이 이 사람은 그 자신과 믿는 그 가정이 신뢰할 만하다는 점이 나타나도록 자녀들을 길렀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만으로는 대단한 일이 못되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훌륭한 덕이 된다.

경건한 과부를 나타내는 표시로는 또 나그네를 대접했느냐가 있다. 신약성경에서는 거둬 거둬 접대의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하라고 권면한다.

집을 찾아온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의 의무였다. 그러므로 여기에 담긴 교훈은 의심할 바 없이 참 과부는 함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매우 굽은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말은 영적인 면으로 성도들의 발을 씻기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데,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공적인 사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가정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믿는 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더럽혀진 부분들을 씻어줄 수가 있는 것이다.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병이 든 사람들이나 슬퍼하는 사람, 또 그 외에 근심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행위를 가리킨다.

간단히 말해 지역교회의 명부에 오르기 위해서 이 과부는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우리말 성경에는 “부지런히”가 없음-역주) 좇은 자라야 한다.

5:11 이것은 난해 구절이지만,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분별된다. 일반적으로 젊은 과부를 지역교회가 떠맡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젊기 때문에 그들은 재혼하기를 바랄 것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는 잘못이 아닐는지 몰라도 결혼하려는 욕망이 너무 강해진 나머지 이 젊은 과부들 중에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고 했다. 이방인과 결혼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 젊은 과부는 결혼하기 십상이다. 물론 이렇게 한다면 그 과부를 도와주던 지역교회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5:12 여기서 “정죄”(condemnation; 흠정역에서는 “저주”[damnation]로 나옴; 우리말 성경에는 “심판”으로 나옴-역주)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젊은 과부가 자기 처음 믿음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심판 혹은 정죄를 받는다는 뜻이다. 한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과 헌신을 다 바치겠노라고 고백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자 처음에 그리스도께 했던 서약이나 맹세를 잊어버리고 그 불신자와 함께 떠남으로써 하늘에

계신 신랑을 배반하고 만다.

바울은 젊은 과부들이 혼인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지 않다. 사실 그는 혼인하라고 강권하고 있다(14절). 그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쇠퇴하는 것이며, 남자를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는 것이다.

5:13 지역교회가 젊은 과부들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전적으로 떠맡는다면 그들을 게으르게 만들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 그 여자들은 자기 책임을 이행하기보다는 명령된 펴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할지도 모른다. 지역교회에서 취하는 어떤 조치라도 이런 행동을 조장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에 손상을 가하기 때문이다.

5:14 그러므로 바울은 일반 원칙으로써 젊은 과부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책망 받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고 있다. 물론 바울은 젊은 과부들이 다 재혼할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보통은 남자 쪽에서 먼저 주도권을 쥐고 결혼을 추진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은 가능하다면 언제나 따라야 될 일반 원칙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대적, 곧 사단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손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그러기에 바울은 사단이 꾀방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이라도 막아 보려 하는 것이다.

5:15 사도가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 말한 것은 자기 추측이나 막

연한 추리가 아니었다. 그런 일은 이미 일어났던 것이다.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고 했으니 그들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짝을 택했다는 의미이다.

5:16 이제 주제는 믿는 친척들이 자기 집안의 과부들에게 지닌 의무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만일 믿는 남자나¹⁵⁾ 여자에게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과부 친척이 있거든 그 믿는 자는 이 책임을 자기가 져서 교회로 하여금 정말 궁핍하고 아무 친척도 없는 과부들을 자유롭게 돌아볼 수 있게 해야 된다.

3-16절까지의 전 단락은 교회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며, 정상 참작이 되는 상황이나 또는 교회가 할 만한 능력이 된다면 할 수도 있는 성격이 아니다. 본 단락의 길이로 보아 성령님의 마음에 중요하게 여기신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장 무시받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3. 장로들(5:17-25)

5:17 본 장의 나머지 부분은 장로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 “다스린다”는 말은 “인도하다”(JND역)로 번역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는 통치가 아닌 본을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존경이란 말에는 존

15) (5:16) 비평 사본에서 이 구절의 믿는 남자라는 말이 빠진 것은 아마 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이 믿는 여자들이 돌볼 사람은 오직 과부들뿐이라고 말했으니 만무하기 때문이다.

경한다는 뜻 말고도 재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마 15:6). 두 배로 존경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이다. 먼저 이런 장로는 그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또한 그의 시간을 이 일에 전심으로 드린다면 그는 재정적인 도움 또한 받을 자격이 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므로 이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리라.

5:18 장로가 사례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서 성경 두 구절을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신명기 25장 4절에서,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취했다. 18절 말씀은 성경의 영감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흥미로운 구절이다. 바울은 구약에서 한 구절을 택하고, 신약에서 한 구절을 택함으로써 신구약을 동일한 수준에 두고 있으며 둘 다 성경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은 신약의 글들을 구약과 동등한 권위가 있는 것으로 여겼음이 명백하다.

이 성경에는 추수할 때 사용하는 소에게 그 받을 몫의 곡식을 빼앗으면 안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또 일꾼은 자기 수고한 열매의 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장로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는 일이 육체노동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5:19 장로는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의 특별 표적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장로들을 거짓 송사로부터 지키시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두세 사람의 증거가 합하지 않으면 장로에 대한 송사는 일체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 놓으신 것이다. 실제로 이 원칙은 교회 지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장로가 부당한 고소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5:20 장로가 교회의 간증을 손상시키는 죄를 지었음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그리스도인의 봉사와 관련해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든 사람에게 심어 주게 되며, 다른 사람들도 삶 가운데서 죄를 방지하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일부 주석가들 중에는 20절이 특별히 장로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분명 이 원칙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볼 때 장로들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21 지역교회에서 징계 문제를 다룰 때는 두 가지 위험을 피해야 된다. 첫 번째는 편견이며 두 번째는 편벽됨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 판결도 편견대로 하기가 쉽다. 또한 어떤 사람의 재산과 지역사회에서의 위치 혹은 인품 때문에 그 사람을 편벽되어 처리하기도 너무나 쉽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테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함으로써 어떤 사람도 그가 친구라거나 유명한 사람이라 해서 사실이 다 밝혀지기도 전에 판단한다든지 호의를 베푸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매 사건마다 하나님과 주 예수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판단해야 된다. 천사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켜 보는 존재들이므로 교회의 징계문제에 있어서 그들로 완전한 의를 보게 해야 한다.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은 죄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본래의 위치를 지킨 천사들이다.

5:22 저명한 인물들이 지역교회에 들어오면 때때로 이런 사람들을 책임 있는 자리에 빨리 올리려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디모데는 새로 입교한 사람들을 서둘러 분별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를 받고 있다. 디모데는 사람됨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절대 같이 일해서는 안 되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자신도 그들의 죄에 간섭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도덕적으로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정결해야만 했다.

5:23 이 구절이 앞에 나온 구절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사도는 지혜롭게도 디모데가 교회 성도들의 산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다루게 됨으로써 위장에 해가 될 것을 예상했는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디모데는 이 병으로 인해 고생한 최초의 혹은 마지막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보다 유력한 추측으로는 디모데가 오늘날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흔한 일인 식수오염으로 인해 자주 고생했는지도 모른다. 사도의 “물만 마시지 말라”고 한 충고는 디모데가 포도주를 조금도 쓰지 않으면서 물만 써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바울은 그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충고하고 있다. 이 구절은 포도주를 약용으로 쓰는 것을 다루고 있을 뿐이지 포도주 과음이나 중독을 호도하기 위

해서 억지로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된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진짜 포도주며 포도 주스가 아니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당시에 포도 주스가 존재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데 이는 포도 주스는 저온살균법으로 제조하며 이 제조법은 그때 당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짜 포도주라는 사실은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표현에도 암시되어 있다. 만일 진짜 포도주가 아니라면 조금씩 쓰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 구절은 신유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고 있다. 바울은 사도로서 온갖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었을 터이지만 그 능력을 늘 쓰지는 않았다. 여기서 바울은 위장병의 경우 약을 써도 무방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5:24 이 구절에서 사도는 22절의 논의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그는 디모데에게 함부로 서둘러서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지 말라고 경계했다. 24절과 25절은 거기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며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 죄들은 나팔수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그 사람 앞에서 울리며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심판을 받을 때까지 줄곧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죄를 지은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야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는 온 동네가 다 아는 술주정뱅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다른 여자와 은밀히 정을 통하는 남편도 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모를 수 있지만 혼

히 보면 나중에 이 추문(醜聞)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다.

5:24 선한 사람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어떤 사람들은 당장 선을 행한 것이 드러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다 은밀하고 겸손하게 선을 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실제 선행이 알려지게 된다. 우리 눈에는 선행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중에 가서 드러나는 것들도 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은 어떤 사람들을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 진짜 사람됨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다.

4. 종과 상전(6:1-2)

6:1 이제 우리는 종(노예)의 행실에 대해 보게 된다. 이 사람들은 명에, 즉 종의 신분이라는 명에 아래 있는 사람들로 말씀하고 있다. 사도는 먼저 구원받지 않은 상전을 모시고 있는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경우 종들은 자기 주인에게 무례하게 굴어야 될까? 반역하거나 도망을 가야 할까? 할 수만 있으면 일을 적게 해야 될까? 아니다. 그 반대로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 이것은 종들이 자기 상전을 마땅히 공경하고 순종적으로 또 충성스럽게 일해야 되며, 기본적인 자세가 어떻게든 주인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방해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근면하게 봉사하는 동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생각하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종이 무례하고 반항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상전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훼손할 것이다. 그는 믿는 자들은 쓸모없는 존재들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인 노예들이 일반적으로 안 믿는 노예들보다 노예시장에서 더 높은 값이 붙었다는 사실을 밝혀 주고 있다. 만일 어떤 상전이 경매장에 나온 노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는 기꺼이 돈을 더 주고 그 노예를 샀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 노예가 자기를 충성스럽게 잘 섬기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높은 찬사다.

이 구절은 사람의 지위가 그 사회에서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증거하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준다.

노예제도는 신약성경에서 공개적으로 정죄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이 퍼짐에 따라서 노예에 대한 학대는 폐지되었다.

참 신자라면 누구나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신자는 값 주고 사신 바 된 존재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인이시다. 그리스도는 신자의 영과 혼과 몸의 주인이시며 그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이 취하셔야 마땅하다.

6:2 이 구절은 믿는 상전이 있는 종들을 다루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종들에게는 자기 상전들을 경히 여길 유혹이 대단히 컸을 것이다. 지역교회가 주의 날 저녁에 떡을 떼려 하여 함께 모일 때 (행 20:7), 만찬상 주위로 믿는 상전과 믿는 종들이 앉았을 것이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였다. 그러나 이 때문에 종들이 실제적인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상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종인 그가 상전을 공경하

고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전이 믿는 자요 사랑 받는 자라는 사실이 그 종으로 하여금 상전을 충성스럽게 섬기게 만드는 동기가 되어야 했다.

그리스도인 상전들은 여기서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로 나올 뿐 아니라 유익을 받는 자들로 또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전들도 구원의 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분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종과 상전 모두가 이익을 끼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섬겨야 되며 서로 도우려고 힘써야 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는 말은 의심할 바 없이 앞 구절에서 믿는 종들에 대해 교훈한 말씀을 가리킨다. 오늘날 시대에 비춰 보면 물론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거짓 교사들과 돈을 사랑함 (6:3-10)

6:3 이제 바울은 새롭고 이상한 교훈을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할 사람들에게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 사람들은 바른 말에 착념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여기서 바른 말은 건강하게 해주는 말을 의미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그랬고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또한 그러하다. 신약성경에서 보게 된 가르침 전부가 또한 그러하다. 이 가르침은 경건에 관한 교훈인데 이는 그 가르침이 경건한 행실을 하도록 격려하고 또한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6:4 바른 말에 착념치 않는 그 사람들은 교만하다. 그들은 남보다 지식이 더 뛰어난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좋아한다”(dote)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병적으로 좋아한다”(morbid)는 뜻이 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며 앞 구절에 나온 것과 같은 건강한 말을 가르치는 대신에 병든 성도를 만들어내는 말을 가르친

다. 이들은 영적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말에 변론과 언쟁을 일삼는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성경의 교훈에 대한 문제들이 아니므로 그 변론과 언쟁을 결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가르침은 투기와 분쟁과 훼방과 악한 생각이 나게 만든다. 렌스키(Lenski)는 이렇게 말했다.

“변론과 언쟁을 하는 가운데 한쪽이 한쪽을 시기하게 되는데 이는 상대방의 말솜씨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들이 서로 겨루고 상대방의 말을 반박함으로써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참람한 말도 나오게 되는데, 즉 거룩한 말로 서로 비난을 일삼게 되고 만다.”¹⁶⁾

6:5 이 다툼은 부패한 마음, 곧 병든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렌스키는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마음이 병들면 타락과 분열이 일어난다. 즉 정신기능이 도덕적인 분야와 영적인 분야에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모든 실제 사실과 그 사실의 분명한 제시는 받아들여져야 마땅하며, 특히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하는 사실들은 응당 그러한 결과를 얻어야 될 것이다. 반면 모든 거짓말과 위선, 패역은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며 무엇보다도 도덕적, 영적인 분야에서는 더욱 마땅히 버려져야 옳다. ‘진리’를 만나면 타락한 마음은 반대할 뿐이며 또 어떻게든 반대만 하려고 애를 쓴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만나면 그 눈에는 이 거짓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보이며 또 어떻

16) (6:4) R.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St. Paul's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to Timothy, to Titus and to Philemon*, 700쪽.

게든 그 이유를 받아들여려고 애를 쓴다.”¹⁷⁾

이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한 때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나마 한 때라도 있었던 진리까지도 빼앗기고 말았다.

이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택하는 것은 일을 적게 하면서도 좋은 보수를 받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일을 돈 버는 재주 정도로 만들어 버린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사역자인 척 하지만 진리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샅꾼인 목자가 생각날 뿐 아니라, 기독교계에 너무나 만연한 상업주의를 떠올리게 된다. 면죄부나 복권을 팔고, 바자회나 물건 판매를 일삼는 것 등이다. 이런 자들로부터 “돌이키라”고 했다.¹⁸⁾ (흠정역에는 나오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없음-역주). 우리는 이런 경건치 못한 거짓 신자들을 피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6:6 앞 구절이 이익에 대한 그릇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이 구절은 이익이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지족하는 마음과 경건을 합하면 큰 이익이 된다. 만족이 없는 경건은 반쪽짜리 간증만 보이게 할 것이다. 경건이 없는 만족은 기독교인 지 아닌지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참된 경건을 가지는 동시에 자신의 개인적인 환경에 만족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이상이다.

17) (6:5) R.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St. Paul's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to Timothy, to Titus and to Philemon*, 701,702쪽.

18) (6:5) 비평 사본에는 이 문장이 빠져 있다.

6:7 본 장은 주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매우 유사하다. 7절을 보면 우리가 일상의 필요를 얻기 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뢰해야 된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오른다.

우리가 빈손이 될 때가 인생에는 세 번이 있다. 낄 때와 예수님께 나아올 때, 그리고 죽을 때다. 이 구절은 처음과 마지막의 빈손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관 실는 수레 위에 내 시신을 올려놓고 운구하되 내 손은 천으로 싸지 말고 바깥으로 내놓아서 빈손임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라.”

베이츠(Bates)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 한 때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활(笏)을 흔들던 그 손이, 한 때 최고 승리자의 검을 쥐었던 그 손이, 한 때 금과 은으로 가득했던 그 손이, 한 때 사람을 죽이고 살리라는 신호를 내는 권세가 있던 그 손이 이제 빈손이 되고만 것이다.”¹⁹⁾

6:8 지족하는 마음이란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으로 만족하는 마음이다. 우리 천부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또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대부분 불신자의 생활은 먹는 것과 입는 것 주위를 다람쥐 쳇바퀴처럼 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활필수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19) (6:7) 베이츠(Bates), 추가 문헌 고증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입을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의복을 의미하지만 입는 옷 말고도 살 집도 더불어 의미할 수 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살 처소에 만족해야 된다.

6:9 9-16절은 부자가 되려는 채울 길 없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들의 죄는 부자인 것에 있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탐하는 데 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살 집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욱 더 가지려고 작정한 자들이다.

사람이 부하려 하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과 때로는 난폭한 방법까지도 쓰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런 방법에는 도박, 투기, 사기, 위증, 절도, 심지어 살인까지도 들어간다. 이런 사람은 또 울무, 또는 밧에 빠지게 된다. 부자가 되려는 갈망은 너무나 강해져서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게까지 된다. 자기 은행 계좌의 돈 액수가 얼마큼 되면 그만 두겠다는 약속을 자신에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멈출 수가 없다. 그 목표에 도달하면 더 갖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돈 별기를 원하면 걱정과 두려움도 더불어 찾아오는데 이것들이 영혼을 움아매고 만다. 부자가 되려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리석은 정욕에 떨어진다. “존스네 집만큼은 살아야지” 하는 욕망이 생긴다.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 중 일부를 희생하는 데까지 흔히 이르게 된다.

그들은 또한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재물을 탐하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영혼을 위협에 빠뜨리게 된다. 진실로 이것은 이들이 표류하다가 이르게 되는 종말이다. 이들은 물질에 마음이 너무나 빠

앗긴 나머지 침륜과 멸망에 빠지고 만다. 끊임없이 황금을 좇아 다니느라 불멸하는 자기 영혼은 등한히 한다.

반즈(Barnes)는 이렇게 썼다.

“그 멸망은 철저하다. 행복과 덕과 명예와 영혼까지 철저하게 파괴되고 만다. 부자가 되려는 강한 욕망이 온갖 어리석음을 불러오고 이것들은 여기와 또 앞으로 있게 될 곳의 모든 것을 파멸시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하고 말았던가!”²⁰⁾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우주의 악이 다 돈을 사랑함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온갖 악을 부르는 중요 근원의 하나임이 틀림없다. 예를 들어 돈을 사랑함은 시기와 분쟁과 절도와 부정직, 방종, 하나님에 대한 망각, 이기심, 횡령 등을 불러오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다. 돈은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쓰일 수 있으며 이렇게 할 때 오직 선한 결과만 나오게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서 죄와 수치를 부르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무분별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할 때 따르는 특별한 악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 곧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황금을 찾아 미친 듯이 다니다가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게을리 하게 되며,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아보기조차 어렵게 된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가치관을 놓치고 말았을 뿐 아니라 많은 근

20) (6:9) 알버트 반즈(Albert Barnes)의 ‘신약주석: 데살로니가서, 디모데서, 디도서, 빌레몬서’(Notes on the New Testament: Thessalonians, Timothy, Titus, Philemon,) 199쪽.

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다. 부를 탐하는 것과 연관된 근심들을 생각해 보라! 낭비된 인생의 비극이 있다. 자기 자녀를 세상에게 빼앗기는 슬픔이 있다. 자기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것을 보는 슬픔도 있다. 구원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빈손으로 하나님을 뵈는 두려움이 있다.

여기에 대해 J. C. 라일(Ryle) 감독은 다음과 같은 요약을 내놓고 있다.

“돈은 사실 가져도 가장 만족을 주지 않는 것 중 하나다. 물론 돈은 염려를 얼마간 가져간다. 그러나 가져간 만큼 근심도 가져다준다. 돈을 벌려면 고생한다. 그것을 지키려면 걱정이 생긴다. 돈을 사용할 때는 시험이 일어난다. 돈을 남용하면 죄책감이 든다. 돈을 잃으면 슬픔이 찾아온다. 돈을 처리하려면 곤혹스럽다. 세상의 모든 분쟁과 다툼과 소송 중 삼분의 이는 한 가지 단순한 이유로 인해 생겨난다. 그것은 바로 돈이다!”²¹⁾

다음은 고(故) 하워드 휴즈(Howard Hughes)에 대한 뉴스 기사를 발췌한 글이다.

“한 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어떤 사람은 유정(油井)과 정유공장, 유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소유했으며 호텔과 생명보험회사, 금융기관, 항공기 제조회사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700에이커의 저택을 경호원과 사나운 개, 철장, 조명등, 경종과 싸이렌으로 둘러쌌다. 그는 비행기와 선박, 마약을 두려워한 것 말고도 질병과 고령, 무력함, 죽음을 무서워했다. 그는 외롭고 우울했으며 돈이 행복을 사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²²⁾

21) (6:10) 라일(J. C. Ryle), *Practical Religion*, 215쪽.

22) (6:10) 고(故) 하워드 휴즈(Howard Hughes)에 대한 뉴스 보도에서.

7. 끝으로 디모데에게 내리는 명령 (6:11-21)

6:11 여기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호칭은 구약에서 선지자에게 흔히 붙여졌으며 행동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묘사하는 말이었다. 이 호칭은 디모데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가리키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나오는 “불법의 사람”이다. 그 불법의 사람은 죄의 화신일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생각하게 할 것이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 즉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디모데는 “교만을 버려야 했고”(4절; 흠정역은 “...로부터 도망가라”로 되어 있음-역주), 음란을 버려야 했으며(5절), 지족할 줄 모르는 마음(9절)과 돈을 사랑함(10절)을 버려야 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닦아 나가야 했다. 이것이 그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이루는 요소의 일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나와 있다.

의는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공정하고 청렴결백한 것을 말한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믿음은 신실함 혹은 신뢰할 만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인내는 시험받을 때도 불변하는 것 혹은 견뎌냄을 의미하며 온유는 친절하고 겸손한 성품이다.

6:12 디모데는 피하고 따를 뿐 아니라 또한 싸워야 했다.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전쟁터에서 따온 것이 아니며 운동시합에서 따왔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위한 싸움과 그와 연관된 경주를 말한다. 디모데는 이 경주를 잘 해야 했다. 그는 영생을 취해야 했다. 이것은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원은 이미 그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에 담긴 교훈은 이미 자기 것이 된 영생을 매일의 실제 삶 가운데서 실천을 통해 보여주라는 것이다.

디모데는 구원받았을 때 영생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또한 그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이것은 그의 침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침례 받은 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거한 모든 증거를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다.

6:13 이제 사도는 디모데에게 엄숙한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이것을 두 분의 크신 증인 앞에서 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 명령은 만물을 살게 하시는(gives life) 하나님 앞에서 명한 것이다.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쓰면서 바울은 혹 언젠가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을 기억하는 것이 이 젊은 군사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겠는가. 사람들이 디모테를 죽이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이 명령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리고 있다. 그분은 선한 증거의 위대한 분이시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셨다. 이것이 로마 총독 앞에서 구주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것을 언급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특별히 그분이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친히 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나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 흔들림 없는 주님의 증거가, 진리를 증거할 때 따라야 될 본으로 제시되어 있다.

6:14 디모테는 “이 명령을 지키라”는 명을 받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위에서 언급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한 명령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이 서신에서 디모테에게 내린 모든 명령을 가리킨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명령은 복음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믿기로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지키라는 명령이다.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라는 표현은 그 명령 자체보다는 디모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 명령을 준수함에 있어 디모테는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는 간증을 유지해야 했다.

신약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충성한 것은 그

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받을 것이다. 이러한 보상은 주 예수께서 자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지상에 재림하실 때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충성과 불충의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이다.

6:15 이 구절과 다음 구절에 나오는 대명사들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그 자체로 볼 때 15절은 주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보이는데 이는 계시록 17장 14절에서 그분을 일컬어 분명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기 때문이다. 한편 16절은 특별히 성부를 언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어느 쪽이든 간에 15절의 의미는 이것이라고 생각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려 오실 때에, 사람들은 누가 복되시며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그 때 주님이 참된 왕이심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주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시는 분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시다. 그러나 장차 한 날이 오리니 그 때에 주 예수님은 모든 다스리는 자 위에 계신 왕이시며 모든 다스리는 자들 위에 계신 주님이심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복되시다”는 것은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모든 복을 충만히 갖고 계신 분이심을 또한 의미한다.

6:16 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 예수님만이 오직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의미한다.

천사들은 죽지 않으며, 부활 때에 믿는 자들은 죽지 않는 몸을 받게 되지만(고전 15:33,54), 오직 하나님만은 본래부터 그 안에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밝고 빛나는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날 때부터의 상태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이 빛에 의해 증발되고 말 것이다. 오직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신바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다가가도 멸망당하지 않을 뿐이다.

하나님은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사람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다. 구약에서 사람들은 현현(顯現)이라고 알려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완전하게 나타내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이분께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림이 합당하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므로써 디모데에게 내리는 자신의 명령을 끝맺고 있다.

6:17 바울은 앞에서 부자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세히 말씀했다. 여기서 사도는 이미 부한 자들을 다루고 있다. 디모데는 이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도록 해야 했다. 이것은 부자들이 당하는 시험이다. 그들은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상스럽고, 교양 없으며, 신사적이지 못한 사람들로 여기기 십상이다. 물론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처럼 돈 많은 것이 하나님께 복 받았다는 표

시가 아니다. 부가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였던 것과 달리 새로운 경륜의 큰 축복은 환난이다.

부자들은 문자 그대로 “확실치 않은 부”(우리말 성경에는 “정함이 없는 재물”로 나옴-역주)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우리말 성경에는 “소망을 두지 말라”로 나옴-역주). 돈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이 많으면 안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살아 계신(우리말 성경에는 ‘살아 계신’이 없음-역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권면을 듣고 있다. 부의 큰 올무 중 하나는 부를 소유하면 그 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부(富)는 정말이지 일종의 우상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말은 호화로운 생활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하나님은 모든 참된 즐거움의 근원이시며 물질은 이것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6:18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진 돈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이 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청지기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는 이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쓸 책임이 있다. 그는 이 돈을 선한 사업을 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눠주는데 사용해야 한다.

존 웨슬리의 생활 규칙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에 의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써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이었다.

“나눠주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자기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6:19 이 구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써서 영원한 배당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돈을 주님의 일에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

6:20 이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을 보게 된다. 디모데는 부탁받은 것을 지키라는 권면을 듣고 있다. 이것은 아마 기독교 신앙의 참 교훈을 언급하는 것이리라. 여기서 이것은 디모데의 영혼 문제나 구원 문제에 의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진리에 대한 것이다. 은행에 맡겨 놓은 돈처럼 디모데에게 부탁한 진리는 “전체가, 온전하게, 아무 손상 없이” 보존되어야 했다.

그는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해야 했다. “허한 말” 혹은 “재잘거림”은 아무 유익이 없는 문제들에 대한 공허한 이야기다.

바울은 디모데가, 참된 지식으로 가장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계시를 반대하는 가르침을 많이 접하게 될 것을 알았다. 모울(Moule) 감독은 다음과 같이 썼다.

“바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제자들을 이끌어 ‘평범한 신자들의 무리를 지나서 더 뛰어나고 은사 있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이르게 하며 거기서 이들은 존재의 신비를 알게 되며 그런 것

을 알게 됨으로써 물질의 노예생활에서 해방되고 영계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²³⁾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디모데는 돌아서야 했다.

아마도 이것은 먼저 오늘날로 말하자면 ‘크리스찬 사이언스’와 같은 잘못된 이단들을 언급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무리는 성격상 기독교라고 하며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거짓되어 일컫는 지식일 따름이다. 이들은 기독교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갖가지 형태의 자연과학²⁴⁾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과학의 참된 발견 중에는 성경과 모순되는 것은 절대 없게 마련인데 이는 과학의 모든 비밀은 성경을 기록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두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위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증명되지 않은 이론일 따름이다. 성경과 모순되는 그러한 가설은 그 어떤 것이든지 버려야 마땅하다.

6:21 바울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믿음에서 벗어났음을 알고 있었다. 본 장을 끝맺고 있는 이 구절들은 소위 지성주의, 합리주의, 현대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온갖 “주의”와 같은, 기독교를 멸시하거나 희석시키는 큰 위험들을 보게 하고 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은 바울의 “트레이

23) (6:20) 모울(H. C. G. Moule), *Studies in II Timothy*, 91쪽.

24) (6:20) 라틴어 *scientia*는 단지 “지식”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나온 영어 단어 “science”(1611년판 흠정역)는 오늘날 훨씬 더 좁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새 흠정역에서는 다른 단어로 바꾸었다.

드마크'이다. 그가 이 말을 늘 쓰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백성들을 “곧고 좁은 길’을 가도록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참고 문헌 목록

Bernard, J. H. The Pastoral Epistl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9.

Erdman, Charles R. The Pastoral Epistles of Pau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23

Fairbairn, Patrick.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Edinburgh: T. & T. Clark, 1874.

Guthrie, Donald. The Pastoral Epistles, (TBC).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7

Hiebert, D. Edmond. First Timothy. Chicago: Moody Press, 1957.

Hiebert, D. Edmond. Second Timothy. Chicago: Moody Press, 1958.

Hiebert, D. Edmond. Titus and Philemon. Chicago: Moody Press, 1957.

Ironside, H. A. Addresses, Lectures, Expositions on Timothy, Titus, and Philemon. New York: Loizeaux Bros., 1947.

Kelly, William. An Exposition of the Epistle of Paul to Titus. London: Weston, 1901.

Kelly, William. An Exposition of the Two Epistles to Timothy,

3d Ed. Oak Park, IL: Bible Truth Publishers, n.d.

Kent, Homer A. *The Pastoral Epistles*. Chicago: Moody Press, 1958.

King, Guy H. *A Leader Led: A Devotional Study of I Timothy*. Fort Washington, Pa.: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44.

King, Guy H. *To My Son: An Expository Study of II Timothy*. Fort Washington, Pa.: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44.

Lock, Walt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ICC)*. Edinburgh: T. & T. Clark, 1924.

Moule, H. C. G. *Studies in II Timothy*.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77.

Plummer, Alfred. *The Pastoral Epistles*. New York: George H. Doran Company, n.d.

Smith, Hamilton. *The Second Epistle to Timothy*. Wooler, Northumberland, England: Central Bible Hammond Trust Ltd., n.d.

Stock, Eugene. *Plain Talks on the Pastoral Epistles*. London: R. Scott, 1914.

Van Oosterzee, J. J. "The Pastoral Letters."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Vol. 23.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n.d.

Vine, W. E. *Exposition of the Epistles to Timothy*. London: Pickering & Inglis, 1944.

Wuest, Kenneth S. *The Pastoral Epistles in the Greek New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3.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서론

“디모데후서는…팔레스타인 밖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 하나님의 모임을 땅 위에 개척하고 세운 그(바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며 이 편지는 교회의 실패와 그가 교회를 세울 당시 토대로 삼은 원칙으로부터 교회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쓰여졌다.”—J. N. 다비

1. 정경에서 차지하는 고유한 위치

대개 유명한 사람들의 유언은 그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게 마련이다. 디모데후서는 엄격히 말해 바울의 유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진 그의 마지막 글이며 원래는 그가 사랑하던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다.

천장에 난 구멍으로만 햇빛이 들어오는 로마의 습기찬 지하 감옥에 앉아 참수형(斬首刑)을 기다리던 신령하고 지적이며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도는 이제 나이도 들고 또 하나님을 위해 오랫동안 열심을 다해 경주했던 탓에 기력도 쇠하여진 가운데 디모데가 배운 진리와 생명을 굳게 붙잡으라는 마지막 권면의 글을 쓰고 있다.

여러 ‘후서’와 같이 디모데후서도 말세의 거짓 교사들과 배도자들을 다루고 있다. 디모데후서(베드로후서에 대해서는 더욱 심하다)의 진본 여부에 대해서 쏟아지는 전면 공격의 대부분은 이러한 부정적인 이론을 설파하는 회의적인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 종교를 걸치장거리

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정죄를 스스로 받았기 때문이며, 이 죄에 대해 바울은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3:1-9).

2. 저자

디모데후서의 저자 문제에 대해서는 목회서신 서문을 보라.

3. 기록연대

디모데후서는 감옥에서(전통적으로 로마의 매머타임[Mamertime] 감옥이었다고 믿어지며 이곳은 지금도 관광객들에게 전시되고 있다) 쓰여졌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사자에게 던지거나 십자가형에 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수형이라는 “혜택”을 입었다. 바울은 주후 68년 6월 8일에 죽은 네로 치하에서 죽임을 당했으므로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시기는 67년 가을과 68년 봄 사이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4. 주제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2장 15절에 잘 표현되어 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교회)에서의 행실을 강조하고 있는 디모데전서와는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개인적인 책임과 행동이 두드러진다. 이 주제를 “대다수가 실패하는 시대에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편지에는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실패가 많이 나온다. 대다수가 믿음과 진리로부터 멀찌감치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자 개인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신자 개인은 진리를 붙들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일까? 디모데후서의 답은 “아니다”이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고 있다.

바벨론 궁궐의 젊은 다니엘이 처한 상황(다니엘 1장)이 여기에 대한 실례가 된다. 이스라엘의 악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여러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이들은 유대교의 외형 전부를 빼앗겼는데 곧 제사며 제사장의 섬기는 것이며 성전 예배 등이었다.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은 얼마 안 있어 완전히 중지가 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몇 년 뒤 예루살렘이 휘파되고 온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잊어버리고 여기 바벨론의 관습과 기준과 도덕을 따르는 편이 낫겠구나”라고 말했던가? 여기에 대해 역사는 외관상 너무나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같이 보이던 환경 가운데서 그가 보여준 놀라운 믿음의 삶을 통해 찬란하고 빛나는 답을 전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의 메시지는 오늘날 대다수 교회의 간증이 신약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단순함과 거룩함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음을 목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 각자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 책임이 있다고 말이다(딤후 3:12).

5. 개요

1. 디모데에게 전하는 인사(1:1-5)
2.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1:6-2:13)
 - (1) 충성하라(1:6-18)
 - (2) 인내하라(2:1-13)
3. 충성 대 배도(2:14-4:8)
 - (1) 참 기독교에 충성하라(2:14-26)
 - (2) 다가오는 배도(3:1-13)
 - (3) 배도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대책(3:14-4:8)
4. 개인적인 요청과 언급(4:9-22)

1. 디모데에게 전하는 인사 (1:1-5)

1:1 바울은 편지 첫머리부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고 있다. 그는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봉사를 하도록 세움을 입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세움은 사람에게 의한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었으며 직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 약속과 조화를 이룬다. 사실 이 약속이 없었다면 바울과 같은 사도는 전혀 필요 없었을 것이다.

바인(Vine)이 옮긴 대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이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¹⁾

V. 폴 플린트는 이 서신에서 다섯 번 언급된 생명에 대해 설명하면서 “1장 1절-생명의 약속; 1장 10절-생명의 제시; 2장 11절-생명에 참여; 3장 12절-생명의 본; 4장 1절-생명의 목적”이라고 했

1) (1:1) W. E. Vine, 디모데서 주석, 60,61쪽

다.

1:2 디모데를 가리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 실제로 구원받았다고 분명하게 증거할 길은 없다. 두 사람의 만남을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곳은 사도행전 16장 1절이며 여기서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이미 제자였다고 묘사하고 있다. 어쨌든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를 사랑하는 아들로 여겼다.

디모데전서에서와 같이 바울의 인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의 특징은 은혜와 평강을 빌었던 것이며 이 점은 디모데전서 주석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는 긍휼이라는 낱말을 덧붙이고 있다. 가이 킹(Guy King)은 “은혜는 모든 섬김에 필요하며, 긍휼은 모든 실패에, 평강은 어떤 환경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히버트(Hiebert)는 긍휼을 “자기가 당한 것처럼 동정하는 것으로, 비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라고 정의했다.²⁾

이러한 복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여기서 또 한 번 바울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못지않게 아들도 공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가 나온다.

1:3 그 다음 바울은 자신의 특징대로 감사를 드리고 있다. 이 편지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로마의 지하

2) (1:2) D. Edmond Hiebert, 디모데후서, 26쪽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투옥되었고 지금은 일반 죄수로 취급받고 있다. 기독교 신앙은 로마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탄압을 받고 있었으며 이미 많은 신자들이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 모든 면에서 불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데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내가 감사한다!”는 말로 시작할 수 있었다.

사도는 지금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고 있었으며 이는 자신의 유대인 조상들이 했던 대로였다. 그의 조상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했고 그분을 섬기려 애를 썼다. 그들은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언급한대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믿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더 나아가 사도행전 26장 6-7절에서 “이제 또 여기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부활의)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 조상들의 본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가 섬긴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낱말은 충성과 충절을 가리키는 것이었다.³⁾ 그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다.

다음에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기도에 디모데를 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대한 사도는 주님께 기도로 말씀드릴 때마다 자신의 사랑하는 젊은 동역자를 기억했으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신속히 끝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인간적으로 말해서 디모

3) (1:3) 헬라어로는 *latreuo*며 “예배”에 해당하는 *latreia*와 관계가 있다(참고, 영어의 “*mariolatry*”는 마리아 숭배라는 뜻이다).

데만 홀로 남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디모데에게 닥칠 어려움들을 알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믿음의 용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

1:4 디모데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사도 바울은 모울(Motile)의 말처럼 디모데가 보고 싶어 “상사병”이 낫을 정도였다. 이야말로 특별한 사랑과 존중의 표시임이 분명하며 바울의 자비로움과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을 힘차게 증거해주는 것이다.

아마도 디모데가 눈물을 흘린 것은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때였을 것이다. 그의 눈물은 나이 많은 이 동역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히버트는 이 당시에 대해서 바울이 경찰이나 로마의 병사에 의해 디모데로부터 “떼어져 있을 때”라는 분별을 제시했다.⁴⁾ 바울은 이 날을 잊을 수 없었으며 이제 다시 디모데와 같이 있어 자기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는 디모데가 남자답지 못하게 눈물을 흘린다고, 혹은 기독교는 감정과 무관하며 꾸짖지 않았다. J. H. 조우엣(Jowett)은 “눈물 없는 마음은 결코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해도 거기서 아파하는 것이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의 종이 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

1:5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떠올렸다. 디모데의 믿음은 진실하고 참되며 어떤 탈도 쓰지 않은 것이었다.⁵⁾

4) (1:4) Hiebert, 디모데후서, 31쪽

5) (1:5) “거짓이 없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는 “위선이 없다”이다. 파생어로서 위선자는 가면을 쓰고(hupo) 대답하는 연극배우이다.

그러나 디모데가 그 집안에서 가장 먼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유대인 외조모 로이스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것이다. 로이스의 딸 유니게도 또한 유대인으로서(행 16:1)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리하여 디모데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들을 배우게 되었으며 그의 집안에서 3대째 구주를 믿은 사람이 되었다. 디모데의 부친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다.

구원은 믿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 온가족이 주께로 돌아온 사례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믿음이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기 바란다. 그 믿음은 어찌다가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었으며 그들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 바울은 디모데 또한 그와 같다고 확신했다. 장차 온갖 환난을 불러올 믿음이었지만 디모데의 믿음은 그 환난 중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짓 없는 믿음이었던 것이다.

2.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 (1:6-2:13)

1. 총성하라(1:6-18)

1:6 경건한 가정 배경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인해 디모데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 일듯 하게 하라는 강한 권면을 받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 어떤 이들은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분별한다. 또 그리스도인의 봉사 영역 중 하나로, 가령 전도자나 목사, 교사 등을 의미한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분명한 것은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 또한 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은사를 불 일듯 하게 하여 그 불꽃이 살아 있게 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그는 자기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하고 있다고 해서 낙담하면 안 되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직업근성에 젖어서 그저 편안한 일상생활에 만족하여 눌러 앉아서도 안 되었다. 오히려 그는 날이 점점 어두워감에 따라 자신의 은사를 더욱 더 사용하려고 힘써야 했다.

이 은사는 사도가 안수함으로 디모데 안에 있게 되었다. 이것을

오늘날 성직자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직 위임식과 혼동해서
는 안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말씀 그대로다. 즉 그 은사가 바울
이 손을 디모데에게 얹음으로써 실제로 주어졌다는 것이다. 사도는
그 은사를 주시는데 있어 통로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의문은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
나느냐?”이다.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안수함으로 은사를 부
여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에게 주신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와 동일한 의미에서의 사도가 없으므로 사도
들이 행하던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 구절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 4장 14절과 더불어 상고해야 한
다. 이 세 구절을 함께 놓고 보면 이 일이 일어나는 순서가 아래에
서 바인(Vine)이 밝힌 바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언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바울은 디모데가 특별한 섬김을 위
해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도 편에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은사를 부여하셨다. 장로
들은 안수함으로써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인정했다. 이 나중
조치는 은사나 성직을 수여하는 성직 위임식이 아니었다.”⁶⁾

스톡(Stock)이 요약한 바와 같이 “그 은사는 바울의 손을 ‘통해’ 왔
지만 장로들의 손과 ‘더불어’ 온 것이었다.”

1:7 순교를 앞두고 있던 바울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비겁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있다. 두려워하거나 겁에 질려
소심해서는 안 되는 시기였다.

6) (1:6) W. E. Vine, 디모데전후서 주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 있는 마음이었다. 무한한 힘이 우리 손에 있으니 이 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는 자는 용감하게 섬길 수 있고, 끈기 있게 참을 수 있으며, 고난을 받아도 승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영광스럽게 순교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고 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바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다. 우리가 기꺼이 온갖 핍박을 참고 도리어 친절로 되갚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전한 마음, 또는 다스리는 마음(우리말 성경에는 “근신하는 마음”으로 나옴-역주)을 주셨다. 건전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담겨있는 가르침을 완벽하게 전달해주고 있지 않다. 이 단어에 담긴 의미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정신이 온전해야 되며, 신경쇠약이나 다른 일체의 정신 질환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 이 구절은 주님과 가까이 사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일체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없다고 가르치는데 흔히들 잘못 사용한 말씀이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많은 정신질환은 유전적으로 허약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 외 다수의 정신질환은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이 다만 신체에 어떤 이상이 생긴 결과일 때가 많다.

이 구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 또는 자기 통제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분별력을 사용하여야지 성급하거나 조급하게, 또는 어리석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불리하게 보이더라도 우리는 균형 잡힌 판단력

을 유지해야 되며 정신을 차려서 행동해야 된다.

1:8 디모데는 “부끄러워 말라”는 말을 듣고 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16절에서 우리는 오네시보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읽게 된다.

그 당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범죄였다. 공적으로 주와 구주를 증거하려던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다. 그러나 이 때문에 디모데가 주춤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 말아야 했으며 비록 고난을 받더라도 그래야 했다.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바울에게 등을 돌린 이들도 있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한 무리임이 드러나면 핍박을 받고 혹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던 것이 분명하다.

디모데는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인내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그는 복음과 관련한 어떠한 수치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바울과 함께 그 수치를 참아야만 했다.

1:9 사도는 디모데에게 열심을 내라고 권면했으며(6-7절), 담대하라고 격려했었다(7절). 이제 바울은 왜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합당한 태도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놀랍게 다루신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하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계속 구하고 계시며 장차 어느 날이 되면 우리를 죄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 건지실 것이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세상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셨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

나눔께서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부르심은 에베소서 1-3장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특히 1장이 그러하다.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예정되었으며, 아들로 삼으신바 되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신바 되었으며,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고, 성령으로 인치신바 되었으며, 또 그분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음을 알게 된다. 이 거룩하신 부르심 외에 우리에게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빌 3:14)과 “하늘의 부르심”(히 3:1)이 있다.

이 구원과 부르심은 우리 행위를 따라 부르심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것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 우리는 이 구원과 부르심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과 부르심을 아무 조건이나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오직 자기 뜻과 은혜대로”라는 말이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사 죄인들을 위해 죽게 하셨던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지옥에서 구해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그래서 영원히 자기와 함께 영원을 보낼 수 있게 하시는 걸까?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은 “자기 뜻과 은혜대로”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이유는 그분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에 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하나

님이시기에 사랑할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분의 은혜는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대속사역을 통해 죄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기로 결심하셨던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하신 방법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계획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다.

1:10 영원 전에 계획된 이 복음이 때가 차매 나타났다. 이 복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계시던 기간 동안 구원의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죽었다가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고 가르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공의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폐하셨다. 그러나 사망이 여전히 세상에 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여기에 담긴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폐지하셨다”, 또는 “그 사명을 끝마치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사망은 잔인한 폭군이 되어 사람들을 다스렸다. 그는 무서운 적이었다. 사람들은 사망을 두려워하여 사망의 종이 되어 살았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시는 죽지 않게 된다는 보증이 되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망을 폐하신 것이다. 그분

은 사망의 썩는 것을 없애버리셨다. 사망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믿는 자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가는 일을 하고 있다. 사망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사망을 폐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구약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후의 삶에 대해 매우 불확실하게, 어슴푸레하게만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이 “스올”(음부)에 있다고 말했는데 “스올”이란 말은 단지 세상을 떠난 영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할 뿐이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기 앞에 천국의 소망이 놓여 있었지만 대부분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믿는 자가 죽으면 그의 영이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며 이는 육신에 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본향에 거하게 된다. 그는 이제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만 드러내셨을 뿐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도 드러내셨다. 썩지 아니할 것은 몸의 부활을 언급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의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라는 말씀을 보면 몸은 비록 무덤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바로 이 몸이 무덤에서 일으키심을 받고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게 될 것이다. 구약의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 지식이 없었다. 이 지식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1:11 바울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반포자와 사

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반포자는 사자이며 그 맡은 소임은 메시지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구비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교사는 그 맡은 소임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즉 그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리를 설명해줌으로써 그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는 일을 한다. “이방인들 중에서”⁷⁾라는 표현은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열방에게 가도록 부여받은 특별한 사역을 강조한다.

1:12 그가 마땅히 행할 의무를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옥고를 치르고 외로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한 적이 없었다. 개인적인 안전을 두려워해 입을 봉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제 체포되어 투옥된 처지가 되었어도 바울에게는 한 점의 후회도 없었다.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디모데도 부끄러워하면 안 되었다. 바울은 자기 일신상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으면서도 자기가 믿은(의뢰한) 분을 철저하게 신뢰했다. 비록 로마가 사도를 죽이는 데는 성공하더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주님에게 손도 댈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기가 의뢰한 자는 능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엇을 하기에 능하시다는 것일까?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신다”고 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의탁한 것”에 대해 주석가들 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이들은 바울의 영혼 구원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복음을 가리킨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 자신은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도 복음만을

7) (1:11) 비평 사본(NU)에는 “이방인들 중에서”라는 표현이 빠져있다.

방해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면 할수록 이 복음은 더 흥왕하리라는 것이다.

아마도 이 표현을 가능한 한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편이 가장 좋을 듯하다. 바울은 자신의 처우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비록 죽음에 직면한 그였지만 추호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전능하신 주님이시며 그분께는 패배나 실패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염려할 것이 전혀 없었다. 바울의 구원은 확실했고, 땅 위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바친 바울의 봉사가 궁극적으로는 성공하리라는 것도 확실했다.

“그 날”은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리키며 또한 그분을 위한 봉사가 검토 받으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사람들의 충성에 대해 상주시는 날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한다.

1:13 이 구절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디모데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만 충성할 뿐 아니라 이 진리를 전달하는 표현 자체까지도 철저하게 고수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여기에 대해 예를 하나 들면 도움이 될 듯하다. 오늘날에는 “거듭나는 것”이나 “예수의 피” 같은 구식 표현을 버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종종 제시되고 있다. 사람들은 보다 세련된 언어를 쓰고 싶어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교묘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성경적인 본을 따른 표현을 버리게 되면 이 표현들이 전해주는 진리 자체까지도 버리게 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바울의 가르친 말씀이 디모데에게는 본의 역할

을 해야 된다는 뜻일 수도 있다. 나중에 디모데가 가르치게 될 모든 것은 그가 받은 가르침의 틀과 일치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사역을 수행해 나가되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해야 했다. “믿음”은 신뢰뿐만 아니라 의지도 의미한다.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과 우리 주위의 멸망해 가는 세상에 대한 사랑도 포함하는 것이다.

1:14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말한다. 대속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디모데에게 맡겨졌다(또는 부탁했다). 디모데더러 여기에 더하거나 개선하라는 말이 일절 없다. 그의 책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키는 것이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진리에서 떠나는 일이 널리 확산되어 이미 교회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다. 도처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공격이 쏟아지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지키라는 권면을 들었다. 디모데는 이 일을 자기 힘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로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1:15 사도는 교회 위에 몰려들어 그 위를 덮고 있는 검은 구름을 생각하면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버렸는지를 떠올리고 있다. 이 편지가 기록될 무렵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체포되어 투옥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했던 것 같다. 그들은 바울

이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를 버리고 말았다.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자신들의 안전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로마 정부는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색출하고 있는 중이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대표자로 가장 잘 알려진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누구라도 감히 여러 사람 앞에서 그와 접촉을 한 사람은 기독교 동조 인물로 즉각 낙인찍혔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나 교회를 버렸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도 없으며, 어떤 암시도 나오지 않는다. 어쨌든 간에 이런 위태로운 시기에 바울을 버린 것은 비겁하며 충성되지 못한 행위였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과 관계를 끊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 두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과 교제를 나누었다가 당하게 될 그리스도의 고난을 거부함으로써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멸시를 자초하고 말았다. 가이 킹(Guy King)은 여기에 대해 “그들은 자신의 그 추한 이름은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그 추한 인격만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1:16 오네시보로에 대한 견해는 두 부류로 나뉜다. 어떤 이들은 그가 바울을 버렸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주께서 저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오네시보로가 방금 설명한 사람들과는 너무나 아름다운 대조가 되는 인물로 언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필자는 후자의 견해가 옳다고 믿는다.

바울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주시라고 기도

하고 있다. 긍휼은 마태복음 5장 7절을 볼 때 그 베푸는 자에게 내리시는 상이다. 우리는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어떻게 유쾌하게 해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 아마도 그는 축축하고 어두운 로마의 감옥으로 음식과 옷가지를 가져다주었는지 모른다. 어쨌든 그는 옥에 갇힌 바울에게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신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울 수 없었을 것이다.

조우엣(Jowett)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탁월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도가 ‘저가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라고 한 말에는 오네시보로의 인격에 대한 아름다운 특징이 담겨있다.…사람이 사슬에 매이면 친구가 줄어든다. 가난이라는 사슬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며, 잃어버린 인기라는 사슬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신망이 높을 때는 친구가 많다. 그러나 사슬을 매기 시작할 때 친구들은 떨어져나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소망의 아침을 전파하는 종들은 밤의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절망이라는 영역, 곧 영혼이 가장 무거운 속박을 당하고 있는 곳에서 섬기는 것을 기뻐한다. ‘저가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사슬은 실제로 그의 마음을 끄는 역할을 했다. 즉 오네시보로의 발을 더 빠르게 했으며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⁸⁾

이 구절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옳다는 잘못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다. 그들의 주장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8) (1:16) J. H. Jowett, Things That Matter Most, 161쪽

무렵 오네시보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며 바울은 하나님께 오네시보로에게 공흠을 베풀어주시도록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오네시보로가 죽었다는 단 한 점의 암시조차도 없다. 이 견해를 따르는 자들은 비성경적인 관습을 떠받치려고 지푸라기를 붙들고 있는 게으른 말쟁이들이다.

1:17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당도했을 때에 그는 적어도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과 일체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었다. 둘째, 믿는 자들을 은밀히 만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감으로써 담대히 자신을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그는 로마 당국과 직접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그는 세 번째 대안을 택함으로써 영원히 칭송받게 되었다. 그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

1:18 사도는 이 신실한 친구가 “그 날”에 주의 공흠을 얻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여기서 공흠은 보상의 의미로 쓰였다. 그 날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을 받는 날,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가리킨다.

이 부분을 매듭지으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네시보로가 예베소에서 이모저모로 자신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상기시키고 있다.

2. 인내하라(2:1-13)

2: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라는 말씀은 그분의 은혜가 공급하는 힘으로 담대해지는 것이며, 주님과 연합함

으로 인해 오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 충성스럽게 전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디모데는 스스로 강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해주어야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도로부터 받은 영감어린 가르침들을 전수할 책임이 있다. 바울은 곧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는 여러 증인 앞에서 디모데를 충성스럽게 가르쳤다. 디모데 자신도 왕성하게 섬길 수 있는 날은 짧았으며 그 역시 자기가 떠난 후 다른 사람들이 계속 교사로 뒤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자신의 사역을 계획해야 했다.

이 구절은 사도직 계승이라는 인식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 이 구절은 오늘날의 성직자 위임 관습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자격을 갖춘 충성된 교사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라고 교회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명령이다.

이 구절에는 다음과 같이 4대에 걸친 신자들이 있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 (1) 사도 바울
- (2) 디모데와 많은 증인
- (3) 충성된 사람들
- (4) 다른 사람들

이 구절에서는 모든 지체들이 전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믿는 자들이 저마다 자기 역할을 정말로 해낸다면 세상은 한 세대가 못되어 복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의지의 패역함, 세속 종교와 이단들의 경쟁적인 “전도”, 그 외의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생각해볼 때 다만 가설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긍

정적인 면에서 볼 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리스도인은 여태까지의 기록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디모데가 진리를 충성된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로서 또한 신뢰할 만한 자들에게 맡겨야 된다는 점을 주목해주시기 바란다.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교사로 섬기려면 마땅히 갖추고 있어야 될 자격요건을 나타내고 있다.

2:3 바울은 본 장에서 디모데를 묘사하기 위해 풍부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았다. (1) 아들(1절); (2) 군사(3,4절); (3) 경기하는 자(5절); (4) 농부(6절); (5) 일꾼(15절); (6) 그릇(21절); (7) 종(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선한) 군사로서 디모데는 고난과 고생을 참아야 한다.⁹⁾ (바울 자신이 겪은 여러 고난의 목록은 고린도후서 11:23-29을 보면 나온다).

2:4 이 구절에 묘사된 군사는 자기 임무에 충실한 군사로서 치열한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군사는 어느 누구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법이 없다.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뜻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 와중에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일해서 필요한 것을 해결한다고 간증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얽매이다”라는 단어이다. 군사는 인생의 일상사들을 주요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군사는

9) (2:3) 비평사본에는 “함께 나눈다”로 나온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을 인생의 주요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언제나 최고의 위치를 차지해야 되며, 반면에 이 세상 것들은 그저 배경으로만 머물게 해야 된다. 켈리(Kelly)는 여기에 대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 세상과 분리되기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¹⁰⁾

근무 중인 군사는 본부에서 하달되는 명령을 항상 대기하고 있다. 그의 바라는 것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물론 믿는 자는 주님께서 군사로 모집하셨으며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꼭 붙들 수 없을 것이다.

2:5 이제 비유는 경기하는 운동선수로 옮겨가고 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운동선수는 경기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도 마찬가지다. 한 치의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승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탈락하고, 실격당하고 마는가!

그리스도인의 봉사와 관련된 규칙 몇 가지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

- (1)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다스려야 한다(고전 9:27).
 - (2)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무기가 아닌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한다(고후 10:4).
 - (3) 그는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야 한다.
 - (4)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오래 참아야 한다.
- 어떤 이는 “자투리 시간만 내는 그리스도인은 그 삶 자체가 잘못

10) (2:4) William Kelly, 디모테전후서 강해, 213쪽.

되었다. 한 사람의 생애 전부는 매 순간 그리고 자신의 삶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힘찬 노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2:6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의의 모든 원리를 따르자면, 곡식을 얻으려고 수고하는 사람이 그 소출에 참여할 우선권을 얻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은 만일 디모데가 혹 주님을 위해 수고하다가 낙담을 할 때 격려하는 일을 맡게 된다. 그런 수고가 상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법은 없다. 비록 장차 많은 사람들이 소출에 참가하겠지만 디모데의 사랑의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진실로 디모데는 자기가 수고한 열매를 먼저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2:7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대한 이상의 세 가지 비유에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 있다. 디모데는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디모데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바울은 주께서 범사에 그에게 총명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¹¹⁾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전투, 운동경기, 농사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직업들은 각기 그 나름의 책임이 있으며 각각 그 받는 보상이 있다.

2:8 여기에 이르러 사도는 젊은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전해주었던 일련의 격려 중에서 최고의 격려를 전하게 된다. 그는 주 예수님의 본까지 이르렀고 더 이상의 높은 수준의 격려를 해줄 수 없게 되었

11) (2:7) 비평사본에는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로 나온다(미래 지시형이지 기도가 아니다).

다. 주 예수님의 본은 고난 뒤에 영광이 오는 데 대한 본이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에 담긴 가르침은 디모데가 주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신 그분 자신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절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요약이다. 그 복음의 핵심은 구주의 부활이다. 히버트(Hiebert)는 여기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디모데 앞에 제시되어 있다”¹²⁾고 썼다.

“다윗의 씨로”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 주신 약속이 그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데 대한 간결한 서술이다.

구주의 성품과 사역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은 특히 그분을 섬기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이다. 특히 고난을 당하고 있고 혹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길과 무덤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광에 이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큰 위로를 받게 된다.

2:9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인 몸이 된 것은 8절에서 간략히 밝힌바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행악하는 자로, 일반 죄인으로 간주되었다. 충분히 낙담할 만한 환경이었다. 로마 정부는 그를 죽이려고 결심했고, 게다가 그리스도인 친구들 중에는 그에게 등을 돌려버린 사람들도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냉혹한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의 행복한 심령은 지하

12) (2:8) Hiebert, 디모데후서, 59쪽

감옥 담장 위로 높이 솟아오르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자신의 우울한 환경도 잊어버렸다. 렌스키(Lenski)가 잘 말한 것처럼, “사도가 살아 있는 동안 외쳤던 그 목소리는 그의 핏속에 묻힐지 몰라도 그의 주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여전히 세상에 널리 울려 퍼지고 있다.” 세상의 모든 군대가 다 동원되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나 눈이 내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하비(Harvey)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은 그 임무를 수행하며 승리의 전진을 한다. 말씀의 수호자들이 투옥되고 순교를 당할 때조차도 그러하다. 사람은 죽지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은 살아서 세세토록 승리한다.”¹³⁾

2:10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성격 때문에 바울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참으려 했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려고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말씀은 없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잃어버린 자들은 본인들의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 잃어버린바 되고 만다.

선택의 교리를 놓고 누구라도 하나님과 싸워서 안 된다. 이 교리는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은혜와 공평과 공의와 사랑을

13) (2:9) Harvey, 추가 문헌고증 불가능

베푸시는 우주의 주재가 되시게 해드릴 따름이다. 하나님은 공평치 않거나 자비하지 않은 일을 결코 하시는 법이 없으며, 오히려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자주 있다.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영혼들이 구원 받고 또 바로 이 영혼들이 훗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죄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된다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위로를 받아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다. 이것을 보며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러더포드(Rutherford)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¹⁴⁾

오, 내 고장 출신의 한 영혼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만나게 된다면
내 천국은 두 개의 천국이 되리,
임마누엘의 나라에서.

2:11 11절에서 13절까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던 찬송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이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세 구절은 사람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변할 수 없는 원리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히버트(Hiebert)는 이렇게 썼다.

“이 간결하지만 힘찬 말에 담긴 핵심 진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믿는 자를 범사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만들며, 반면 불신은 사람을 범사에 그리스도와 분리되게 만든다는 것이다.”¹⁵⁾

14) (2:10) 애송받는 찬송 “임마누엘의 나라”는 Ann Ross Cousin이 작사했지만 사무엘 러더포드의 글에서 문구를 따서 썼다는 말이 있다.

15) (2:11) Hiebert, 디모데후서, 62쪽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네 번째 미쁜 말이다.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산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된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었던 순간에 그분과 함께 죽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분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표자와 대속물로서 죽으셨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어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간주하시며, 이것은 우리가 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다. 죽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또한 그와 같이 부활 때에 그분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이다.

2:12 어떤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참 믿음은 언제나 변함 없이 지속되는 특성이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모든 신자는 참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적해야 될 점은 모든 성도가 똑같은 수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통치를 위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성도가 함께 와서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각 성도의 통치영역은 이 세상에 살 동안 바친 충성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그분도 친히 그들을 부인하실 것이

다. 여기에 담긴 가르침은 베드로의 경우처럼 심한 압력을 받아 잠시 구주를 부인했던 것이 아니라 영구적, 습관적으로 구주를 부인한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낱말들은 불신자를 묘사하고 있다. 단 한 번도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이다. 장차 이런 사람들 모두를 주님이 부인하실 것이며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경건할지라도 관계없이 그리하실 것이다.

2:13 이 말씀도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다. 딘스데일 영(Dinsdale Young)은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께는 자기모순이 있을 수 없다. 신실한 자와 신실치 못한 자를 똑같이 대우하신다면 그분의 성품은 일관성이 없게 될 것이다.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의로우시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그러하시다.”¹⁶⁾

여기에 사용된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데서 나타난다는 가르침을 펴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경우에 맞지 않다. 사람이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품을 변함없이 지키셔야 되며, 따라서 그 사람들을 그 행위에 따라 마땅하게 다루셔야만 한다. 반 우스터지(Van Oosterzee)가 한 말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도 신실하시고 경고하실 때도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다.”¹⁷⁾

16) (2:13) Dinsdale T. Young, *Unfamiliar Texts*, 253쪽

17) (2:13) J. J. Van Oosterzee, “목회서신”,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XI:95).

3. 총성 대 배도(2:14-4:8)

1. 참 기독교에 충성하라(2:14-26)

2:14 디모데는 “저희에게 이 일”, 곧 11-13절에서 말한 일을 기억하게 해야 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저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마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디모데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특별한 의미에서는 이상한 교리를 들여오고 있던 사람들을 가리켰을 것이다. 이것은 이 구절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명백한데, 거기서 교사나 설교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사람들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경계를 받고 있다. 에베소에는 어떤 낱말들의 기술적인 의미에 대해 크게 문제를 삼은 자들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 사람들은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세워주기보다는 자기들의 말을 듣는 자들의 믿음을 망하게 하고 있었다.

딘즈데일 영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신학의 괴짜가 되기는 너무나 쉽다. 즉 우리는 너무나 쉽사리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집착하기 쉽다는 것이다. 인생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분주한 것이기에 두뇌와 마음을 인격 형성과 무관한 데에 낭비할 여유가 없다.

세상이 복음화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하지도 않은 세

세한 교리 문제의 결길로 빠져 그리로 허구한 날 어슬렁거린다든지 아니면 분주히 다닌다면 너무나 온당치 않다. 대로만 따라 가라. 대진리들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 필수적인 것을 강조하고 부수적인 것은 말라. 삼갈과 야엘의 날에 임한 두려움 때문에 대로를 비워두고 소로(삿길)로 다녔던 행인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삿 5:6 참조—역주).¹⁸⁾

2:15 디모데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했다. 그의 노력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데에 쏟아야 했다. 이렇게 하자면 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했다. “분변하며”라는 표현은 “성경을 정확하게 다루는 것”, “줄이 그어진 대로 자르는 것”, 또는 알포드(Alford)가 옮긴 것처럼 “올바로 진리를 완전하게 다루되 속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¹⁹⁾

2:16 망령되고 헛된 말은 경건치 않고, 악하며 무익한 가르침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없고 피해야 마땅한 것이다. 디모데는 이런 가르침과 싸우기보다는 도리어 경멸히 여길 뿐 아니라 행여 주목함으로써 무슨 대단한 것인 양 보이게 해서도 안 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

이 헛된 말쟁이들에게 있어 한 가지 심각한 점은 이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저희는 항상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더 나아간다. 이 점은 온갖 형태의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계속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더욱 더 많이 가르친다. 이것은 거짓 종교단체들이 왜

18) (2:14) Dinsdale T. Young, *The Enthusiasm of God*, 154쪽

19) (2:15) Henry Alford, *The Greek Testament*, III: 384

그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교리와 선언문을 내놓는지를 설명해준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교리적 오류가 확장되면 될수록 경건치 아니함은 더욱 늘어간다.

2:17 악한 가르침이 퍼져 가는 것은 “암”(우리말 성경에는 “독한 창질”로 되어 있음—역주)이 번지는 데에 비유되어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 무서운 병이 어떻게 사람의 신체에 번져서 그 가는 곳마다 조직을 파괴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암”이라는 단어는 “탈저”(脫疽)로 번역할 수도 있다.²⁰⁾ 탈저는 몸 조직의 일부가 사멸하여 피와 영양의 정상 공급이 끊기는 것을 가리킨다.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악한 교리가 누룩에 비유되어 있으며, 이것이 번지도록 그냥 두면 결국 그 음식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역교회를 부패케 하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사람 두 명의 이름이 나와 있다. 그들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였다.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수치의 전당에 들어가 있다.

2:18 두 사람의 그릇된 가르침은 여기에 밝혀져 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다. 아마도 그들의 말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새 생명을 받으면 이것이 바로 유일한 부활이며 그 이상은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부활을 영적으

20) (2:17) 여기서 헬라어는 gangraina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한 창질이라고 번역된 영어단어 gangrene이 최선의 번역이라는 뜻은 아니다.

로 해석했으며 글자 그대로 무덤에서 몸을 일으키신다는 가르침을 비롯했던 것이다. 바울은 이것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해밀턴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면 분명한 것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미 최종적인 상태에 이른 것이 되며 그 결과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지 않게 되고,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진리도 잃어버리게 되며, 이 땅에서 더 이상 나그네와 이방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하늘에 속한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이 땅에 안주하게 되고, 단지 세상을 개혁하고 다스리는 기관의 일부가 되고 만다.”²¹⁾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림으로써 결코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원한 책에 기록되는 것을 자초하고 말았다.

2:19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해 또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어두운 날들이 교회에 닥치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불신자들이 지역교회에 영접되었다. 신령한 삶의 수준이 너무나 낮아진 나머지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저 말뿐인 거짓 신자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흔하다. 기독교계는 별의별 사람들로 뒤섞여 있으며, 그 결과 빛어지는 혼란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는 확신을 통해 위로를 발견한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은 무

21) (2:18) Hamilton Smith, 추가문헌 고증 불가능

엇이든지 교회가 아무리 쇠퇴한다 해도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갖가지 설명이 제시된 바 있다. 어떤 이들은 참된 교회라고 말한다. 또 하나님의 약속, 기독교 신앙, 혹은 선택의 교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주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는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은가!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내보내시면 어떤 것도 이를 막지 못한다.

해밀턴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어떤 실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터를 내버리게 못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일을 막아서 이루시지 못하게 할 수도 없다. … 주의 것이 된 사람들은 비록 큰 무리 속에 숨겨져 있더라도 결코 나중에 잃어버린바 되는 법이 없다.”²²⁾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두 겹의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 측에서의 인치심이 있고 또 사람 측에서의 인침이 있다. 하나님 측에서의 인침이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이다. 주께서는 그 사람들을 아시며 인지하신다는 의미뿐 아니라 인정과 이해하신다는 의미에서 아신다는 것이다. 렌스키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실제적인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말했다.²³⁾

사람 측에서의 인침은 “주²⁴⁾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22) (2:19) Hamilton Smith, 디모데후서, 27쪽

23) (2:19) R. C. H. Lenski, 바울이 골로새와 데살로니가, 디모데, 디도,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해석, 804쪽

24) 24(2:19) 비평 사본과 다수 사본에는 “그리스도” 대신 “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민수기 16장 5절에 가깝게 해준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고백이 실제라는 것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증명할 수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불의와 일체 상관해서는 안 된다.

인은 소유의 표시며 보증과 안전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에 인을 쳤다는 것은 참 신자들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불의에서 떠남으로써 본인들의 새 생명이 실제임을 증명하게 된다는 보증이기도 하다.

2:20 이 비유에서 큰 집은 기독교계 전반을 가리킨다고 분별된다.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계는 믿는 자와 말뿐인 기독교인들까지, 즉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과 그저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금과 은의 그릇”은 그러므로 참된 신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나무와 질그릇”은 불신자 일반을 가리키지만 특별히 행악하는 자들과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 가령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17절).

이 그릇들에 대해 몇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릇들의 재질에 대해 중요한 구별을 해놓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그 그릇들이 사용되는 용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운명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나무와 질그릇은 잠시 후에 버리지만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은 귀히 쓰고 보관한다는 것이다.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고 한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어떤 이들은 천하다는 것이 단지 덜 귀하다는 뜻이라고 분별한다. 그럴 경우, 모든 그릇은 참 신자를 나타

내는 것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귀한 목적에 쓰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천한 목적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다. 귀히 쓰는 그릇은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천히 쓰는 그릇은 후메내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분별하는 이들도 있다.

2:21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란 부분 중에서 이런 것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대체로 결정된다.

이런 것은 나무와 질그릇을 가리키는 걸까? 본 장 서두에서 언급한 거짓 가르침을 가리키는 걸까? 아니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악인을 가리키는 것인가?

가장 자연스런 의미는 이런 것을 천히 쓰는 그릇에다가 연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디모데는 악인에게서 떠나라고, 특히 바울이 방금 언급한 후메내오와 빌레도 같은 악한 교사들에게서 떠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

디모데는 교회를 떠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작금의 기독교계를 떠나라는 가르침을 받은 것도 물론 아니다. 그가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계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행악하는 자들로부터 떠나고 악한 교리에 오염되는 것을 피하라는 문제로 보인다.

만일 사람이 악한 무리들과 교제를 일절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일에 오직 깨끗한 그릇만 쓰실 수 있다. “여호와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사 52:11). 또 이런 사람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되리라는 의미에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것이다. 그는 주인께서 어떻게 명하시든지 관계없이 항상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이다.

2:22 디모데는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될 뿐 아니라 육체의 정욕으로부터도 떠나야 했다. 청년의 정욕은 신체의 욕구뿐만 아니라 돈, 명예, 쾌락에 대한 정욕도 가리키는 것으로 분별된다. 여기에는 또한 이기주의, 인내하지 못하는 것, 교만, 경거망동하는 것 등도 포함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디모데는 이 무렵 삼십오세가량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의 정욕이 꼭 십대들의 특징을 이루는 정욕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또 순결하고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욕망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디모데는 피해야 할 것도 있었지만 또 따라야 할 것도 있었다. 부정적, 긍정적인 측면 모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를 좇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같은 인간들,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늘 정직하고, 공평하게, 또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그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은 신실함, 혹은 절대적인 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기에는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는 것도 들어간다. 히버트(Hiebert)는 믿음을 “진실하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²⁵⁾

“사랑”은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만 한정할 수 없으며 형제들과 잃어진 죄인들의 세상까지도 포함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사랑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준다. 그러므로 사랑은 반드시 이타적(利他的)일 수밖에 없다.

“화평”에는 조화와 상호 원만한 관계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한 덕목들 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 21절에서 디모데가 악한 자들로부터 떠나라는 경계를 받은 것처럼 여기서는 주님 앞에서 순전하게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사귀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는 혼자 고립된 채 그리스도인다운 덕행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몸의 한 지체로서 나뉠의 역할을 맡고 그 몸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지체된 자들과 더불어 동역해야만 한다.

2:23 그리스도인 사역자로 일하다보면 디모데는 사소하고 어리석은 질문들을 자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질문들은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일어나게 마련이며 그들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하등의 유익도 없는 것들이다. 이런 변론은 거부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다름만 일으킬 뿐이기 때문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와 같은 것들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 대(大)진리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들이며, 원체 어리석은 문제들인 탓에 시간을 낭비하고 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데나 효과가 있을 뿐이다.

2:24 여기서 주의 좋은 문자적으로는 주의 노예다. 이 호칭이 본

25) (2:22) Hiebert, 디모데후서, 76쪽

구절에서 사용된 것은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구절에서 온유하고 또한 인내하라는 권고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주의 종은 진리를 위하여 싸워야 마땅하지만, 말다툼을 하거나 자기주장을 지나치게 내세워서 안 된다. 오히려 그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해야 하며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잘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해야만 된다. 그는 이해력이 둔한 사람들과 심지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조차도 오래 참아야 된다.

2:25 주님의 종은 거역하는 자를 다룰 때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해치고 만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성경과 일치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부지중에 계속 붙들고 있으므로 여기서 이들을 건져내려면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줄 필요가 있다.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먼저, 이 구절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기꺼이 회개함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부에 대해 일종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듯한 암시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자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하면 이를 거부하시는 법이 없으시지만,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

2:26 주의 종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그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

하게 다름으로써 그들이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지금껏 “마귀에게 사로잡힌바 되어 그의 뜻을 좇았으며” 이것은 곧 “마귀에게 흘렀다’ 또는 “취했다”는 뜻이다(원어 및 흠정역, 기타 역본에는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 나올까 함이라”로 되어 있음-역주).

2. 다가오는 배도(3:1-13)

3:1 사도는 이제 디모데에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 나타날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다. 다음에 나오는 죄의 목록은 로마서 1장의 경건치 않은 이방인들에 대한 묘사와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자주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야만스럽고 문명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교도들 가운데 존재하는 바로 그 상황이 말세에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의 특징이 되리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엄숙한 말씀인가!

여기에 언급된 “말세”는 사도시대와 그리스도께서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타나시기 전 사이에 있는 기간이다.

3:2 다음 구절들을 상고할 때 어김없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을 사랑하며”라는 낱말이 거듭 반복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게 된다. 3절에서 “선한 것을 멸시하는 자”(우리말 성경에는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로 되어 있음-역주)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선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4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는 자”(우리말 성경에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되어 있

음-역주)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2-5절에는 말세의 인간 특징이 열아홉 가지가 나와 있다. 여기서는 그 특징들을 나열하고 나서 각각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동의어들만 나열하도록 하겠다.

자기를 사랑한다-자기중심적이다. 스스로를 높인다. 이기적이다.

돈을 사랑한다-돈을 탐낸다. 탐욕을 부린다.

자궁한다-자랑한다. 허풍이 가득하다.

교만하다-거만하다. 교만하다. 오만하다.

훼방한다-악한 말을 한다. 경건치 않다. 욕을 한다. 입이 더럽다. 멸시하는 말을 한다. 모욕한다.

부모를 거역한다-반항한다. 불효한다. 제어할 수 없다.

감사치 아니한다-배은망덕하다. 고마운 줄을 모른다.

거룩하지 아니하다-경건치 않다. 불경건하다. 경외할 줄 모른다. 전혀 거룩한 면이 없다.

3:3 무정하다-마음이 딱딱하다. 도에 지나칠 정도로 무정하다. 냉혹하다.

용서하지 않는다(“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용서할 줄 모른다. 화해를 거부한다. 화해하려는 노력을 거절한다.

참소한다-거짓되고 악독한 소문을 퍼뜨린다.

절제하지 못한다-격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방종한다. 방탕하다.

사납다-잔혹하다. 무도하다.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한다-선한 것이나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무

조건 싫어한다. 어떤 형태의 선도 철저하게 싫어한다.

3:4 배반하여 판다-배신한다. 배반한다.

조급하다-무분별하다. 제멋대로 해버린다. 성급하다.

자고한다-자기를 헛되이 과장해서 보인다. 자만에 빠져 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육감적인 쾌락은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3:5 겉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보인다.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지만 그들의 말보다 행동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 준다. 그들은 자신의 경건치 못한 행동으로써 거짓말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개혁은 있었을지 몰라도 중생은 결코 없었다.

웨이머쓰(Weymouth)는 이 구절을 “그들은 경건한 척 꾸미지만 능력은 빼놓고 있다”라고 번역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팻(Moffatt)도 “그들은 종교의 형식은 유지하지만 그 능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번역했다.

필립스(Philipp)는 “그들은 종교의 외관은 유지하지만 그 행실은 그 종교가 아무 효력도 없음을 증명해준다”고 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이와 동시에 죄는 버리길 원치 않는다(참고 계 3:14-22).

히버트(Hiebert)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이것은 배도한 기독교계, 곧 기독교란 이름으로 위장한 신흥 이단교(異端敎)에 대한 두려운 초상이다.”²⁶⁾

디모데는 이같은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이 사람들은 2장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여 스스로 피하여 깨끗케 하도록 하라고 했던 그릇들이다.

3:6 말세의 부패한 사람들 중에서 바울은 이제 특정 무리를 지목하고 있는데, 곧 거짓 이단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이다. 이들의 인격과 방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오늘날의 이단들 가운데서 성취되었다.

먼저, 우리는 이들이 남의 집에 “기어들어가는” 또는 “가만히 들어간다”는 표현을 보게 된다. 우리가 이러한 묘사를 볼 때 뱀의 동작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자기 정체를 밝힌다면 남의 집에 들어가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묘한 술책을 사용하는데 가령 하나님과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그 한 예다(성경이 여기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바를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도 얘기는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여자를 사로 잡는다”(우리 말 성경에는 “유인한다”로 되어 있음-역주)고 나와 있다. 이것이 특징이다. 그들은 남편이 직장에 나갔거나 다른 곳에 있을 만한 시간에 방문 계획을 한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다. 사단은 에덴동산에 있던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를 속였다. 하와는 남편의 권위를 찬탈해서 남편에게 마땅히 넘겨야 했을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말았던 것이다. 사단의 방법은 변하지 않았다. 사단은 여전히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 여자들이 어

26) (3:5) Hiebert, 디모데후서, 86쪽

리석다는 것은 약하고 불안정하다는 의미에서다. 이들은 머리가 모자란다기보다는 강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이다.

“이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바 된다”고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이 여자들이 죄의식에 눌려있으며 자기들의 인생에 뭔가 부족을 느끼고 있다는 암시를 전해 준다. 바로 이 위태로운 때를 놓칠세라 거짓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곤고한 이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일에 열심이 더 적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바 된다”고 나와 있다. 웨이머쓰(Weymouth)는 이 부분을 “수시로 변하는 변덕에 이끌린바 되어”라는 뜻으로 보고 있다. 모팻(Moffatt)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 “정치 없는 충동적 존재들”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담긴 뜻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짐을 의식하고 있으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에 온갖 교리의 풍조에 몸을 맡기고 신기하다 싶으면 무슨 종교든지 귀의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3:7 “항상 배우나”라는 표현은 이들이 주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늘 더 배우려고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언제든지 보면 온갖 이단에 깊숙이 빠져들지만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는 뜻이다. 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이다. 이 여자들이 어떨 때는 주님께 무척 가까이 나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의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오직 구주 안에서만 발견하는 안식은 결코 누리지 못하고 만다.

여기서 여러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나는 ... 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라면서 그 배우는 체제의 이름을 댄다는

것을 주목해야겠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완성된 대속에 대해서 결코 확고하게 말을 못한다.

이 구절을 볼 때 우리는 또 인간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을 지극히 강조하는 것이 현대인의 생활에 만연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는 데는 참담한 실패를 겪고 있다는 점을 떠올리게 된다.

3:8 세 쌍의 사람들이 이 서신서에 언급되어 있다.

“부겔로와 히모게네”(1:15) – 진리를 부끄러워했다.

“후메내오와 빌레도”(2:17,18) –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되었다.

“안네와 얌브레”(3:8) – 진리를 대적했다.

여기서 바울은 거짓 이단들의 인도자와 교사들에게로 다시 화제를 돌리고 있다. 바울은 이들을 모세를 대적했던 안네와 얌브레에게 비유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사실 이들의 이름은 구약에 나오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바로는 이들이 모세가 행한 이적을 흉내 내기 위해 바로가 불러들였던 애굽의 유력한 마술사 중 두 명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는 의문이 떠오른다. 여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만일 이 이름들이 유대인들의 유전에 의해 전승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면 전혀 불합리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세의 사역을 흉내 냄으로써, 이적을 위조해 그를 대적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거짓 이단들이 하는 것이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일을 흉내 냄으로써 대적한다. 이들은 자

기들 나름의 성경이 있으며, 자기들 나름의 구원의 길이 있다. 즉 그들에게는 기독교의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유치한 곡해를 내놓거나 때로는 마술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한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다. 아서 웨이(Arthur Way)는 “이들의 마음은 속속들이 썩었다”고 번역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비뚤어져 있고, 변질되었으며, 타락해 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하여 시험해 보면 이들은 버리운 자들이며 가짜임이 드러난다. 이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나”는 단순한 질문이다. 이런 사람들 중 다수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자신들의 그릇된 교리를 감추려 하지만 이들이 하는 말의 뜻은 예수는 하나님의 한 아들이며 이는 다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에서 하는 소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나”는 질문을 대하면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낸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런 질문을 정면으로 들이대면 대개 화를 낸다. 크리스찬 사이언스나 강신교도들, 크리스타텔피안, 여호와의 증인들 등이 다 이와 같다.

3:9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거짓 교사들은 더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은 시대를 막론하고 이 거짓 교사들은 어느 모로나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세상에서 이들의 발전을 막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말씀의 뜻은 모든 그릇된 체제는 결국 드러나고 만다는 것으로 보인다. 거짓 체제들은 하나씩 왔다가 간다. 대단히 번성

하는 것처럼,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이들의 그릇됨이 모든 이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온다. 이런 이단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어느 정도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중생이 없다는 점에서 실패하고 만다. 이들은 사람을 죄의 형벌과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수가 없다. 이들은 생명을 줄 수가 없다.

안네와 얌브레는 마술을 부려서 모세를 어느 정도 흥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히 무능했다. 여기서 이단은 패배하고 만다.

3:10 여기에는 거짓 교사들과는 대조적으로 바울의 삶과 사역이 드러나 있다. 디모데는 이 주님의 종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아홉 가지 두드러진 면모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바울을 가까이서 따랐으며 여기 그리스도와 그 말씀께 충성스런 한 종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었다.

“사도의 교훈”, 즉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충성스럽게 나타내 주었다. 그의 행실, 즉 품행은 그가 전한 말씀과 일치했다. 그의 삶의 의향은 도덕적, 교리적 악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었다. 여기서 믿음은 바울이 주님을 의뢰한 것, 또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디모데는 바울이 주님을 철저히 의지했다는 것과 동시에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도의 오래 참음은 그를 핍박하는 자들과 비판하는 자들,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나타났다. 사랑에 대해서 그는 자기를 전혀 생각함이 없이 주님께, 또한 사람들에게 헌신을 다했다. 다른 사람들

에게 사랑을 덜 받을수록 사도의 사랑하려는 마음은 더욱 더 굳어졌다. 인내는 글자 그대로 “...을 대하여 견디는 것”, 즉 강한 참을성을 의미한다.

3:11 바울이 당한 핍박과 고난의 일부는 고린도후서 11장 23-28절에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가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 특별히 생각하고 있다.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이기 때문에 그는 그곳과 인근 도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에게 닥쳤던 핍박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난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으니 사도행전 13장 45,50절의 안디옥과 사도행전 14장 3-6절의 이고니온, 사도행전 14장 19-20절의 루스드라가 그것이다.

바울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자기를 견지셨다는 사실을 인해 무척 기뻐하고 있다. 주께서는 환난으로부터 견지시키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 견지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환난을 면제받는다든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준다.

3:12 핍박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젊은 디모데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깊은 물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자기가 주님께 잘못된 게 아닌가, 아니면 주님께서 무슨 이유로 자기에겐 노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질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핍박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핍박을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경건하게 살면 다른 사람

들의 악을 드러내게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건치 않음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한 그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애쓰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몰지각한 행동이지만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

3:13 바울은 세상이 점점 더 좋아져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리라는 환상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그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질 것이다. 이 사람들은 더욱 교묘한 방법을 쓰고 더욱 대담하게 공격을 가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네 말을 듣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사용하던 바로 그 거짓 가르침에 스스로 걸려들고 말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거짓말을 남발하다보니 자신들도 그 거짓말을 정말로 믿게 되리라는 것이다.

3. 배도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대책(3:14-4:8)

3:14 거듭 거듭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변함없이 거하라는 일깨움을 받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거짓 교리가 사방에 난무하게 되는 날에 디모데에게는 큰 방패가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성경을 알고 순종한다면 이러한 교묘한 오류에 이끌려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디모데는 믿음의 위대한 진리들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

로 그 진리를 확신했다. 분명 그는 이런 가르침들이 구식이며 시대 문화에도 안 맞고 지적으로도 불충분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버리고 이론이나 인간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사도는 더 나아가 디모데에게 뉘게서 이 진리들을 배웠는지를 기억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누구라는 단어가 바울과 디모데의 모친과 외조모를 말하는지 아니면 사도들 전부를 말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느 경우든 간에 이 말씀의 핵심은 삶으로 자기 믿음이 살아있는 것임을 증거한 이들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3:15 이것은 암시하는 바가 많은 구절이다. 핵심은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성경 혹은 기록한 문자를 알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디모데의 모친이 아들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 구약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가르쳤다는 분별을 내놓고 있는 이들도 있다.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성경의 영향을 받았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선을 위해 살도록 틀을 잡아준 이 복된 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경을 가리켜 언제나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부분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배운다는 것이다. 또 여기에는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가르침도 담겨 있다고 보인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을

잘 명심해야 된다. 구원은 선행, 세례, 교인등록, 견진성사, 십계명과 황금률을 지킨다고 해서, 아니면 인간의 노력이나 장점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3:16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바울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그 당시 존재하고 있던 신약의 일부도 언급했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누가복음(10:7)을 성경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다. 또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을 가리켜 성경이라고 일컫고 있다(벧후 3:16). 오늘날은 이 구절을 성경전체에 적용해도 옳다.

이 구절은 “영감”이라는 주제에 관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다. 이 구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다.²⁷⁾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셨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기록하여 영구 보존하게 하셨다. 이 사람들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자체였으며, 영감으로 되었으며 결코 오류가 없는 말씀이었다. 각 기자의 문체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이 사용한 단어들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 했다. 만일 이 구절에 무슨 말씀이라도 담겨 있다면 이는 영감을 받은 기자들이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사용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축자영감이라는

27) (3:16) 헬라어 단어는 theopneustos다.

말의 의미다.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해석을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20-21).

하나님께서 단지 각 저자에게 생각을 집어넣으셔서 이 생각을 그들의 말로 표현하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말은 잘못되었다. 성경에서 변함없이 전하고 있는 진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유익하다. 성경은 어느 부분이나 다 유익하다. 사람은 일부 족보나 애매한 구절들을 보고 의아해하겠지만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는 영적인 영양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경은 교훈, 즉 가르침에 유익하다. 성경은 삼위일체, 천사, 사람, 죄, 구원, 성화, 교회, 장래의 일과 같은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준다.

또 성경은 책망에 유익하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성경은 날카롭게 지적해준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류를 반박하는 데와 시험하는 자에게 대답하는데 유익하다.

또한 말씀은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말씀은 잘못된 것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소상히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고만 말하지 않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 이 구절의 전반부는 책망인 반면 후반부는 바르게 함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한 삶을 이루어나가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히고 있다.

3:17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케, 즉 성숙하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므로 (엡 2:8-10), 이를 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구비하게 된다. 이것은 오늘날 학위를 받아서 자격을 갖추면 된다는 인식과는 첨예한 대조를 이룬다.

렌스키(Lenski)는 이렇게 썼다.

“그러므로 성경은 절대 비교할 대상이 없다. 이 세상의 어떤 책이나 전집류,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린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지 못한다. 다른 어떤 경전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았으므로 그 아무리 유익을 주는 게 있다 해도 성경이 할 수 있는 이런 일에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 구원을 얻게 해주는 참된 사실들을 가르쳐주는 것, 이 사실들을 부인하는 거짓말과 속임수들을 반박하는 것, 죄인이나 타락한 그리스도인을 회복시켜 바로 서게 해주는 일, 사람을 참된 의로 교육하고 훈련하며 징계하는 일에는 오직 성경이 유익할 뿐이다.”²⁸⁾

4:1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엄숙한 명을 내리고 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하고 있다.

28) (3:17) R. C. H. Lenski, 같은 책 841쪽

모든 봉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눈으로 우리의 봉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구절에서 주 예수님을 가리켜 “그의 나타나실 때와 그의 나라에서(at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쓰인 영어 단어 ‘at’을 보면 구주께서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 땅에 오실 때 일반의 부활과 일반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라는 인상을 받게 한다. 그러나 헬라어를 보면 “카타”(kata)²⁹⁾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에 따르면” 혹은 “...에 따라서”라는 뜻이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지만 그 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바울은 성도들이 충성스럽게 섬겨야 될 동기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제시하고 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계시록 20:5에 따르면 악인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끝날 때까지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지만 이 상급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에서 밝히 드러날 것이다. 이 상급은 천년왕국에서의 통치 혹은 경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충성한 자들은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눅 19:17).

4:12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종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과 나중에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디모데는 말씀(the word)을

29) (4:1) 비평 사본에는 kata 대신 kai(“...와”)로 나와 있다.

전파해야만 했다. 디모데는 긴박감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했으며 모든 기회를 사용해야만 했다. 전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조차도 이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써 디모데는 “경책하라”, 즉 “증명하고 반박하라”는 명을 받고 있다. 그는 그릇된 것을 책망해야만 했다. 그는 죄인들을 권하여 주를 믿으라고, 성도들을 권하여 주를 위해 전진하게 해야 했다. 그는 범사에 기꺼이 오래 참고 바른 교훈을 충성스럽게 가르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4:3 3-6절에서 사도는 자신이 내린 명에 대한 강력한 이유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바른 교훈으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설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바울의 떠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사도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가르침을 지극히 싫어하게 되는 때를 예견하고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의도적으로 등을 돌릴 것이다. 그들의 귀는 기분 좋고 편안한 교리를 듣고 싶어 가려울 것이다. 신기하고 만족스런 교리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려줄 여러 명의 선생을 많이 확보해 둘 것이다.

4:4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설교를 탐하다보니 이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떠나 신화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즉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려고 진리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건전한 교훈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참한 대가에 불과하다.

4:5 “모든 일에 근신하라”는 것의 참 의미는 “범사에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것이다. 디모데는 성실히 일하고, 절제하고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했다.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무슨 고난을 당하든지 기꺼이 그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했다.

“전도인의 일을 하며”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다. 디모데는 실제로 전도인이었으며 여기서 바울은 단지 디모데에게 그 일을 계속하라고 말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다. 또 어떤 이들은 디모데가 전도의 은사가 없었고 아마 목자나 교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필요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보기도 한다. 디모데는 실제 전도자였던 것으로 보이며 바울의 말은 단지 그가 전도자로서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권면하고 있었던 것 같다.

어떤 면에서든지 디모데는 자신의 직무를 다해야 했으며, 자신이 섬기는 모든 분야에 자신이 지닌 최고의 은사를 바쳐야 했다.

4:6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숙히 명한 두 번째 이유는 자기가 떠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은바 될 때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순교하여 흘릴 피를 제물 위에 뿌리는 관제에 다 비유했다(출 29:40; 민 15:1-10). 바울은 전에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자신의 죽음을 관제에 비유한 적이 있다. 히버트(Hiebert)는 “그의 전 생애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제사의 마지막 행위로 포도주를 붓는 것에 비유된 그의 죽음이 이 제사를 완결 짓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³⁰⁾

30) (4:6) Hiebert, 디모데후서, 109,110쪽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도다.”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떠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아나루시스(*analysis*, 문자적으로는 “풀어놓는다”이며 영어로 옮기면 “분석”이다)는 참으로 의미하는 바가 많은 단어로서 최소한 네 가지의 그림을 떠오르게 한다.

(1) 선원들이 쓰는 말로서 정박해 있던 배를 “풀어 놓는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2) 농부가 쓰는 말로서 하루동안 고된 일을 하고 나서 지친 한 떼의 짐승에게 매어놓았던 멍에를 “풀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 여행자들이 쓰는 표현으로 행진 준비할 때 텐트를 “걷는다”는 뜻이다.

(4) 철학자가 쓰는 말로서 문제의 “해결”(분석)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위대한 사도가 사용한 이미지가 얼마나 풍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4:7 처음 힐끗 보아서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마치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기 담긴 의미는 그가 한 번 선한 싸움(a good fight)을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싸움(the good fight), 즉 믿음의 싸움을 싸웠으며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선한 싸움에 자신의 힘을 소비했다. 여기서 싸움은 꼭 전투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운동 경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 글을 쓰면서도 바울은 이 힘든 경주가 거의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경주를 달려 왔고 이제 목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 바울은 또한 믿음을 지켰다고 했다. 이것은 바울이 기독

교 신앙의 위대한 교리들을 믿고 순종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청지기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교리를 지켰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리를 본래와 변함없이 순수한 그대로 전달해주었다는 의미다.

4:8 여기서 사도는 자기가 주님을 섬기면서 나타낸 의에 대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의로우신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주님을 가리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형사법원 판사가 아닌 경기장에서의 심판관을 의미한다. 세상의 재판관과는 달리 주님은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시는 법이 없으며, 행실뿐만 아니라 동기도 평가할 것이며, 그분의 판결은 정확하고 공정할 것이다.

“의의 면류관”은 의롭게 주님을 섬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화관(花冠)이며 왕관은 아니다. 사실 이 면류관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산다면 그의 삶은 의로울 것이며 따라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참 마음으로 믿고 사모하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4. 개인적인 요청과 언급 (4:9-22)

4:9 나이 많은 바울은 주 안에서 젊은 이 형제가 자기와 같이 있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최선을 다해 로마로 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4:10 그리스도인으로 봉사하면서 겪는 가장 비통한 경험 중 하나는 전에 동역하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다. 데마는 바울의 친구요 함께 믿는 자요 동역자였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으며, 정치적인 상황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지 않았다. 데마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대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것은 꼭 데마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자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또 그가 거짓 신자였다는 것도 아니다. 그는 자기의 안전을 우려한 나머지 타락한 신자가 되고 말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사도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여기에는 책망하는 말이 없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사역을 위해 그곳으로 갔을 것이다. 성경에서 그레스게가 언급된 곳은 이곳 밖에 없다(그의 이름은 “성장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이로 인해 모든 믿는 자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인생에서 아무리 하잘 것 없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을 위해 행한 심부름까지 주님은 알고 계시며 반드시 보상하시기 때문이다.

4:11 사랑받는 의사 누가는 로마에서 바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위로와 그 전문적인 의술이 사도에게는 얼마나 크나큰 의미를 지녔겠는가!

11절 후반부를 통해서도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주님을 섬기며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렸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 번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큰 위로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제1차 전도여행을 갔었지만 버가에서 두 사람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전에 자기를 떠나갔던 젊은 마가를 데려가고 싶지 않았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고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감으로써 문제는 해결되었다. 나중에 바울과 마가는 화해했으며 여기서 사도는 구체적으로 마가는 자기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며 그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4:12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무렵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곧 디모데가 자리를 비우게 되므로 그를 대신해서 사

도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여기서 바울이 한 말의 뜻은 “그러나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가서 일하게 했노라”로 분별하고 있다.

4:13 여기서 언급한 겹옷은 겹에 걸치는 옷이거나 책을 휴대하고 다니는 가방이었던 것 같다. 여기서는 전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책과 가죽 종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³¹⁾ 이것은 성경책의 일부였을까? 바울의 서신중 일부였을까? 그가 재판 때 쓰려고 하던 서류였을까? 글을 쓰려고 가져오라고 한 백지 파피루스나 가죽 종이였을까? 분명하게 단정 짓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도는 비록 갇힌 몸이었지만 글을 쓰고 읽느라 바빴다는 추측이 유력하다.

겉으로 봐서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이 성구와 관련된 재미있는 실화가 하나 있다.

뉴만 추기경의 동생인 F. W. 뉴만이 어느 날 J. N. 다비에게 이 구절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큼 손해를 입게 되겠느냐고 물어보았다. 이 구절은 일시적인 가치 밖에 없는건가? 만일 바울이 이 구절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 있단 말인가. 다비는 즉각 대답했다. “나는 분명 뭔가를 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구절 덕택에 내 서재를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은 성령님께서로부터 온 것이며 다 영원토록 소용됨이 틀림없습니다.”³²⁾

31) (4:13) 헬라어는 membranas다. 이 값비싼 사본은 아마도 성경 책이었거나 주석이었을 것이다.

32) (4:13) H. A. 아이언사이드가 디모데서, 디도서, 빌레몬서 주석에서 인용했음, 255쪽

4:14 구리 장색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고 했던 사람과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 같다. 사사건건 알렉산더는 사도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 우리는 그의 악함에 대해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구절을 다음 구절들과 연결해보면 아마도 알렉산더는 사도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고 거짓 증거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코니베어(Conybeare)와 하우슨(Howson)은 이렇게 번역했다. “구리 장색 알렉산더는 내가 많은 악을 저질렀다고 고소했다.” 사도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4:15 이 구절은 디모데의 로마 도착을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모데도 알렉산더를 주의해야 했으니 이 악한 사람에게 그 역시 해를 당할까 싶어서였다. 알렉산더는 법정 공청회에서 바울의 증거를 반박함으로써 그의 말을 심히 대적했을 가능성이 있다.

4:16 아마도 바울은 지난 며칠의 사건들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가 처음 변명했다는 것은 그가 이곳에서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하도록 처음으로 기회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³³⁾ 서신으로 수세기를 풍성하게 만들어준 이 용감한 사도를 위해 일어서서 한 마디 말을 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프게 보인다. 아무도 그의 변호를 맡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거기에 대해 조금도 비통해하는 것이 없다. 자기 앞에 계신 구주처럼 바울도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33) (4:16) 아마도 바울이 최초 투옥되었을 때 받은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4:17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곁에 서 계셨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 재판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 말씀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전해졌으며 이방인의 법정도 구원의 말씀을 들었다. 스톡(Stock)은 경이로움에 휩싸여 다음과 같이 썼다.

“모든 이방인이(이 단순한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지체 높은 로마인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 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들리우신 바 된 예수님이 한 분 구주시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는 압도적인 가르침이다. 이토록 놀라운 장면을 상상만으로는 헤아릴 길이 없다. 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였음이 틀림없다. 영원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겠는가?”³⁴⁾

이 구절에 사용된 “강건케 하심”이란 단어는 흔치 않은 것이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단 여덟 번 나올 뿐이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바울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 본 구절에서 바로 이 단어가 다시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엔 그의 공적인 사역이 마치는 순간이다. 주님께서 그 종의 삶 내내 그를 붙들어 주시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감동적인 구절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는 표현은 바울이 잠시 형집행 연기를 받았다는 점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재판은 계속 되었다. 위협은 일시나마 피했다. 이 사자는 네로, 또는 마귀, 또는 진짜 들짐승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 말은 일반적인 위협을 의미

34) (4:17) Eugene Stock, Plain Talks on the Pastoral Epistles, 몇 쪽인지는 분명치 않음.

한다고 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

4:18 사도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라고 말했을 때 자신이 사형을 무기한 피하게 되리라는 뜻을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자기가 죽을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6절). 그렇다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한 것일까? 주님께서서는 바울이 이제 그 증거를 마무리 짓는 순간에 흠이 될 만한 어떤 것도 하지 않도록 건져내시리라는 뜻으로 한 말이 분명하다. 주님께서서는 바울이 뒤로 돌이키거나 주님의 이름을 부인한다든지, 겁을 내거나 어떤 형태로든 도덕적인 타락을 하지 않도록 건져주시리라는 것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는 것도 확신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지상 천년왕국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인정받는 천국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도는 갑자기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린다. “세세무궁토록”은 헬라어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강한 표현이다. 기술적으로 보면 영원은 “세세”가 없지만 인간의 지성은 시간이 없다는 개념을 깨달을 수 없으므로 시간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4:19 이제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자주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부부에게 문안하고 있다. 브리스가(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처음 만났고 에베소까지 그와 같이 갔다. 이들은 한동안 로마에서 같이 살았으며(롬 16:3), 바울처럼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

오네시보로는 1장 16절에 사도의 마음을 자주 유쾌케 하고 그가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인물로 언급된바 있다.

4:20 에라스도는 고린도 성의 재무였던 사람과 동일인인 것 같다(롬 16:23).

드로비모는 사도행전 20장 4절과 21장 29절에서 언급되어 있다. 에베소에서 구원받은 드로비모는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그곳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드로비모가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 구절은 사도가 기적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늘 쓰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병 고치는 이적은 결코 개인적인 편리를 얻는데 사용된 적이 없으며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때 사용되었을 따름이다.

4:21 디모데는 겨울 날씨가 때문에 여행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지기 전에 어서 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다. 감옥에 갇힌 디모데의 친구는 그가 같이 있어 주기를 원하여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디모데에게 와달라고 거듭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뭉클해진다(1장 3-4절과 4장 9절을 보라).

이제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디모데에게 문안하고 있다. 이 이름들은 대단찮게 보일 수 있지만 로저스(Rodgers)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봉사하는데 있어 특별한 즐거움과 특권의 하나는 친구를 사귀어서 그 우정이 깊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해주는 감동적인 대목이다.

4:22 이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을 끝맺고 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나는 주께서³⁵⁾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라고 했다. 사도는 그 다음으로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다.

여기서 그는 펜을 놓았다. 편지는 끝이 났다. 그의 사역은 끝났다. 그러나 그의 삶과 간증의 향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으며 우리는 다시 그와 만나서 복음과 교회라는 이 위대한 주제를 놓고 그와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35) (4:22) 비평 사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음.

참고 문헌 목록

Bernard, J. H. The Pastoral Epistl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9.

Erdman, Charles R. The Pastoral Epistles of Pau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23

Fairbairn, Patrick.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Edinburgh: T. & T. Clark, 1874.

Guthrie, Donald. The Pastoral Epistles, (TBC).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7

Hiebert, D. Edmond. First Timothy. Chicago: Moody Press, 1957.

Hiebert, D. Edmond. Second Timothy. Chicago: Moody Press, 1958.

Hiebert, D. Edmond. Titus and Philemon. Chicago: Moody Press, 1957.

Ironside, H. A. Addresses, Lectures, Expositions on Timothy, Titus, and Philemon. New York: Loizeaux Bros., 1947.

Kelly, William. An Exposition of the Epistle of Paul to Titus. London: Weston, 1901.

Kelly, William. An Exposition of the Two Epistles to Timothy,

3d Ed. Oak Park, IL: Bible Truth Publishers, n.d.

Kent, Homer A. *The Pastoral Epistles*. Chicago: Moody Press, 1958.

King, Guy H. *A Leader Led: A Devotional Study of I Timothy*. Fort Washington, Pa.: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44.

King, Guy H. *To My Son: An Expository Study of II Timothy*. Fort Washington, Pa.: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44.

Lock, Walt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ICC)*. Edinburgh: T. & T. Clark, 1924.

Moule, H. C. G. *Studies in II Timothy*.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77.

Plummer, Alfred. *The Pastoral Epistles*. New York: George H. Doran Company, n.d.

Smith, Hamilton. *The Second Epistle to Timothy*. Wooler, Northumberland, England: Central Bible Hammond Trust Ltd., n.d.

Stock, Eugene. *Plain Talks on the Pastoral Epistles*. London: R. Scott, 1914.

Van Oosterzee, J. J. "The Pastoral Letters."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Vol. 23.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n.d.

Vine, W. E. *Exposition of the Epistles to Timothy*. London: Pickering & Inglis, 1944.

Wuest, Kenneth S. *The Pastoral Epistles in the Greek New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3.

디도서

디도서 서론

“이것은 짧은 서신이지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으며 너무나 탁월하게 쓰여진 것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지식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다.” -마르틴 루터

1. 정경에서 차지하는 고유한 위치

1,900여 년 전 이름 없는 한 섬에서 일하던 별로 알려지지 않은 한 선교사에게 나이 많은 선배 선교사가 보낸 세 장짜리 짧은 서신 -이것이 '계몽된' 20세기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이 편지가 단지 바울의 말에 불과하다면(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교회사에 미친 사람이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나 흥미를 느끼게 할뿐이리라.

그러나 이 글 또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며 바로 이 말씀으로서 다른 어떤 책도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장로들을 다루고 있는 주제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비슷한 가르침을 강화하고 지지해준다. 이런 반복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며 성경, 특히 구약의 수많은 병행구절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어떤 원리들을 깨닫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강조해줄 따름이다.

아마 디도서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부분은 2장 11-14절일 터인데 아름답게 균형 잡힌 문체로 쓰여져 은혜의 교리를 빛나게 해주고 있다.

2. 저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저자 논쟁에 대해서는 목회서신 서문을 보라

3. 기록연대

주제와 사용 어휘가 유사한 점으로 보아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와 같은 시기거나 혹은 바로 뒤에 쓰여졌다는 것이 보수적인 학자들의 견해다. 어쨌든 간에 이 서신이 쓰여진 것은 시기적으로 디모데전서와 후서 사이이며 디모데후서 이후는 아니다. 정확한 연대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대략 주후 64년과 66년 사이일 것으로 보인다. 편지를 쓴 장소는 마게도냐인 것으로 생각된다.

4. 주제

다른 두 편의 목회서신과 일반적인 주제는 같지만(목회서신 서문을 보라), 디도서는 믿는 자가 은혜의 교리를 어떻게 경건과 선행으로 빛나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요약해주고 있다. 오늘날 은혜의 교리를 기뻐하는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선행이나 심지어 경건을 통해 보여주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것이 확연하다. 이러한 태도

는 그릇된 것이며 참 은혜를 잘못 알고 있음을 드러낸다.

바울은 이 주제를 완벽하게 요약해주고 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3:8 상반절).

5. 개요

1. 인사(1:1-4)
2. 지역교회의 장로들(1:5-9)
3. 지역교회의 과오들(1:10-16)
4. 지역교회의 처신(2:1-15)
5. 지역교회에 대한 권면(3:1-11)
6. 결론(3:12-15)

1. 인사(1:1-4)

1:1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다. 첫 번째 신분은 바울을 대주인(大主人)의 노예로 묘사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주권자이신 주님의 사신임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것은 복종을, 두 번째는 권위를 말해준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기를 바쳐서 종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가 되었다.

그의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진리의 지식”(우리말 성경에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되어 있음-역주)을 진보케 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믿음을 진보케 한다는 것은 첫째로 이들을 믿음에,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아니면 구원받은 후에 믿음 안에서 이들을 인도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리의 지식이라는 말이 두 번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도가 한 말의 의미는 자신의 두 가지 기본 목표가 (1) 전도-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진보시키는 것과, (2) 교육-진리의 지식을 늘리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20 절의 메아리이다. 즉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다. 한 마디 변명도 없이 자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진보케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밝힌 사도는 우리에게 선택의 교리를 단도직입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 성경의 어떤 교리도 이만큼 오해받고,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지성인들을 당혹하게 한 것은 없다. 간단히 말해 선택의 교리가 가르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들이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는 것이다(엡 1:4).¹⁾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관련된 것임을 밝힌 바울은 이제 이 진리는 경건에 따른 것(우리 말 성경에는 “경건에 속한 진리”라고 되어 있음-역주)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그 뜻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참된 경건과 일치하는 것이며 사람을 실제적인 경건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전한 믿음은 순결한 삶을 요구한다. “강단에 있을 때는 다시는 내려오지 말았으면 하고, 강단을 떠나 있을 때는 다시는 올라가지 말았으면 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설교자보다 더 모순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1:2 바울이 복음과 관련해 명을 받은 데는 세 번째로 강조할 만한 점이 있다. 그것은 (1) 전도-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진보케 하는 것, 과거시제와, (2) 교육-진리의 지식을 늘리는 것, 현재시제 뿐만 아니라, (3) 기대-영생의 소망, 미래 시제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약은 영생을 가리켜 현재 소유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불확실함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현재의 소유물로 갖게 되며(요 5:24)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말미암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후사가 되지만, 영원한 집에 이르기 전까지

1) (1:1) 에베소서 1장과 로마서 9장을 보면 선택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는 그 모든 것을 실제로 다 누리지 못한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된 몸을 받아서 영원히 죄와 병과 슬픔과 고생과 죽음이 없게 되는 궁극적인 상태의 영생(빌 3:20-21; 딤후 3:7)을 고대한다는 의미에서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소망이 확실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으며 그분은 누구에게 속으실 수 없으며 속이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믿으면 전혀 위험이 없다. 사실 피조물이 자기 창조주를 믿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영원한 때 전부터 영생을 약속하셨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분이 작정하신 것은 곧 약속이었다는 것이다. 아니면 구원의 모든 축복이 창세기 3:15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 안에 씨앗의 형태로 담겨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시간이나 경륜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었다.

1:3 자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때 전부터 작정하신 이 영광스러운 영생의 계획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약시대에 완전히 나타내시지 않았다. 그 당시의 믿는 자들은 사후의 삶에 대해 매우 희미하게 알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구주께서 오심으로 이런 희미함은 사라지고 말았다. 구주께서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딤후 1:10). 그리고 복음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대사명에 순종한 바울과 다른 사도들에 의해 널리 전파되었다.

1:4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은 디도이며,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바울의 참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 디도는 누구일까?

바울의 서신 중 세 편에 어쩌다 언급되는 디도에 관한 말로부터 그의 생애를 끼워 맞춰 볼 수밖에 없다. 헬라인으로 태어난(갈 2:3) 디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는데 아마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인 것 같다(딤후 1:4). 그 당시에는 참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이 들끓고 있었다. 한 쪽에는 바울과 함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으며 그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 또 한 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등 시민이 되려면 할례(고로 율법도 지켜야 된다)가 필수라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 디도는 이 논쟁에서 시범 케이스가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들과 함께 가지는 회의에 디도를 데려갔다(갈 2:1). 이 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디도 같은 이방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의 율법과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행 15:11).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될 필요가 없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를 믿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후로 디도는 바울이 가장 아끼는 조력자의 한 사람이 되어 고린도와 그레테에서 ‘문제 해결사’로 일했다. 사도는 처음에 그를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냈는데 그곳 교회에서의 교리적, 윤리적 문제를 바로 잡게 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디도가 바울과 마게도냐에서 다시 합류했을 때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권면한 말에 대해 고린도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말을 듣고 뿔 듯이 기뻐했다(고후 2:12-13, 7:5-7,13-16).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디도를 다시 고린도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

해 드리기로 헌금을 재촉하기 위해서였다(고후 8:6,16,17, 12:18).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고후 8:23)라고 불렀다. 우리는 바울이 그레데에서 디도와 같이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믿기로는 사도가 로마에서 일차 투옥되고 난 뒤였다는 것이다.

디도가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는 곳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다. 디도는 바울이 두 번째 갇혔을 때 그와 잠시 같이 있었지만, 이때 바울은 그가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인 달마디아로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바울이 디도를 그곳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구절의 전반적인 어조가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지만 말이다.

사도는 디도를 가리켜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은 바울이 디도가 구원받는데 도구가 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바울은 또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불렀지만(딤후 1:2), 바울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이미 그가 제자였을 수도 있다(행 16:1). 그러므로 이 표현은 이 젊은이들이 바울과 비슷한 영적인 자질들을 보였으며, 또 그리스도인 사역자들 사이에 가족과 같은 유대관계가 있었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자신의 젊은 후배에게 바울은 은혜와 공훈과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다. 문맥으로 볼 때 은혜는 삶과 봉사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뜻한다. 공훈은 사람의 깊은 필요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평강은 대적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놀람과 방황함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두 분께로부터 좇아 나오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를 은혜와 공훈과

평강의 원천이 되시는 분으로 함께 묶어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두 분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엄두에 두게 하셨기 때문이다.

2. 지역교회의 장로들(1:5-9)

1:5 바울이 그레테를 떠났을 때 여전히 바로잡아야 될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거짓 교사들을 잠잠하게 해야 했고, 모임에서 영적인 인도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워야 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처음 그레테에 이르렀는지 우리로서는 아는 바가 없다. 아마도 가장 유력한 추측은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있던 그레테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귀향해서 그 뒤 그곳에 지역교회가 세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테에 머물렀던 때가 언제인지도 우리는 역시 아는 바가 없다.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던 중 그레테에 상륙한 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행 27:12), 그곳 교회에서 활발한 사역을 할 만한 환경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그레테에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가 이곳을 방문한 것은 로마에서 일차 투옥을 당하고 난 후라고 믿는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성경을 세밀히 조사해본 결과에 의지해 볼 때 우리는 바울의 서신에 언급된 여러 가지 내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여행 일정표를 재구성해 볼 수 있다.

먼저 바울은 아시아(오늘날의 터키 서부)로 가는 길에 이탈리아에서 그레테로 배를 타고 갔다(딤후 1:5). 디도를 그레테에 떨구어 놓고(딤후

1:5), 바울은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로 갔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그곳에 스며들고 있는 교리적 오류들을 바로 잡기 위해 디모데를 명해 일하게 세웠다(딤후 1:3-4). 그 다음 그는 감옥에 갇혀있던 동안 빌립보를 방문코자 했던 뜻을 이루기 위해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로 갔다(빌 1:26). 마지막으로 그는 남서쪽으로 그리이스를 가로질러 니고볼리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했고 바로 거기서 디도와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딤후 3:12).

호머(Homer)에 따르면 그가 살던 시대에 이미 그레테에는 90에서 100개의 도시가 있었으며 그 도시 중 몇 군데에 교회가 세워졌음이 분명하다. 그 각 교회에는 책임 있는 장로들을 임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장로

신약이 의미하는 장로는 지역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인격을 지닌 성숙한 그리스도인 남자다.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가리키는 호칭인 장로는 헬리어 “프레스부테로스”(presbuteros)에서 번역한 것이다(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presbyter”다).

“감독”(bishop, overseer), 혹은 “보호자”(guardian)로 번역되는 헬리어 “에피스코포스”(episkopos)는 장로를 언급할 때 사용되며 그들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양떼를 맡은 목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장로”와 “감독”이란 호칭은 동일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별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presbuteroi)을 청했다. 28절에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 감독자(episkopoi)라고 불렀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베드로도 이처럼 이 용어들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 디모데

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episkopoi*)의 자격 요건과 디도서 1장에 나오는 장로(*presbuteroi*)의 자격은 사실상 동일하다.

현대어법에서는 “감독”이 한 지역의 교구 혹은 여러 교회를 감독하는 고위성직자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신약에서 이 단어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니다. 성경의 본은 한 교회에 여러 감독이 있는 것이지 여러 교회 위에 한 감독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장로를 오늘날의 지역교회에서 설교와 가르침과 성찬 집례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목사와 혼동해서도 안 된다.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다.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은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이었다(빌 1:1). 그뿐이다.

신약에서 말하는 목자는 부활하사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베푸어주시는 특별한 봉사의 은사 중 하나다(엡 4:11-12). 여러 가지 면에서 목자와 장로의 하는 일은 비슷하다. 곧 양쪽 모두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고 먹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코 동일하지는 않다. 아마도 목자는 순회 사역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장로는 대개 한 지역교회와 연관되어 있다.

장로들의 역할은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다.

- (1) 주님의 교회를 치고 돌본다(행 20:28; 딤후 3:5; 벧전 5:2).
- (2) 외부와 내부에서 오는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고 경성한다(행 20:29-31).
- (3) 이끌고 다스리며, 안내하지만 몰아가지는 않는다(살전 5:12; 딤후 5:17; 히 13:7,17; 벧전 5:3).
- (4) 말씀을 전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며, 여기에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한다(딤후전 5:17; 딤후 1:9-11).

(5) 교리적, 윤리적 문제를 다스리고 중재한다(행 15:5-6, 16:4).

(6) 삶으로 양 무리에게 본이 된다(히 13:7; 벧전 5:3).

(7) 범죄한 신자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다(갈 6:1).

(8)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같이 지역교회의 영혼들을 지킨다(히 13:17).

(9) 기도의 사역을 하며 특히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약 5:14-15).

(10) 가난한 성도 돌보는 일도 한다(행 11:30).

(11)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은사있는 자들을 천거하는데도 가담한다(딤후전 4:14).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사도와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움을 받았음이 분명하다(행 14:23; 딤후 1:5). 그러나 이것은 사도들과 그들이 세운 사람들이 사람을 장로로 만드는 권세가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장로가 되게 해주셔야 되며 또한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 오직 성령께서만 사람을 감독이나 보호자로 삼으실 수 있지만(행 20:28), 사람은 또 이 일을 사모해야만 한다(딤후전 3:1).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와 사람 편에서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만 된다.

사도시대에 지역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을 때 거기에는 장로들이 없었다. 믿는 자들이 다 초신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예비하시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 신약성경이 아직 기록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장로들의 자격과 책무가 어떤 것인지를 몰랐다. 사도들과 그 조력자들만이 알았을 뿐이다. 이 지식을 근거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들을 택해서 이름 하여 장로라 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완성된 신약성경이 있다. 우리는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다. 자격을 갖추고 감독으로 활발히 섬기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알아보고(살전 5:12), 그들에게 순종한다(히 13:17).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일으키신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해주는 것일 따름이다.

장로들의 자격기준은 디모데전서 3장 1-7절과 여기 디도서에 나와 있다. 종종 우리는 자격 기준이 이렇다면 오늘날에는 감독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 말을 듣는다. 이러한 사상은 성경의 본래 뜻이 다른데 있다는 암시를 던짐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기준을 보면 불합리하거나 획득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 성경을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라고 치부할 때 자신의 영적 상태가 낮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1:6 장로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즉 의심할 바 없이 순전한 사람들이다. 교리가 잘못되었다거나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며, 비록 이 사람들도 작은 잘못을 하지만 이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또 필요하다면 보상을 해줌으로써 즉시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번째 자격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곱 가지 견해가 있다.

(1) 남자는 결혼해야 된다. (2) 이혼하면 안 된다. (3) 이혼한 뒤

재혼해서는 안 된다. (4) 첫 번째 아내가 죽은 뒤에 재혼하면 안 된다. (5) 여러 아내를 거느려서는 안 된다. (6) 첩이나 소실을 두면 안 된다. (7) 일반적으로 신실한 남편이라야 되며 엄격한 도덕성을 지키는 데 본이 되어야 한다.

만일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이 남자는 결혼해야 된다는 뜻이라면 그 논리에 따라 자식도 가져야 되는데 이는 바로 6절에서 자녀들이 믿는 자라야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분명 장로는 가정이 있으면 더 좋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가정 문제를 더 지혜롭게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장로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혼하면 안 된다는 뜻 같지는 않다. 구주께서 이혼은 최소한 한 가지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마 5:32, 19:9).²⁾

이것은 또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혼 후 재혼은 절대 금지라는 뜻으로도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전적으로 무죄한 어떤 신자가 믿지 않는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그 아내는 재혼을 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 그 그리스도인은 책임이 없다. 첫 번째 결혼이 이혼으로 말미암아 끝났고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재혼을 했으므로 이제 이 사람은 원하면 재혼을 할 수 있다.

남자가 자기 첫 번째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 재혼을 하면 장로 일을 할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해석은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명시된 원칙으로 인해 무효가 된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2) (1:6) 많은 사람들은 이혼이 때로 타당할 때가 있지만 교회의 직임을 맡는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 아내를 거느려서도 안 되며 첩이나 소실을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요약컨대 장로의 결혼 생활은 양 무리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다.

또한 장로는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성경이 자식들이 어떠한 지에 대해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있다(잠 22:6).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지고 잘 훈련되어 있으면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그 부모의 경건한 본을 따르게 마련이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근실히 가르치고 사랑으로 징계하며 위선이 없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 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

자녀들이 방탕하고 부모의 권위에 반역한다면 성경은 그 책임을 아버지에게 묻는다. 아버지가 자식을 무조건 받아주고 뭐든지 쉽사리 허용한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적합한 장로가 될 가능성은 없다. 어느 쪽이든 같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딤후 3:5).

“신실한 자녀”(우리말 성경에는 “믿는 자녀”라고 되어 있음-역주)에 대한 이러한 요건이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의 권위 아래 있을 때만 말하는 것인지, 집을 떠난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우리는 첫 번째 견해를 받아들이지만 가정에서의 훈련은 최종적인 인격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1: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가 감독으로서 돕고 있는 대상은 자기 교회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돌

아보도록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자다. 다시 한 번 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분명 이것은 강조하기 위해 반복한 것이다. 감독은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야 된다는데 대해 일체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는 제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 고집이 세며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있을 수 없다며 완고하게 고집한다면, 양보할 줄 모르고 반대의견을 참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영적인 인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장로는 중재자이지 자기만 옳다하는 독재자가 아니다.

장로는 급히 분내면 안 된다. 변덕스러운 성질이라면 이를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쉽게 발끈하는 기질이라면 절대 이 기질이 드러나게 해선 안 된다.

장로는 “포도주”(우리말 성경에는 “술”이라고 되어 있음-역주)를 즐기면 안 된다. 이 점은 우리 문화에서는 너무나 기초적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문화를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포도주를 흔한 음료수로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지나치게 술에 빠져서 방탕한 행동을 할 위험이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절제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점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포도주의 사용과 남용을 구별하고 있다. 음료수로 포도주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허용되었다(요 2:1-11). 바울은 포도주를 약용으로 사용하라는 처방을 디모데에게 주었다(딤후 5:23; 잠 31:6도 보라). 포도주와 독주를 남용하는 것은 잠언 20장 1절과 23장 29-35절에서 죄로 정하고 있다. 말씀에는 절대 금주하라는 요구가 없지만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 있으니 곧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를 실족케 할 수 있을 때이다(롬 14:21). 이것은 복미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절대 알코올을 입에 못 대게 만드는 가장 의미심장한 이유이다.

장로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절대 포도주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남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포도주의 남용은 싸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장로는 구타해서도 안 된다. 그는 다른 사람을 때리는 물리적인 힘에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오만한 성직자들이 자기 교구에서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을 가끔 구타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는다. 이렇게 위압적으로 사람을 겁주는 것은 감독에게 금지되어있다.

장로는 돈을 탐해서는 안 되고(우리말 성경에는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음-역주),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끓어오르는 사람이어서도 안 되며, 돈 버는 수단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라야 한다. 사무엘 존슨이 말한 것처럼, “황금을 탐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최후의 타락상이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참 장로는 바울과 더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행 20:33). ♠

1:8 적극적인 면에서,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 그의 가정은 언제나 나그네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낙담하고 압박당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그의 집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거기서 모든 손님들은 마치 주님처럼 영접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장로는 선을 좋아해야 된다. 선한 사람들과 선한 것을

좋아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의 말과 활동과 교우관계는 그가 어둡고 의심스럽거나 잘못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장로는 근신해야 한다. 이것은 신중하고, 사려 깊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뜻이다. 이와 동일한 단어가 디도서 2장 2,5,6절에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지각 있고 절제력이 있으며 건전하며 침착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다룰 때 장로는 의로워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로는 거룩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로는 절제해야 된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서 언급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절제니.”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려면 사람은 모든 감정과 욕심을 절제해야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께서로부터 오지만 믿는 자 편에서도 자기를 다스릴 뿐더러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협력해야만 한다.

1:9 감독은 믿음이 건전해야 한다. 그는 주님과 사도들이 가르쳤고 우리를 위해 신약성경에 보존해 놓으신 영적으로 건전한 교리를 붙들고 절대 놓지 말아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할 때라야 성도들에게 균형 잡힌 건전한 교리를 공급할 수 있으며 진리를 거스려 말하는 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지역교회의 영적인 인도자들에 대한 자격요건이다. 이들의 풍채가 어떠한지, 교육정도는 어떠한지, 사회적 지위는 어떠한지, 사업수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지체부자유자, 거리 청소부나 평범한 사람, 못 배운 사람도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면 훌륭한 장로가 될 수 있다. 가끔 들리

는 말처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 있으면 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적격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

한 가지 더 언급해야 될 점이 있다. 경건한 장로 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설교자를 계획하고, 헌금 지출을 결정하며, 건물수리 계약을 하는 게 전부인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다. 참 장로는 가르침과 권면과 격려와 책망과 바로 잡는 일로써 교회의 영적인 삶에 깊숙이 그리고 긴밀히 관여하는 사람이다.

3. 지역교회의 과오들(1:10-16)

1:10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자유’, 즉 남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바울은 이러한 ‘열린’ 집회를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그런즉 형제들이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의 여러 지체를 통해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에 이런 자유가 있는 곳마다 이 자유를 남용해서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시시한 일로 문제를 삼아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거나 겉으로 볼 때는 끝없이 말을 돌리지만 성령은 없는 사람들을 어김없이 보게 된다.

그레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바울은 이러한 자유의 남용을 다스리고 성령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또 제대로 자격을 갖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바울은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할 때 신속히 조치해야 될 조건들을 상세히 적고 있다.

복종치 아니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무시했다. 이들은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였다. 그들의 말은 영적인 유익을 전혀 주지 못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진리를 빼앗고 그들을 오류에 빠지게 만들었다.

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할례당, 즉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의식을 거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유대인 교사들이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완전히 충분하다는 것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었다.

1:11 이런 사람들은 입에 망을 씌워야 한다. 이들은 교회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의 자유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이들은 짐들을 온통 엮드러치고 있었다. 이것은 이들이 해롭기 그지없는 자기네 교리를 사사로이 가정에서 몰래 전파하고 있었다는 뜻일까? 이것은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의 하나다(딤후 3:6). 그들의 동기 또한 의심스러웠다. 그들은 돈을 벌려고 발버둥쳤고 사역을 돈 버는 장사 수단으로 이용했다. 그들의 메시지는 사람 속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에 호소하여 비록 삶은 부패하고 더러워도 종교적인 행세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끔 만들었다. 이들은 더러운 이를 취하려고 자기네가 가르칠 권리도 없는 것을 가르쳤다.

1:12 여기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가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새삼 기억시키고 있다. 이 거치고 신랄한 묘사는 특히 거짓 교사들과 그레데인 대부분의 참 모습이였다. 바울은 주전 600년경에 살았던 그레데 시인이요 변사인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는 이들을 구제불능의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

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불렀다. 모든 민족은 국민적인 특성이 있지만 타락상에 있어 그레데인들을 따라갈 민족이 없었던 것 같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했으며 또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사나운 짐승과 같아서 끓어오르는 거친 욕정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 일을 하라 하면 몸서리를 치고, 탐식에 중독된 이들은 부엌만 있고 교회당은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1:13 사도는 이들의 성격을 묘사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디도의 사역대상은 희망이 안 보이는 일감이었다. 어느 선교사라도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람들은 틀렸다고 일축하지 않았으며 디도더러 이들을 포기하라는 충고도 하지 않았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조력자에게 저희를 엄히 꾸짖어서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라고 권면했다. 언젠가 이 사람들이 모범적인 신자들이 될 뿐 아니라 지역교회의 경건한 장로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힘든 지역에서(그런데 힘들지 않은 선교지가 어디 있겠는가?)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넘치는 위로를 전해주고 있다. 천박하기 그지없고 어리석으며 무반응인 사람들 너머에는 이들이 품위 있고 순결하며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리라는 이상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1:14 거짓 교사들을 엄히 꾸짖을 때 디도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말라고 경고하라는 말을 받았다. 유대주의자들은 종교적인 환상과 규칙의 세계에 살았

는데 이 규칙의 중심은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에 대한 것이며 날들을 지키는 것과 예식을 더럽히는 일을 피하는 것 등에 관한 것이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고 썼던 것이다.

1:15 그 다음에 사도가 한 말은 너무나 잘못된 해석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도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라고 썼다.

만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라는 말만 문맥에서 떼어내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라고 본다면 우리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제로 이 구절을 이용해서 악한 잡지와 외설 영화와 심지어 음란 행위까지도 정당화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벧후 3:16).

이 구절은 그 자체가 죄악된 것들과 성경에서 죄라고 정한 것들과는 절대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이 잠언 형식의 말씀은 문맥에 비추어 이해해야만 된다. 지금까지의 문맥에서 바울은 명백하게 도덕성 여부가 드러나는 문제, 본디부터 옳고 그름이 분명한 것들에 대해 말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도덕적인 무관심, 율법 아래 사는 유대인들을 의식상으로는 부정케 하는 것이지만 은혜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들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것의 단적인 예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지되었지만 주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속에 들어가는 어떤 것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바꾸셨다(막 7:15).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막 7:19). 바울은 이 진리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고전 8:8)는 말로 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가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라고 할 때는 거듭난 모든 신자에게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지만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막 7:20-23). 사람의 내면의 삶이 부정하다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에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식사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는 거듭나야 되며, 의식과 율법주의를 통해 구원을 따내어 보려고 애를 쓰지 말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야 된다. 더럽혀진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이야말로 부패해 있다. 그들의 정신작용과 도덕적인 능력은 더럽혀져 있다. 문제는 외면적으로 의식상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데 있다.

1:16 거짓 교사들, 즉 유대주의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체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 자신의 신랄한 징책을 강하게 하려고 사도는 이들을 가증

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비난했다. 이들의 개인적인 행위는 가증스럽다. 하나님의 눈에 이들의 행실은 어리석은 불순종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대한 선행에 있어서 이들은 전혀 무가치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이토록 강한 말을 쓴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 안에서 한 것일까? 답은 물론 그렇고 말구다. 사랑은 죄에 대해 그럴듯하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법이 없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고, 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더럽히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었다. 이런 속이는 자들을 마냥 내버려두는 것은 죄다.

4. 지역교회의 처신(2:1-15)

2:1 거짓 교사들의 삶은 성경이 아니라 모독이었다. 그들은 자기 행실로 믿음의 위대한 진리를 부인했다. 대단히 거룩한 척 말은 늘어놓으면서 거짓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보다 기독교의 간증을 더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을까? 디도에게(또한 주님의 진실한 종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은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과 그 삶 사이에 벌어진 그 끔찍한 틈을 메워야 했다. 실제로 본 서신의 주제는 바로 이것이다. 즉 선행으로 건전한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음 구절들은 이 선행들이 어떤 것들인지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2:2 먼저 우리는 늙은 남자에 대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공식적인 의미로 장로는 아니며 육신적으로 연령이 많고 성숙한 사람을 말한다. 늙은 남자들은 절제해야 된다. 일차적으로는 포도주를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지만 거기서 나아가 모든 행실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은 경건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지만 침울한 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도 이미 자기 근심만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늙은 사람들은 근신하고, 균형이 잡히고 또한 신중해야 된다. 이들은 믿음이 “건전”(우리말 성경에는

“온전케 하고”로 나옴-역주)해야 된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냉담해지고, 분을 품으며, 비관적이 된다. 믿음이 건전한 사람들은 감사하며, 낙관적이고, 또 사귀기 좋다. 늙은이들은 사랑에 온전해야 된다. 사랑은 자기가 중심이 아니다. 사랑은 남들을 생각하며 또 주는 데 뛰어나다. 늙은이들은 또한 인내함에 온전해야 된다. 나이 들면 몸은 약해지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며, 이것은 흔히 견디기 어려운 법이다. 인내에 온전한 사람들은 시련 중에도 기쁨 있게 또한 견고하게 참아낸다.

2:3 늙은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하찮은 문제에 온통 생각이 쏠려 있는 경솔한 여자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소서! 늙은 여자들은 “참소”치 말아야 된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마귀”(diabolos)를 가리키는 단어다. 악독한 참소는 그 근원과 성격에 있어 마귀와 같으므로 이 단어는 적합하다. 늙은 여자들은 많은 술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사실 어느 음식이나 음료수, 약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된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늙은 여자들은 가정에서 가르치라는 명을 받았다. 이러한 사역의 잠재력을 누가 측량할 수 있을까!

2:4 구체적으로, 나이든 여자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했다. 여러 해에 걸친 성경 공부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이들은 이제 인생의 초년생인 이들에게 값진 충고를 전해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 오는 세대는 저마다 고생하며 어렵게 교훈을 배우게 되며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가르치는 책임이 늙은 여자에게 지워져 있긴 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라면 누구든지

손위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깊이 사귀고 그들의 충고와 경책을 구하려 할 것이다.

젊은 여자를 가르쳐 남편을 사랑하게 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남편이 출근할 때 그저 입맞춰주라는 것 정도가 아니다. 여기에는 아내가 그 남편을 정말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남편 없이는 절대 큰 문제를 사사로이 결정하지 않고, 집을 단정하게 잘 가꾸고, 개인적인 외모에 신경을 쓰고, 수입에 맞게 살고, 신속히 자백하고, 관대하게 용서해주고, 언제나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헐뜯거나 남편의 말을 뒤집는 것을 자제하고, 사정이 어려울 때 남편을 밀어주는 것 등이다.

젊은 여자는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는 자녀들과 함께 읽고 기도하며,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놀이터에서 돌아올 때 집에 있고, 단호하고 공정하게 징계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이 세상을 위해 살다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2:5 젊은 여자를 가르쳐 근신하게 하라고 했다. 근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합당한 지를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는 것이며 극단적인 것을 피하는 것이다. 젊은 여자들은 정숙해야 되며 (우리말 성경에는 “순전해야”로 나옴-역주), 자기 남편에게 신실해야 되고, 그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에 일체의 불순함이 없어야 된다. 또 집안 일을 잘 해야 된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봉사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이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산업체나 회사에서 근무하며 가정과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보다 아내와 어머니로서 주님을 가정에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영예인지를 거듭 되풀이하여 가르쳐야 한다. 젊은 여자들에게는 선을 베푸는 법, 곧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법과 어떻게 접대하고 은혜롭고 관대한 사람이 되며, 또 어떻게 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 되지 않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젊은 여자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며,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해야 된다. 만일 아내가 남편보다 더 은사가 있고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남편을 주장하지 말고 남편을 격려하고 도와서 가정의 인도자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가정을 이끌게 하고 지역교회에서 더 활발히 섬기게 해야 한다. 만일 바가지를 긁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면 그 유혹을 물리치고 대신 남편을 칭찬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 편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주님의 백성들이 일관성 없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끼친 누를 의식하고 있다.

2:6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강권하지는 않았다. 사려 깊게도 이 사역은 나이든 여자들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나 디도는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특히 젊은 남자들로 하여금 근신하게 하고 자기를 다스리게 하라고 충고했다. 적절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청춘은 열성이 끓어오르고 활력이 넘치며 욕구가 불타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 그들은 절제와 균형을 배울 필요가 있다.

2:7 바울은 디도에게도 특별히 충고를 한 마디 주고 있다. 교회

에서 영적인 사역을 맡은 사람으로서 디도는 선한 일의 본을 보이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의 교훈과 삶 사이에는 간격이 좁아야 했다. 그의 가르침은 “순전함”(우리말 성경에는 없으나 흠정역과 기타 일부 역본에는 나옴-역주)과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이 그 특징을 이루어야 한다. 순전함이 의미하는 것은 그의 가르침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다. 바울이 경건함이라고 한 것은 가르침이 위엄 있고 현명한 것이라야 된다는 뜻이다. 부패치 아니함은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현대 성경 역본에는 빠져있지만³⁾, 진리의 길을 가면서 결코 부패할 수 없는 진실한 교사와 관계 있는 덕목 중 하나이다.

2:8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은 결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여기에는 부차적인 문제도, 희한한 교리도, 일시적 유행이나 조잡함 따위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사역은 누구도 감히 거스릴 수 없다. 바른 가르침을 대적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믿는 자의 삶에서 단 하나의 틈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룩한 삶만큼 효과적인 논증은 없다!

2:9 이제 종들에 대한 특별 지시가 나와 있다. 우리는 성경이 구태여 옳다고 인정하지 않은 제도에 대해서도 그 존재여부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여러 족장들이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일부다

3) (2:7) 흔히 그러듯이(NKJV의 각주를 보라), 비평 사본은 생략에 찬성한다. 비평 사본은 현존하는 최고 사본(대부분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다)에 기초하고 있다. KJV와 NKJV는 전통 사본(TR)을 선호하는데 전통 사본은 다수 사본의 지지를 대부분 받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처제는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제도의 부당함과 잔인함을 결코 인정하신 적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 주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동시에 신약에서는 무력 혁명에 의한 노예제도의 타도를 옹호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신약은 복음의 능력으로 노예제도의 남용을 정죄하고 또한 없앤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해지고 가르침 받은 곳이면 어디서나 노예제도의 악은 사라졌다.

그러나 한편 노예제도가 아직도 존재하는 곳에서는 노예가 기독교의 최고 증인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았다. 노예는 그리스도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다. 신약에 보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보다 노예(우리말 성경에는 “종”으로 나옴-역주)에게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데 대한 실마리인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인 종은 주님께 불순종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종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순종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결과를 묵묵히 참아내야 된다. 종들은 모든 면에서 만족을 주어야 되는데, 양과 질 면에서 모두 생산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모든 봉사는 그리스도께 하듯 할 수 있으며 그분께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종들은 거스려 말하거나(또는 대꾸하거나) 뻔뻔스러우면 안 된다. 많은 노예들이 기독교 초창기에 자기 주인을 주 예수님께 인도하는 특권을 누렸으니 이는 그들과 불신 노예들 사이에 차이가 너무나 현저했기 때문이다.

2:10 당시 가장 현격한 차이점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노예들은 누구나 범하는 죄, 곧 떼어먹는 짓을 결코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의식이 이들로 하여금 정직을 엄격히 지키도록 붙들어 매었던 것이다. 공개 경매에서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더 높은 가격이 매겨졌다면 이것이 놀랄 일일까? 일반적으로 이들은 철저하고 진실한 충성을 다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들은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으며, 그리함으로써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 종들이 그러했다면 오늘날 남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러해야 마땅하다.

2:11 다음 네 구절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다. 그러나 문학적인 미문(美文)이라는 점에만 빠져 있다가 그 배경을 놓쳐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 모두가 일관성 있는 행실을 보여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제 그는 우리 구원의 큰 목적 중 하나는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과 동의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성(行星)을 찾아오셨을 때, 특히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주셨을 때 나타났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나타나셨다. 그분의 대속사역은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에 충분하다. 진실한 용서와 죄사함을 모든 사람에게 제시하셨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분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뿐이다. 여기에서, 아니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모든 사람이 결국에 다 구원받으리라는 암시는 전혀 없다. 만인구원론은 마귀의 거짓말일 뿐이다.

2:12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은혜가 또한 우리를 거룩의 학교에서 훈련한다. 이 학교에는 ‘금지 사항’이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버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 첫 번째는 경건치 않은 것인데 여기서는 무종교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이 세상 정욕인데 단지 성적인 범죄 뿐만 아니라 부와 권력, 쾌락, 명예에 대한 욕심, 또 본질적으로 세상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지 않는 것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은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 근신하며 의롭게 살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특징을 이뤄야 되는 미덕들이며,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곳은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곳일 뿐 마지막 본향이 아니다.

2:13 이 세상에 외국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놀라운 소망을 인해 격려를 받는다.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교회에게 나타나셔서 천국으로 교회를 데려가는 휴거라고 분별한다(살전 4:13-18). 아니면 혹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세상에 나타나사 원수를 물리치시고 자기 나라를 세우시는 지상강림을 말하는 것일까(계 19:11-16)? 기본적으로 우리는 바울이 첫 번째 강림, 곧 그리스도께서 자기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려고 오시는 공중 강림을 의미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강림하시든지 아니면 왕으로서 오시든지 간에 믿는 자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에 대비하고 또한 이를 기다려야 된다.

2:14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그분이 처음 세상에 강림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신 목적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셨으며 이는 우리를 죄의 가책과 형벌로부터 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려 하심이었다. 만일 죄의 형벌은 취소되었으나 죄가 우리 삶을 주장하는 것은 정복되지 못하고 여전했다면 이는 반쪽 구원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1611년 판 킹 제임스 성경은 이상하게도 “별난 사람들”(a peculiar people)이라고 되어 있다.⁴⁾ 너무나 자주 우리는 별난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도하신 바와는 달리 별나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상하고 괴상한 사람들로 만들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 세상이나 우리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려 함이셨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사람들이 스포츠와 정치와 사업에 대해 가진 열심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되며 정신을 차리고 선한 일을 하려는 자극을 받아야 된다.

2:15 디도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라는 명을 받았다. 즉 앞의 몇 구절에서 살펴본 모든 것과 특히 구주의 받으신 고난의 목적을 가르치라는 것이었다. 디도는 성도들을 권하여 실제로 경건한 삶을

4) (2:14) “유별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변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상하게 들린다. 흠정역(KJV)은 매우 정확한 번역본이다. 이른 바 “오류”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여기서처럼) 거의 400년에 걸친 영어의 변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살게 하고, 말로나 행실로 사도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책망해야 했다. 또한 그는 능력 있는 사역을 해나가면서 일체 사과를 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권위로 또한 성령의 주신 담대함으로 일을 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했다. 디도는 자신이 젊다는 것과 이방인의 배경을 가진 것, 아니면 혹 있었을 지도 모르는 어떠한 타고난 신체의 불구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

5. 지역교회에 대한 권면 (3:1-11)

3:1 디도는 그레데 교회의 신자들에게 정부에 대한 그들의 책임이 어떠한 것인지를 재차 기억하게 해주어야 했다.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모든 정부가 하나님의 세우신 바라는 것이다(롬 13:1). 어떤 정권은 매우 비기독교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일 수 있지만 어떤 정부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정부가 없으면 곧 무정부며 사람들은 무정부상태에서 오래 버틸 수 없다. 통치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그는 공식적인 지위에 있어서 “주께 기름부음을 받은 자”며 그에 상응하는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정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수를 넘어서 믿는 자더러 하나님을 불순종하라고 명령한다면 믿는 자는 사도행전 5:29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원칙에 입각해 그 명령을 거부해야 된다. 만일 처벌을 받는다면 주님께 하듯 온유하게 처벌을 견뎌야 한다. 믿는 자는 반국가적인 반란 행위에 결코 가담해서는 안 되며 폭력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려 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

믿는 자들은 교통 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을 지켜야 되며, 세금과 각종 공과금을 납부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믿는 자는 법을 준수하고, 공손하며, 순종적인 국민이라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마땅한 책임과 관련해서 이 세상과 현격히 차이 나는 영역이 세 가지 있다. 이것은 투표 문제, 정치 입문 여부, 전투 군인으로 전쟁에 참가해야 되느냐는 세 가지 문제이다. 처음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는 지침이 다음과 같이 성경에 나와 있다.

(1)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요 17:14,16).

(2) 전 세계는 악한 자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다(요일 5:19 하반절, 2:17; 요 12:31).

(3)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세상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이다.

(4) 믿는 자가 세상의 특정 국가 시민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피하지만 그의 일차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자신을 여기서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여겨야 된다(빌 3:20; 벧전 2:11).

(5) 현역 군인은 자신의 사사로운 생활 문제에 얽매어서는 절대 안되며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딤후 2:4).

(6) 주 예수님께서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요 18:36)라고 하셨다. 그분의 사신인 우리는 이 진리를 세상에 제시해야 한다.

(7) 정치는 그 본질상 부패하게 마련이다. 정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고후 6:17-18).

(8) 투표할 때 그리스도인은 의롭고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게 대개 표를 찍어주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람 중에 지극히 천한 사람을 높이 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더러 있다(단 4:17).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할 수 있을까?

남은 한 가지 문제는 믿는 자가 나라의 명을 받았을 때 전쟁에 참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찬반양론이 치열하지만 필자의 견해는 양쪽의 증거를 공정하게 살펴볼 때 참전하지 않는 쪽이 옳다고 본다. 위에서 나열한 원칙들이 이 문제와 연관이 있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가 더 있다.

(1) 우리 주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종들이 싸우리라”(요 18:36)고 하셨다.

(2) 주님은 또,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마 26:52)고 하셨다.

(3)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이 개념 자체가 “네 원수를 사랑하라”(마 5:44)고 하신 분의 가르침과는 반대다.

무기를 드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 기피자나 비전투원으로 등록해도 되는 나라에 산다면 이는 감사할 일이다.

또 한편으로,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명예롭게 전투에 참가했다. 그들은 신약이 백부장(고넬료와 올리우스)을 매우 좋게 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군사적인 표현을 빌어서 “그리스도인의 전투”(warfare; 우리말 성경에는 “씨름”으로 나와 있음-역주)를 묘사하고 있다(예: 엡 6:10-17). 만일 군복무가 본래부터 그릇된 것이라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우리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라고 권면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견해를 지지하든 간에 우리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의견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있는 또 한 가지 의무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는 것이다. 모든 직업이 다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오늘날 많은 광고는 그 밑에 거짓말이 깔려 있으며 어떤 기업체들은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해로운 상품을 팔기 때문이다. 선한 양심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런 직업은 피해야 된다. ♠

3:2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훼방하면 안 된다. 다른 곳에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통치자를 훼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출 22:28; 행 23:5). 이 명령은 열띤 정치유세 때나 탄압과 핍박을 받는 때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여기서 이 명령이 내려진 것은 모든 사람을 조롱과 비방과 모욕, 혹은 욕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훼방하지 말라는 이 단순한 규례에 순종한다면 얼마나 많은 슬픔과 환난을 피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투지 말고 말싸움을 피해야 된다. 싸움이 벌어지려면 혼자서는 안 된다. 누가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말씀을 전한 내용 중 별로 대단찮은 문제에 대해 싸움을 걸려고 하면 박사는 으레, “그래요, 형제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중 한 사람이 틀렸을 거고 아마 그 사람은 저일 겁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모든 논쟁은 끝나버린다.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 이 성품을 생각할 때 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은 부드러운 태도에다 친절하셨고, 다투시는 법이 없었으며 화평케 하셨다. 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겸손, 또는 예의를 나타내야 한다(우리말 성경에는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했으나 흠정역에서는 “...온유하며[gentle] 모든 겸손함[mee-kness]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했으며 NIV에서는 “...남을 고려해 주고[consi-

derate] 모든 사람에게 참 겸손[true humility]을 나타내라”고 했음-역주). 예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 하나로 가르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근본적으로 예의는 겸손하게 남들을 생각해주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고려하고, 정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예의는 자기보다 먼저 남들을 섬기고, 도움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누가 친절을 베풀어주면 즉시 고마움을 표시한다. 예의는 결코 버릇이 없거나 저속하거나 무례하지 않다.

3:3 강하게 윤리문제를 다루던 도중에 사도는 또 다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대표적인 교리를 도입하면서 우리 구원의 목표가 선행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담긴 가르침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 (1) 구원받기 전의 우리 상태(3절),
- (2) 우리 구원의 본질(4-7절),
- (3) 구원의 실제적인 결과(8절).

구원받기 전의 우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묘사에는 조금의 아첨도 없다. 우리는 모든 해답을 다 알고 있는 척 했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였으며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고 어리석게 선택하고 또한 그렇게 행동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했으며 또 부모와 다른 주권자들에게도 그랬는지 모른다. 우리는 마귀와 우리의 비뚤어진 판단에게 속아서 늘 바른 길을 놓치고 결국 막다른 길에 도달하고 말았다. 우리는 각색 부정한 습관을 섬겼으며 악한 사고 생활에 종노릇했고 온갖 죄악을 따라다녔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독과 투기를 품어대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었다. 사랑받을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던 우리는 비참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했다. 다투는

이웃과, 서로 싸우는 같은 회사 직원들, 사납기 그지없는 경쟁을 벌이는 사업가들과, 불화로 들끓는 가정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얼마나 서글픈 논평인가!

3:4 인간의 타락에 대한 암울한 실상은 성경의 위대한 “그러나”(우리말 성경에는 없음-역주) 중 하나가 나오면서 중단되고 만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사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있던 인간을 구원하시리라는 신호가 되어준 이 안성맞춤의 접속사(그러나)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 어떤 이는 이 접속사를 가리켜 “인간이 지옥으로 가던 길 위에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장애물”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1,900여 년 전에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사 반역하는 죄인들의 세상을 위해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나타내신 것이다. “사랑하심”이라는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는 박애(philanthropy)라는 단어의 뿌리다. 이 단어는 사랑, 자비함, 연민 등의 의미를 다 담고 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다. 주 예수님 또한 우리 구주 하나님이 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사함을 받고 용서받기 위해 필요한 형벌을 친히 받으셨기 때문이다.

3:5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의 허물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

원하셨는데 이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한다. 이 죄들은 우리 구주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이 그 모든 죄를 가리웠을 때 모두 미래였다. 그러나 복음의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 중 하나가 사람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구원이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착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변함없이 증거하고 있는 바는 노력한다고 구원을 획득하지 못하며, 무슨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엡 2:9; 롬 3:20, 4:4-5, 9:16, 11:6; 갈 2:16, 3:11). 사람은 선행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그의 모든 의로운 행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사 64:6). 사람은 그리스도인처럼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천국에 간다!

선행이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한다. 선행은 구원의 결과다. 참된 구원이 있으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선행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으셨다”고 나와 있다. 구원은 긍휼이 하는 일이다. 공의가 하는 일이 아니다. 공의는 받아 마땅한 형벌을 내리라고 요구한다. 긍휼은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의로운 길을 전해준다.

하나님께서서는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은 진실로 새로운 창조며(고후 5:17), 여기서 새로운 창조는 목욕에 비유해서 나와 있다. 이는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나는 데는 단 한

번 목욕하면 되지만 더럽혀지면 여러 번 씻을 필요가 있다고 가르치셨을 때 사용하신 비유와 동일한 것이다(요 13:10). 이 중생의 목욕은 세례와 전혀 무관하다. 이것은 물로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덕적인 씻음을 받는 것이다(요 15:3). 세례는 이 목욕의 상징조차도 아니다. 오히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죽은 것을 묘사해주는 것이다(롬 6:4).

우리의 중생을 가리켜 또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서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 옛 사람에게 새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옷 속에 집어넣는 것이다! 성령님께서서는 중생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도구다.

3:6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믿는 자는 모두 거듭나는 순간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거하신다. 여기서 말한 영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데는 성령님만 계시면 충분하다. 성령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바 되었다. 바로 궁정의 부요함이 요셉의 증보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에게 전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주 예수님의 증보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셉’이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 복되신 삼위일체의 세 위께서 모두 언급되셨다. 성부 하나님(4절); 성령님(5절); 성자 하나님(6절).

3:7 우리가 중생한 직접적인 결과는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한

놀라운 은혜의 행위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는 후사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또 그분과 같이 되는 것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3:8 바울이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앞부분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본 구절의 나머지 부분일까? 바울이 편 주장의 핵심은 이토록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토록 놀랍게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디도는 그레테에서 사역하면서 이 여러 것(1-7절에서 다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야 했는데 그리함으로써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되기 때문이었다. 선한 일이라는 표현이 기품 있는 직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일반적인 선행)가 옳다고 보인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고백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가르침이 아름답고 유익하다. 모든 가르침은 개인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9 물론 주님의 일을 하면서 피해야 될 짓은 늘 있다. 바울 당시에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안식일의 규례, 성일을 지키는 문제 등을 놓고 어리석은 변론들이 벌어졌었다. 천사와 사람들의 족보에 대한 논쟁도 발생했다. 율법에 덧붙여진 까다로운 규정들을 놓고도 말다툼이 벌어졌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혐오했는데 이는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주의 종들은 아래 과오들을 피함으로써 바울의 충고를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이다. 영적인 실체보다 그 방법에 지나치게 집

착하는 것(예를 들어 발효된 포도주를 쓰느냐 아니면 포도즙을 쓰느냐, 무교병이나 아니면 유교병이나, 각 잔을 쓰느냐 분잔을 쓰느냐와 같은 문제를 놓고 벌이는 해묵은 논쟁 따위이다) 마치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논쟁을 벌이고 있다!

말을 가지고 쓸데없이 따지고 드는 것.

한 가지 진리나 한 가지 진리의 한 측면만을 세세히 다루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는 것.

성경을 비유로 해석해서 결국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

사소한 신학적 문제를 놓고 물고 늘어져서 누구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논쟁.

말씀으로 시작해서 정치 문제로 빠지고 기독교가 이르면 안 되니, 저러면 안 되느니 하는 논쟁에 이르기까지 해매는 것.

세상이 멸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다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비극인가!

3:10 이런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는 이단이다.⁵⁾ 이 사람은 대개 자기 바이올린에 한 가지 음조만 고집하며 죽을 때까지 그것만 연주한다. 곧 그 주위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한 때가 모이고 이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은 쫓아버린다. 그는 자기가 유달리 좋아하는 교리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모임을 분열시키려 한다. 어떤 교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참아서는 안된다. 한두 번 경고했는데도 고치려 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5) (3:10) 흥정역의 이단(heretic)이란 단어는 “당파를 짓는다” 또는 “분열을 일으킨다”(divisive—NKJV)는 뜻을 지닌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대개 잘못되었거나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지만 오늘날 이단을 가리키는 단어 “heretic”은 나중에 “hairetikos”라는 단어 자체가 발달한 것이다.

지역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과 사귀려는 어떠한 접촉도 자제해야 된다. 바라는 바는 이렇게 출교됨으로써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 더욱 균형 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다.

3:11 누구라도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 심각한 위협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까봐 사도는 이 사람은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사람의 행동은 기독교의 한 분파로 볼 수 없으며 도리어 부패한 자다. 이 사람은 당을 짓고 파를 만듦으로써 죄를 짓는다. 이 사람은 스스로 정죄한 자인데 이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에도 자신의 악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놓지 않기 때문이다.

6. 결론(3:12-15)

3:12 본 서신은 몇 가지 디도에게 명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 바울은 그레데의 디도와 교체할 사람으로 아테마나 두기고를 보내려 했다. 우리는 전에 두기고를 사도행전 20:4과 에베소서 6:21, 그리고 골로새서 4:7에서 만날 수 있지만, 아테마는 여기 외에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다. 디모데후서 4:12로 볼 때 두기고는 그레데가 아닌 에베소로 보냄 받은 것 같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테마가 그레데로 대신 갔던 것 같다. 디도는 도착하자마자 니고볼리로 가야 했으며 거기서 바울은 겨울을 날 예정이었다. 그 당시에는 니고볼리라는 도시가 최소한 일곱 군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디도가 그리이스 서부의 에비루스에 있는 니고볼리를 택했다고 믿는다.

3:13 디도를 찾아올 손님이 몇 명 있었는데 이들은 교법사 세나와 아블로였다. 아마도 이들이 바울에게서 이 서신을 받아 디도에게 전해주었던 것 같다. 그 당시에 교법사는 두 종류였는데 종교적인 율법을 설명하는 서기관이 하나요, 또한 민법상의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가 있었다. 세나가 어느 쪽에 속하는 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필자는 서기관이라는데 표를 던지는 입장인데 이는

세나가 모세의 율법에 대해 사사건건 벌어지는 논쟁을 잠잠케 하는 일에 도움을 달라는 디도의 초빙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서다(9절). 만일 세나가 민법 변호사였다면 정직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신약을 읽을 때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다른 말씀은 오직 사도 행전 18장 24-28절과 고린도전서에 한 번 나와 있을 뿐이다. 아마도 이 사람은 동일인으로 보인다. 바울이 디도에게 이 두 사람을 속히 떠나보내라고 말했을 때 여기에는 이들이 그레데에 머무는 동안 잘 접대하고 앞으로 남은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라는 권면이 담겨 있다.

3:14 디도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우리 사람들)에게 접대를 잘하고, 병든 자와 환난 받는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라고 가르쳐야 했다. 이들은 자기 필요와 어려움만 해결하고자 일할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돈을 번다는 분명한 기독교적 목적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엡 4:28). 이렇게 하면 이기주의라는 불행과 열매 없이 낭비된 인생이라는 비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3:15-16 끝맺는 인사는 늘 그렇고 별 대단찮은 것이라며 일축해서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적고 멸시받으며 핍박받는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친절한 말이 크나큰 사랑과 우정과 위로를 전달해 준다. 사도와 함께 있는 모든 자가 디도에게 문안했고 디도는 믿음 안에서 바울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문안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의 인생을 사로잡았던 주제, 곧 주의 은혜로 편지를 끝맺고 있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고 문헌 목록

Bernard, J. H. The Pastoral Epistl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9.

Erdman, Charles R. The Pastoral Epistles of Pau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23

Fairbairn, Patrick.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Edinburgh: T. & T. Clark, 1874.

Guthrie, Donald. The Pastoral Epistles, (TBC).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7

Hiebert, D. Edmond. First Timothy. Chicago: Moody Press, 1957.

Hiebert, D. Edmond. Second Timothy. Chicago: Moody Press, 1958.

Hiebert, D. Edmond. Titus and Philemon. Chicago: Moody Press, 1957.

Ironside, H. A. Addresses, Lectures, Expositions on Timothy, Titus, and Philemon. New York: Loizeaux Bros., 1947.

Kelly, William. An Exposition of the Epistle of Paul to Titus. London: Weston, 1901.

Kelly, William. An Exposition of the Two Epistles to Timothy,

3d Ed. Oak Park, IL: Bible Truth Publishers, n.d.

Kent, Homer A. *The Pastoral Epistles*. Chicago: Moody Press, 1958.

King, Guy H. *A Leader Led: A Devotional Study of I Timothy*. Fort Washington, Pa.: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44.

King, Guy H. *To My Son: An Expositional Study of II Timothy*. Fort Washington, Pa.: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44.

Lock, Wait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ICC)*. Edinburgh: T. & T. Clark, 1924.

Moule, H. C. G. *Studies in II Timothy*.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77.

Plummer, Alfred. *The Pastoral Epistles*. New York: George H. Doran Company, n. d.

Smith, Hamilton. *The Second Epistle to Timothy*. Wooler, Northumberland, England: Central Bible Hammond Trust Ltd., n.d.

Stock, Eugene. *Plain Talks on the Pastoral Epistles*. London: R. Scott, 1914.

Van Oosterzee, J. J. "The Pastoral Letters."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Vol. 23.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n. d.

Vine, W. E. *Exposition of the Epistles to Timothy*. London: Pickering & Inglis, 1944.

Wuest, Kenneth S. *The Pastoral Epistles in the Greek New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3.

빌레몬서

빌레몬서 서론

“진실로 서신 작법의 작은 걸작이다.”-어니스트 리넨(Ernest Renan)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오네시모다.”-마르틴 루터

1. 정경에서 차지하는 고유한 위치

바울이 보낸 이 작은 서신이 없어도 우리는 문제없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전적으로 틀렸다. 우선 첫째로 이 서신은 사도가 온 마음을 쏟아서 쓴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널리 인정받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쓴 개인 서신으로는 주옥편이다. 이 서신은 같은 주제(도망한 노예)에 대해 로마 사람 플리니 2세가 자기 친구에게 쓴 세속적인 편지와 흔히 비교된다. 우아한 수사법을 제외하고는 바울의 서신이 단연 압권이다.

이 작은 서신은 바울의 예의와 재치(번득이는 유머감과 더불어) 또 사랑어린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리를 드러내놓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으나 바울이 “이것을 내게로 회계하라”고 명했기에 이 서신은 ‘전가’(轉嫁)의 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네시모가 잘못된 것이 바울에게 회계되었고 바울이 갚을 능력이 있었던 것이 오네시모의 절망적인 상태에 적절히 사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를 우리 주님께 “전가된”, 즉 “회계한바 되었으며”, 우

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 위대한 개혁자 루터가 다음과 같이 쓴 것은 놀랄 일이 못된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불쌍한 오네시모를 위해 자기를 내놓고 자기가 가진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그 주인에게 그의 처지를 항변해 주는지, 그래서 마치 자기가 오네시모가 되어 빌레몬에게 그 모든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처신하는지를 보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하고 있다…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다 오네시모다.”¹⁾

2. 저자

가장 부정적인 비평가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빌레몬서는 바울이 썼다는 것을 인정한다. 실제로 리넨은 이 서신이 바울이 썼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이 서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골로새서를 바울이 썼다는 점을 거부하던 자신의 생각에 회의를 가졌을 정도다.

빌레몬서는 이토록 짧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 서신을 그다지 많이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랄 일이 못된다.

(1) 외부적인 증거

빌레몬서는 이그나티우스, 터툴리안, 오리겐의 글에 인용되거나 암시되고 있다. 유세비우스는 이 서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는 책(homologoumena)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마르시온(Marcion)

1) 마르틴 루터, J. B. 라이트푸트(Lightfoot) 인용, Saint Paul's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317, 318쪽(현 편집자가 개정 번역했음).

은 본 서신을 자신의 “정경”에 포함시켰으며, 무라토리아 정경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2) 내부적인 증거

이 짧은 서신에서도 바울은 자기 이름을 세 번이나 밝히고 있다 (1,9,19절). 2,23,24절은 골로새서 4장 10-17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양 서신은 그 진본성을 뒷받침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리하여 내부적인 증거는 외부적인 증거와 일치한다.

3. 기록연대

이 편지는 골로새서와 동시에(주후 60년 경), 아니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대략 30년 뒤에 발송되었다.

4. 배경

본 서신서의 배경을 이해하자면 본 서신 자체의 내용과 바울이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짜 맞추어 보아야 한다. 빌레몬은 골로새 거민이었던 것으로 보이며(골 4:17과 빌레몬서 2절을 참조할 것), 사도 바울을 통해 구원받았던 것 같다(19절). 빌레몬의 노예 중 하나인 오네시모가 그에게서 도망갔으며(15-16절),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소유도 일부 떼어먹었다는 암시가 나와 있다(18절).

이 도망자는 바울이 수감 중이던 시기에 로마로 왔다(9절). 사도

가 이 당시 실제로 감옥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 기간 중에 셋집에서 지낼 수 있는 자유를 허락 받았는지(행 28:30)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흥미 있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면서 오네시모는 이 혼잡한 대도시에서 바울을 만났고 그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께 인도되었다(10절). 그 후 여러 날이 지나면서 피차 사랑으로 가까워졌고(12절) 오네시모는 사도에게 귀중한 조력자임이 드러났다(13절). 그러나 두 사람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과거에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것이 합당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썼으며 오네시모를 위해 대신 구하고 그가 다시 주인의 따뜻한 은혜를 입어야 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했다(17절). 바로 이 무렵 바울은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도 썼다. 그는 두기고에게 우편배달부의 임무를 맡겼고 그와 함께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돌려보냈다(골 4:7-9).

본 서신은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개인적이다. 디모데서와 디도서도 개인에게 보낸 편지지만 사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교회 규례 문제를 다루고 있다.

5. 개요

1. 인사(1-3절)
2. 바울의 빌레몬에 대한 감사와 기도(4-7절)
3. 바울의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8-20절)
4. 맺는 말(21-25절)

1. 인사(1-3절)

1:1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사도라 하지 않고 갠힌 자로 소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어찌면 불리할 수도 있는 낮은 신분에서 탄원하는 쪽을 택했다. 그러나 사도는 이렇게 낮은 신분을 하늘의 영광으로 장식한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갠힌 자였다. 단 일본도 그는 로마의 죄수로 자기를 낮추려 하지 않았다! 그는 로마 황제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을 보았다. 디모데는 바울이 편지 쓸 때 곁에 있었으며 그래서 분명 바울이 쓴 편지이지만 이 충성된 제자를 자기와 하나로 묶고 있다.

주 수신인은 빌레몬이다. 그의 이름은 “사랑받는”이란 뜻인데 그가 자기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 바울이 그를 가리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했기 때문이다.

1:2 압비아는 여자 이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가 빌레몬의 아내였다고 추측한다. 이 편지의 수신자 중 일부가 여자라는 사실은 기독교가 여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떠올리게 해 준다.²⁾ 나중에 우리는 본 서신이 어떻게 노예를 높여주는지도 보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의 거룩하게 된 상상력은 거의 변함없이 아킵

2) (2절) 그리스도인 여성과 이교도 및 무슬림 여성의 지위를 비교해 보면 진짜 “여성 해방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보를 빌레몬의 아들로 보았다. 확신은 할 수 없으나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인의 전투에 적극 동참했다고 알고 있다. 바울은 그를 함께 군사된 자로 존중하고 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주 예수님의 현신된 제자로서 거룩한 열정에 불타고 있는 사람으로 그려볼 수 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아킵보를 골라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골 4:17).

만일 빌레몬과 암비아와 아킵보가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은 신약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준다. 이 구절로 볼 때 빌레몬의 집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집회 장소였음이 분명한 것 같다. 이들은 바로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공부를 했다. 여기서부터 그들은 나가서 결코 자신들의 메시지를 반기지 않지만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리스도인들은 빌레몬의 집에서 만날 때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였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 모두 여기서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온전한 식구였다. 일상의 직장 생활로 돌아가지마자 이들의 사회적인 구별은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주의 만찬 때에는 이들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동일한 신분이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보다 상석을 차지하는 법이 없었다.

1:2 바울의 특징적인 인사말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바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쏟아 부으시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은총이다. 여기서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안

정하게 해주는 영적인 고요함과 평정이다. 이 두 가지 축복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나온다. 이것은 너무나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주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을 내리심에 있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가 만일 진실로 또한 완전히 하나님이 아닌데 그분께 이런 영광을 돌린다면 휘방일 것이다.

2. 바울의 빌레몬에 대한 감사와 기도 (4-7절)

1:4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존귀한 형제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입은 사람이라고 믿어도 무방하다. 그는 친구와 형제로 삼고 싶은 그런 인물이었다. 어떤 주석가들은 바울이 이 구절을 시작하면서 외교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그의 목적은 오네시모를 되돌려 받기 위해 빌레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사도의 동기를 비열하다고 여기는 것이며 영감으로 된 본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행위이다. 바울은 진정한 의미로 말하지 않을 바에는 그런 말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이다.

1:5 빌레몬의 인격에는 바울을 크게 기쁘게 하는 두 가지 면모가 있었으니 곧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그의 사랑과 믿음이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믿음은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뿌리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모든 성도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에게 열매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믿음은 생산하는 믿음이었다.

에베소서 1장 15-16절과 골로새서 1장 3-4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들을 받는 성도들로 인해 비슷한 감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거기

서는 사랑보다 믿음을 앞세웠다. 여기서서는 믿음보다 사랑을 앞세웠다. 왜 다를까? 매클라렌(Maclaren)은 이렇게 답한다.

“여기에 나온 순서는 분석의 순서로서 나타난 결과로부터 원인을 향해 파고 들어간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병행 구절의 순서는 생산의 순서로서 뿌리부터 꽃으로 올라간다.”

바울이 여기에 배열한 순서를 보면 또 한 가지 흥미 있는 특징이 있다. 그는 사랑 다음에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란 말을 삽입함으로써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란 표현”을 나누고 있다(우리말 성경에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영어성경처럼 사랑과 믿음을 나누어 놓지 않았음-역주).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님이다. 사랑의 대상은 성도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이 나온 절을 사랑이 나온 절로 감싸고 있으며 이는 마치 빌레몬이 종 오네시모에게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자기 믿음이 살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미리 알려주려는 뜻인 것 같다. 그러므로 “모든”이라는 단어(모든 성도)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6 앞의 두 구절은 빌레몬에게 바울이 감사를 표시했다. 본 구절은 사도가 그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밝혀준다. “네 믿음을 나누었다”(우리말 성경에는 “네 믿음의 교제”로 나눔-역주)는 말은 빌레몬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실제적인 친절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굶주린 자를 먹이고 궁핍한 자를 입히고 가축 잃은 사람을 위로하며 근심하는 사람을 달래줌으로써, 물론 도망친 노예를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빌레몬의 자선을 베푸는 삶을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왔다고 인정하게 되기를 기도했다. 하

나님의 사랑이 확연히 나타나는 삶에는 엄청난 능력과 영향력이 있다. 책에서 사랑에 대해 읽는 것은 별개의 문제며, 인간의 삶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 얼마나 강력한가!

1:7 빌레몬의 관대함과 자기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소식은 골로새로부터 로마까지 전해졌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에게 큰 기쁨³⁾(또는 감사, NKJV 여백을 보라)과 위로를 전해주었다. 바울이 빌레몬을 주께 인도한 것은 큰 특권이었지만 이제 자기 믿음의 자녀가 주님을 위해 잘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 얼마나 뿌듯한 감격이었겠는가! 성도들의 마음이 이 사랑 받는 형제를 인해, 특히 그의 사랑을 인해 크게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얼마나 큰 위로였겠는가!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 수 없다. 우리는 선이나 악을 행할 잠재력이 무한한 존재다.

3) (7절) 대다수 사본을 보면 기쁨(charan) 대신에 감사(charin)으로 나온다.

3. 바울의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 (8-20절)

1:8 이제 바울은 이 서신의 본 목적을 다룬다. 그는 오네시모를 위해 중재하려고 한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 주제를 다룰까? 사도로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 형제여, 믿는 자로서 이 도망자를 용서하고 복권시키는 것이 형제의 의무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형제가 바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요”라고 말했다면 이는 정당한 것이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리 하라고 명할 수도 있었으며 빌레몬은 분명히 순종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별 의미 없는 싱거운 승리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1:9 사도가 빌레몬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면 오네시모는 냉정한 영접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는 순종만이 빌레몬의 집에서 이 종의 입장을 받아줄 수 있게 해주었을 것이다. 아마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구주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고 하신 말씀을 생각했는지 모른다. 사랑을 인하여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간구하는 쪽을 더 좋아했다. 빌레몬의 사랑이 바다를 건너 “나이 많은” 그리스도의 사신⁴⁾ 바울이 주

4) (9절) “나이 많은”(presbutes)이란 헬라어와 “사신”(presbeutes)이란 헬라어는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벤틀리(Bentley)는 바울이 “사신”이라고 썼다는 추측을

예수를 위해 갇혀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될까? 빌레몬은 “나이 많은”, 그리고 “이제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고 감동을 받을까? 우리는 이 당시 사도가 몇 살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 53세에서 63세 사이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오늘날로 보면 그다지 많은 나이가 아닐지 모르지만 사도는 그리스도를 섬기느라 자기를 온통 불태웠기에 나이에 비해 빨리 노화했던 것 같다. 그는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였다. 이 말을 하면서 그는 동정을 구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해주시기를 바랐던 것이다.

1:10 원어를 보면 본 구절에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맨 나중에 나온다. 즉 “내가 네게 간구하노라, 내 아들에 관하여,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오네시모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다. 빌레몬은 버림받은 이 종의 이름을 대하게 되었을 무렵 이미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였다. 이 “불한당”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얼마나 놀랐겠으며, 갇힌 자 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얼마나 더 놀랐겠는지 상상해보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은밀한 기쁨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며,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의 변화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먼저 바울은 빌레몬을 주님께 인도했다. 그 다음 사도는 나중에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되었다. 빌레몬의 종은 도망쳐서 로마로 갔다. 어찌어찌 해서 그 종은 바울을 만났고 구원받게 된다. 주인과 종이 모두 같은 전도자를 통해 구원받았는데 서로

내렸다. 이렇게 옮겼을 때 아무리 문맥에는 잘 맞는다 하더라도 전통사본은 전적으로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각각 구원받았으며 상황도 매우 달랐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

1:11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도망쳤을 때 빌레몬은 그를 몹쓸 녀석이라고 부르고 싶은 유혹을 받았는지 모른다. 바울은 사실상 “옳소, 형제와 관련해서는 빌레몬이 쓸모없었지만 이제는 나와 형제에게 유익하오”라고 말한 것이다.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좋은 도망갔을 때보다 더 나은 종이 되었다.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 노예가 다른 노예들보다 값이 더 많이 나갔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도 역시 그리스도인 직원들은 불신자보다 훨씬 빼어난 일꾼이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1:12 노예제도에 대한 신약의 태도가 본 서신서에 나타나 있다. 바울은 노예제도를 정죄하지도, 금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다. 사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 주인에게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 그러나 노예제도와 관련한 확대행위는 신약전체에서 정죄하고 또한 금지하고 있다. 매클라렌은 이렇게 썼다.

“신약은…정치나 사회적인 제도에 직접 개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원칙들이 일반인들의 생각 속에 스며들게 하고 있다.”⁵⁾

무력 혁명은 사회악을 바로 잡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사람이 비인간적으로 되는 원인은 그 타락한 본성에 있다. 복음은 근본 원인을 공격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5) (12절) 알렉산더 매클라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461쪽

다. 친절한 주인을 모신 종은 독립해 있을 때보다 더 형편이 좋아진다는 것은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주 예수의 종이 된 믿는 자들에게도 해당한다. 그분의 종들은 참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그 종에게 부당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주인과 종이 모두 믿는 자였다. 빌레몬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를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답게 충성을 다해 섬겨야 옳다.

사도가 오네시모에 대해 지닌 깊은 사랑은 “저는 내 심복이라”고 한 표현에 나타나 있다. 바울은 마치 자기 몸의 일부를 잃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우리는 배상에 대한 중요한 원칙이 여기 설명되어 있다는데 주목해야 된다. 이제 오네시모는 구원받았으니 옛 주인에게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걸까? 대답은 명백하게 “그렇다”이다. 구원은 죄의 형벌과 권세를 없애 주지만 빛을 탕감해주지는 않는다. 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지불하지 않은 빚을 모두 청산하고 인간적으로 능력이 허락하는 한 모든 과오를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을 섬기러 돌아가야 되고 또 전에 훗 흠친 돈이 있다면 그것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었다.

1:13 사도가 개인적으로 더 바란 것은 오네시모를 자기와 함께 로마에 머물러 두는 것이었다. 구원받은 이 좋은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이것이 사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조력자를 대증으로써)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빌레몬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허락하지 않았다면 온당치 않은 일이었다.

1:14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와 함께 로마에 머물러 둠으로써 종의 주인으로부터 선행을 강요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오네시모에게 아무 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했다. 만일 억지로 하거나 자유로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면 이 선행은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다.

1:15 현재의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표시다(롬 8:28). 오네시모가 도망갔을 때 빌레몬은 분이 끓어오르고 재정적인 손실을 보았다는 생각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른다. 도망간 그 종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이제 바울은 무지개를 따라서 검은 구름 사이를 통과해 나가고 있다. 오네시모는 잠시 골로새의 집안사람들에게 잃어버린바 되었으니 이는 저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었다. 믿는 친척과 친구를 사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위로로 삼아야 한다. 이별은 잠시 동안 일 뿐이지만 재회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1:16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된 빌레몬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관습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었다. 오네시모는 이제 종에서 뛰어나 곧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였다. 이제부터는 섬기는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 바울은 사랑받는 형제가 된 오네시모와의 교제를 이미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오네시모를 로마에 두려고 하지 않았다. 사도가 없으면 빌레몬이 얻는 것이었다. 빌레몬은 이제 오네시모를 육신과

주 안에서 형제로 알게 될 것이다. 전에 종이었던 자가 육신으로, 즉 몸으로 헌신적인 봉사를 함으로써 그의 신임을 받아 마땅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주 안에서 신임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는 그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와 교제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1:17 사도의 요청은 그 담대함과 부드러움에 있어 놀랍다. 사도는 빌레몬에게 자기에게 하듯 오네시모를 영접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그는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구주의 하신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마 10:40)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를 생각나게 한다. 또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드님 안에서 영접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만큼 하나님께 가깝고 친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

만일 빌레몬이 바울을 동무로, 함께 교제하는 자로 여긴다면 사도는 그에게 오네시모도 그와 동일한 근거로 영접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것은 오네시모가 전혀 일할 의무도 없이 집안의 영원한 손님으로만 대접받게 해 달라는 뜻이 아니다. 그는 여전히 집안에서 종이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며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형제로 대우해 달라는 것이다.

1:18 사도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뭘 훔쳤다고 한 말은 아니지만, 이 구절에서 혹 그랬을 수도 있었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분명 절도는 노예들이 흔히 저지르는 죄 중에 하나였다. 바울은 빌레

몬이 당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라도 기꺼이 책임지려 했다. 그는 변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네시모가 구원받았다 해서 그가 사람에게 진 빛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런 게 있으면 자기에게로 회계하라”고 한 것이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서 얼마나 엄청난 빛을 졌으며, 그 모든 빛이 갈보리의 주 예수님께로 회계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사 죽으셨을 때 그 빛을 완전히 갚아주셨다. 여기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사 일하고 계시다는 것도 생각하게 된다.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사단이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가지고 참소하면 우리의 복되신 주님께서는 사실상 “내게로 회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화목의 교리가 이 책에 잘 설명되어 있다. 오네시모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빌레몬과 관계가 소원해졌다.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와 ‘적대감’은 해소되었다. 이 종은 주인과 화목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원수된 것의 원인이 해결되었으며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1:19 보통 바울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대필하도록 하고 끝맺는 말만 친필로 썼다. 우리는 그가 이 서신을 친필로 썼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 구절에 와서는 직접 붓을 들어서 익히 알려진 필체로 오네시모가 진 빛이 있으면 다 갚겠다는 약속을 했다. 빌레몬이 자신에게 진 빛이 상당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 바울은 빌레몬을 주님께 인도했다. 인간을 도구로 쓰셨다는 점을 놓고 볼 때, 그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사도 덕택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게 그 빛을 갚으라고 강요하려고 하지 않았다.

1:20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나이 많은 바울은 다만 주 안에서 은택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다. 그는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영접해 달라고, 그를 용서하고 그 집안에서 봉사하던 위치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형제로써 그리 해달라고.

4. 맺는 말(21-25절)

1:21 사도는 빌레몬이 자기가 부탁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굳게 확신했다. 빌레몬은 그리스도께 값없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분명 오네시모에게 더 적게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의 실례가 나와 있다.

1:22 그러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는지 바울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는 골로새를 방문해서 빌레몬의 집에 묵고 싶어 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당국으로부터 풀려나게 되기를 고대했다. 그래서 그는 빌레몬에게 자기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고 부탁한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오네시모에게 처음으로 부여된 업무 중 하나였는지 모른다. “우리 바울 형제님을 위해 객실을 준비하라”고 말이다.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에 갔었는지 그 여부를 모른다. 우리가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객실이 그를 위해 마련되었고 집안 식구 모두가 바울 만나기를 고대했으며, 그들의 마음은 사랑의 띠로 엮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1:23 에바브라는 골로새에 모임을 개척했던 바로 그 사람 같다 (골 1:7-8, 4:12-13). 이제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갇힌 자 된 그는 빌레몬에게 바울과 같이 문안하고 있다.

1:24 이 당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였다. 이 이름들은 골로새서 4장 10,14절에도 언급되어 있다. 유스도라고도 하는 예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 서신에는 빠져 있지만 골로새서 4장에는 언급되어 있다. 마가는 두 번째 복음서의 저자다. 그는 초기에 실패한 후에는 신실한 종이 되었다(딤후 4:11; 행 13:13, 15:36-39).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의 신자로서 로마행을 비롯한 여러 여행에 바울과 동행했다. 골로새서 4:10에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 “내 동역자”라고 불렀다. 데마는 나중에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딤후 4:10). 사랑받는 의사 누가는 끝까지 신실한 동무요 조력자였다(딤후 4:11).

1:25 본 서신은 바울의 특징적인 인사로 끝맺고 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빌레몬의 심령과 함께 하기를 빌고 있다. 값없이 주시는 구주의 은총을 매순간 체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인생은 누릴 수 없다. 구주의 인격과 사역을 씬 없이 배우며 누리는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바랄 수 있는 전부다.

바울은 붓을 내려놓고 디모데에게 전해달라며 두기오에게 편지를 넘겼다. 그는 이 서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앞으로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의 품행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 이 서신은 사랑과 예의의 고전이며, 쓰여졌던 당시 못지않게 오늘 날도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아멘.

참고 문헌 목록

Carson, Herbert M. The Epistles of Paul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0.

English, E. Schuyler. Studies in the Epistle to the Colossians. New York: Our Hope Press, 1944.

Erdman, Charles R. Epistles of Paul to the Colossians and Philem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33.

King, Guy. Crossing the Border. London: Marshall, Morgan and Scott, Ltd., 1957.

Lightfoot, J. B. Saint Paul's Epistle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reprint of 1879 edition by MacMillan.

Maclaren, Alexander. "Colossians and Philemon," The Expositor's Bible.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888.

Nicholson, W. R. Popular Studies in Colossians: Oneness with Christ.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03.

Peake, Arthur S. "Colossians,"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Vol. 3.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1.

Robertson, A. T. Paul and the Intellectuals. Nashville: Sunday School Board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1928.

Rutherford, John. St. Paul's Epistles to Colossae and Laodicea. Edinburgh: T. & T. Clark, 1908.

Sturz, Richard. Studies in Colossians. Chicago: Moody Press, 1955.

Thomas, W. H. Griffith. Studies in Colossians and Philem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3.

Vine, W. E.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and Colossians. London: Oliphants, 1955.